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정책의 변화 전망과 발전 방안 연구

책임 연구자 : 배 주 미

공동 연구자 : 권 해 수

송 수 민

허 진 석

박 현 진

청소년상담연구 142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정책의 변화 전망과 발전 방안 연구

인 쇄 : 2008년 12월

발 행 : 2008년 12월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발 행 인 : 차 정 섭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83 / F. (02)2250-3007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아름기획

비매품

ISBN 978-89-8234-439-8 93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제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정책의 변화 전망과 발전 방안 연구
/ 저자: 한국청소년상담원.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42)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234-439-8 93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청소년 상담[靑少年相談]

334.3-KDC4

362.7-DDC21

간행사

지난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이 국가 정책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상담정책 또한 공적서비스로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청소년상담은 몇 군데 상담실의 열악한 환경과 기존의 성인상담과 외국의 청소년상담을 모델로 하여 어설픈 채 시작하였지만, 그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2008년 현재 중앙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비롯하여 16개의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7개의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30여개의 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화 등을 통해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국가의 청소년상담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물적·인적 성장을 이룬 것과 함께,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이 통합을 하고자 하는 변화의 시점을 맞아 본원에서는 청소년상담의 나아갈 길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정책의 변화전망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청소년상담 관련 정책과 서비스 변화양상을 되돌아보고,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선진국의 상담관련 서비스 내용을 살펴볼 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청소년상담의 나아갈 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이 갖춰야 할 다학제적인 접근, 전문성 강화, 통합적 지원, 단기적이면서 효율적인 상담방법, 사이버상담 등에 대한 강화 등의 다양한 제안과 함께 앞으로 청소년상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영역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도 어렵듯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애쓴 배주미 박사, 송수민 박사, 권해수 박사와 허진석, 박현진 연구원께 수고의 치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 조사에 협조해 주신 수많은 학계, 현장 전문가와 정책 자문위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발전에 조그마한 공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12월

원 장 차 정 섭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초 록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정책이 통합되는 변화의 시기에 청소년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적인 청소년 상담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이 취해야할 방식은 어떤 것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가,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6 가지 하위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청소년상담의 정의와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청소년상담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심리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6개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차원의 청소년상담정책에 대한 개관을 해보았다. 3장에서는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각 년도 시행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책 과제 중에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된 상담복지 정책 과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4장에서는 지난 15년간의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변화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사업의 변화 및 시범상담의 변화와 함께 지역 청소년상담실의 상담경향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상담내용의 변화가 위의 청소년관련 정책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과 또한 사이버상담과 온라인 자료의 활용을 통해 청소년상담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5년간 청소년의 삶과 고민의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5장에서는 앞으로 공적 서비스 영역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역할은 진로나 학업 문제로 특히 경제적 빈곤층에 대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감각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들에게 걸 맞는 사이버 상담의 구축이나 웹상의 무료 서비스의 개발, 다문화, 조손가정, 탈북 청소년 등 소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6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의 청소년상담 정

책 및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고유 기능 내에서의 청소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은 한 부처에서 관장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서비스의 상담 영역은 학대, 비행, 가출, 위기상담, 소외계층 및 자립지원 영역 등이 주 영역인 것으로 보여진다.

7장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상담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업들에서 전문적 상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공적 영역으로서의 상담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민간이 담당하기 힘든 상담인력에 대한 지원 및 관리영역과 빈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확대 서비스 지원, 연계망의 구축 및 관리의 역할들로 제시되었다. 8장의 공적서비스영역에서 청소년상담의 미래전망에 대한 델파이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운영체제 및 제도’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공적서비스 및 전반적인 상담에 대한 요구 증가, 다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의 필요성, 지역 중심의 청소년 상담체계 및 시스템 연계 활성화, 상담행정의 체계화,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조 등을 그 외의 빈곤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취약가정 지원, 인터넷 및 은둔형 부적응 등의 위기청소년 개입,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와 학교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청소년 상담서비스의 전달방식에 대한 전망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청소년상담은 다학제간 접근 혹은 팀 접근이 될 것이라는 것, 지역의 통합 지원 연계 체계 내의 상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 더욱 상담의 전문성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지역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사이버 및 채팅상담의 매체 상담과 단기상담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상담의 효과성과 책무성에 대한 전망으로 앞으로는 단지 상담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모델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영역과 대상에 대한 것으로 일반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상담의 강화를 통해 포괄하고 그 외에 위기 청소년, 취약계층, 시설 및 기관의 청소년과 청소년 자립영역과 관련된 상담이 주요한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영역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 서 론 | 1

II. 청소년상담의 정의와 국내 청소년상담 서비스 현황 | 5

1. 청소년상담 정의의 변화 5
2. 청소년상담에 대한 이론적 관점 6
3. 공공차원의 청소년상담 8
4. 다중 기관 협력체계 구축 24

III. 국내의 상담관련 정책의 변화와 전망 | 27

1.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 27
2. 시사점 44

IV.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변화 | 47

1. '1993-2007' 15년간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와 사업에서의 변화
47
2. '1993-2007' 15년간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 방법에서의 변화 55
3. '1993-2007' 15년간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의 상담경향
변화 58
3. 시사점 60

V. 청소년의 욕구변화 양상 | 62

1. 조사내용 62
2. 조사방법 63
3. 조사결과 66



4. 시사점	77
VI. 외국의 청소년 상담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 80	
1. 미국	80
2. 영국	91
3. 독일	97
4. 일본	114
5. 요약 및 시사점	123
VII. 국내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상담서비스 실태 133	
1. 조사내용	133
2. 조사방법	133
3. 조사결과	134
4. 시사점	142
VIII.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45	
1. 델파이(Delphi) 조사	145
2. 연구대상	146
3. 연구절차	146
4. 자료분석	147
5. 연구결과	148
5. 요약 및 논의	160



Ⅸ. 요약 및 제언 | 163

- 1. 요약 163
- 2. 시사점 및 논의점 166

참고문헌 172

부 록

- 1. 청소년실태조사 설문지 180
- 2.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서면자문지 190
- 3. 델파이 1차 조사 설문지 194
- 4.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195



표

표 2.1.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9
표 2.2. 노동부의 청소년상담 관련부서 및 업무	21
표 3.1.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부문별 주요 정책내용	28
표 3.2.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상담활동 관련 중점 추진 과제 비교	36
표 3.3. 아동·청소년정책 분야별 정책영역	42
표 3.4. 생애주기별 목표 및 추진전략	43
표 4.1.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연구의 변화	52
표 4.2. 1993년-1997년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 실적	55
표 4.3. 전국 상담실의 상담실적 및 상담내용의 변화	59
표 5.1. 설문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문항 수	62
표 5.2. 조사대상	65
표 6.1. 일본의 관계부서별 청소년 업무 담당 현황	114
표 6.2.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청소년 정책 및 기관	127
표 8.1.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147
표 8.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8
표 8.3. 공 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	151
표 8.4. 차별화된 서비스	152
표 8.5. 상담접근	152
표 8.6. 상담체계의 변화	153
표 8.7. 서비스 방법	153
표 8.8. 사이버상담 전문	154
표 8.9. 전달방법 다양화	154
표 8.11. 청소년상담 담당부처 변화	154



표 8.12. 상담의 책무성 강조	155
표 8.13. 복지적 정책	155
표 8.14. 부모교육 법제화와 의무화	155
표 8.15. 학교상담교사 제도	155
표 8.16.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156
표 8.17.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	156
표 8.18.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	157
표 8.19. 전문적인 개입	157
표 8.20. 비행관련 영역	158
표 8.21. 인터넷 중독 영역	158
표 8.22.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개입	158
표 8.23. 다양한 상담 증가	159
표 8.24. 학교상담 영역	159
표 8.25. 학업과 진로상담 영역	159
표 8.26. 기타영역	160



그림 I

그림 1. 연구내용 및 방법	3
그림 2. 연도별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 비율	66
그림 3. 학원, 과외 시간	67
그림 4. 일일 인터넷 사용시간	68
그림 5. 여가 활동	70
그림 6. 도시별 학원시간 비교	74
그림 7. 환각사용	75
그림 8. 흡연사용	75
그림 9. 연구절차	14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 역사를 통틀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는 일은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자리잡아왔다.

지난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이 국가 정책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은 이후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상담정책 또한 공적서비스로서 기틀이 마련되었다. 2008년 5월 현재 중앙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비롯하여 16개의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1개의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전국적인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30여개의 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화 등을 통하여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을 위시한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청소년상담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구축해 왔다.

그동안 청소년상담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며 더 나아가 전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및 창의적인 자기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면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이고 통합적이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청소년상담의 전문적 팽창과 대중적 확산을 이루어왔다. 특히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 이후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의 허브 역할을 맡으면서 지역 내에서 청소년상담의 중추 기관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및 정책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난 15년간 공적서비스로서 추진되어온 청소년상담은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생애주기적 관점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통합, 보호·복지 서비스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에 직면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청소년상담정책은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공적서비스로서의 본래의 정

체성을 찾기 위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상담이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서비스로 대상과 기능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상담정책의 변화 과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제안을 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이 취해야할 방식은 어떤 것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가,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체계가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목적, 즉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은 어떠한 대상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제의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였다.

① 청소년상담의 정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상담의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② 공적서비스로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정책은 국가 수준의 청소년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실현되고 있으므로 지난 15년간 청소년정책 속에 반영된 상담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내용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③ 청소년상담정책의 실제적인 수행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실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청소년상담의 서비스전달체계의 재편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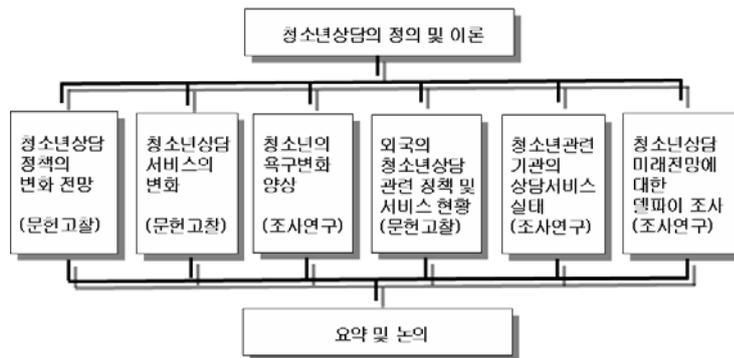
④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1993년, 2003년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제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이들을 위한 주요 서비스 영역을 예측해 보았다.

⑤ 아동청소년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의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이 나아갈 방향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⑥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 설문을 통해 이들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추후 이들 기관에 필요한 상담서비스 양상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⑦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청소년상담 전문가 및 정책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위 [그림 1]과 같이 문헌연구,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의 문헌 연구는 청소년상담 정책의 변화와 전망,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변화, 외국의 청소년상담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 3개의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지난 15년간 청소년상담정책 및 서비스 영역의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청소년육성기본계획 및 청소년백서 등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외국의 정책과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국가별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참고하고,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첫째,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 영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1993년, 2003년의 조사 항목을 참고하였으며, 관련 결과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난 15년간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향후 요구되어질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망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 대상 및 절차, 설문 문항, 결과 처리 방식 등은 결과 부분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청소년관련 기관에 설문을 실시하여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담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욕구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장에 자세히 기술되었다.

3) 델파이 조사

아동청소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 영역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동의여부와 의견을 조사하여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고자 실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는 총 2차례 실시되었는데, 1차 조사 때는 총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 때는 1차에 응답한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나누어진 평가 영역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5점 Likert 형식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II. 청소년상담의 정의와 국내 청소년상담 서비스 현황

1. 청소년상담 정의의 변화

우리나라에 ‘청소년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대화의광장’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청소년상담과 일반상담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은 채 청소년상담의 학문적 발전이나 실제적 노력이 미비한 상태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담활동은 생활지도의 차원인 학교 장면에서 규범에 벗어나는 청소년들의 행동들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상담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재창(1993)은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발달과정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청소년상담의 정의를 3가지 기준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면 청소년상담이라고 할 수 있으며(상담대상에 의한 구분), 둘째, 유년기,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관련된 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청소년상담이며(발달단계에 따른 구분), 셋째, 청소년들이 경험하거나 야기 시키는 특수한 유형의 문제에 의해서 구분하여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상담을 청소년상담(문제유형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상담의 정의와 기능에 기초하여 성인상담과는 차별적인 청소년의 심리적 측면과 환경적 특성을 강조한 정의로는 박재황 등(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김택호, 1993)이 내린 정의가 있다. 이들은 ‘청소년 및 청소년관련인(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과 청소년관련기관(가정, 학교, 청소년고용업체, 청소년수용기관, 청소년봉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봉사(개인 및 집단상담, 교육 및 훈련), 자문활동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 및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성진(1996)은 청소년상담은 ‘성장기에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예방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상담을 정의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길러주는 것을 강조한 정의(박성수, 김창대, 이숙영, 2000)에서는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은 존재의 용기, 성숙의 의지, 자아관 확립, 창조의 지혜, 수월성 추구하고 같은 힘(empowering)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청소년상담에 대한 정의들은 청소년상담이 지향해야할 바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감을 알 수 있는데, 첫째, 기존의 청소년상담은 문제중심적 접근, 즉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나 결핍된 부분에 대한 개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가진 잠재적 능력과 현재의 능력보다는 앞으로 펼칠 유능성에 초점을 둔 정의로 전환되고 있다. 이 흐름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상담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힘을 기러주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둘째, 단순히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를 교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성장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이 당면한 발달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변화대처능력을 길러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삶의 지혜를 갖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청소년상담은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개입은 가정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정책의 수립을 위한 개입활동으로써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상담의 정의는 청소년들의 유능감과 잠재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보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지향하는 정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상담에 대한 이론적 관점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들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양한 접근을 박종삼(1999)은 크게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이론과 인지적 발달이론 2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 이론은 심리적 발달이론의 기반으로 하여 여러 이론적 모델이 제시되었다. 첫째, 정신분석학적 이론가들은 생리적 성숙과 변화가 청소년기에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자아(ego)는 id의 충동과 초자아(superego)의 통제 하에서 갈등을 겪음으로써 청소년기는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성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이성의 대상을 근친상간적 사랑의 대상에서 분리해야하며, 같은 성의 부모와의 관계를 비적대적이고 비지배적인 관계로 성립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청소년상담의 방향은 청소년들의 아동기 체험 연관을 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의 양심 발달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도덕발달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청소년 전문상담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심리사회이론가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감, 직업적 정체감, 이념적 정체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여 이런 위기를 통해서 생산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또래와의 관계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정체감 정립의 과정에서 도덕발달 또한 이루어진다. 청소년상담가는 청소년 내담자의 생활사나 가족사가 그의 정체감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주목해야한다.

셋째, 사회학습이론가는 청소년의 행동, 대인관계, 자기평가 등을 계속 발달시키는 시기로 보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거나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어떤 부모, 교사, 또래 등을 모델링하느냐에 따라 건전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비행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에서는 특히 또래집단의 청소년 하위문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강화, 보상, 벌, 행동조성, 관찰, 모델링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상담전문가가 건전한 모델링을 제시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인지발달이론가들은 청소년기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진전하는 시기로써, 청소년의 사고는 급속하게 성장하며, 추상적이고 가설적·연역적 추리가 가능한 시기가 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주의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 행동, 언어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며, 또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은 너무 독특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지적 자기중심주의를 이해하고 그들의 인지발달적 특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개인에 적합한 상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은 진공상태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친구, 친

척, 종교단체, 학교 등의 영향을 받는다. Bronfenbrenner는 청소년의 발달을 부분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영향의 산물로 보면서 생태학적인 접근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발달이란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지각하고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지속적인 변화라고 하였다.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ronfenbrenner가 주장하는 환경에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5가지 환경체계가 존재한다(정옥분, 2008). 미시체계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 환경을 말한다. 청소년의 부모, 가족, 학교, 이웃이 이 체계에 포함되는데, Bronfenbrenner는 대부분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 미시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가족경험과 학교경험간의 관계, 학교와 직업의 관계, 가족과 또래간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또래, 학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체계는 개인을 직접 포함하지 않는 사회의 주요기관인 정부기관, 사회복지기관, 교통통신시설, 대중매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들은 청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거시체계는 위 체계들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다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 포함한다. 청소년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청소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간체계는 전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입장에서 청소년 상담은 각 상황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발견해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똑같은 환경으로 보일지라도 개인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상담에서 청소년의 환경을 알아볼 때는 한 가지 입장에서 알아보기보다는 부모, 교사, 또래, 각 체계간 상호관련성,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환경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공공차원의 청소년상담

2007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각 부처들은 고유기능에 따라 독자적인 청소년업무를 수행해 가고 있으며,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상담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정책 개편,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아동 복지 지원, 인적 자본 개발, 아동·청소년 정책 등의 관련 업무를 펼치고 있다.

<표 2.1>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부처명	업무내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지원 예술교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청소년폭력예방 및 선도, 교육복지 기반 확충(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등
외교통상부	한일 대학생 교류, 한중 청소년 교류, Working Holiday 청년 해외 연수
통일부	학교 및 기관, 사이버상의 통일 교육 개발, 보급 및 지원, 관리
법무부	소년 보호, 보호관찰, 아동 인권 정책 수립, 청소년 비행 관련 정책 등
경찰청	명예경찰소년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지원, 국제청소년영화제, 국제스포츠교류 등
농촌진흥청	4-H야영교육, 한국4-H본부 사업지원
지식경제부	외국인 학교 증설 및 운영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 개편,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아동 복지 지원, 인적 자본 개발, 아동·청소년 정책
환경부	환경 관련 수기 공모 등 교육
노동부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직업체험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청년층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 등 청년취업지원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보호
국토해양부	청소년여름해양학교 운영
대검찰청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학교담당검사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우범소년 결연사업

이와 같이 정부의 각 부처마다 중점을 두는 대상 청소년이 다르고,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할당된 청소년업무의 기능과 활동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처별로 청소년상담 관련 활동에 참가하는 상담인력의 명칭과 자격, 양성과정, 역할 등이 다양하며, 청소년상담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간의 협조 및 의뢰체계가 미약할 수 있다.

위 <표 2.1> 중 특히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대검찰청을 들 수 있다. 위 6개 부처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상담정책의 목적, 추진방향, 관

련법, 행정 및 전달체계, 상담기관 및 상담활동 현황, 상담인력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상담정책의 주부처였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고 있다.

1) 청소년상담정책의 목적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상담정책은 청소년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소년정책은 아동정책과의 통합이라는 대명제에 직면해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생애주기의 각 단계마다 누적적, 통합적,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애주기적 접근, 빈곤계층, 취약계층, 위기, 다문화, 새터민, 장애아동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 일반아동청소년 등 정책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적 접근을 시도하는 수요자 대상별 접근, 그리고 기본생활보장, 안전·보호, 건강·보건, 보육·교육·진로, 놀이·활동·문화, 참여·권리, 지원체계 등 7개 분야 영역별 전문성에 기반한 접근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소년상담정책의 추진방향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상담기관의 설립 운영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상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청소년상담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청소년기본법에는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나) 청소년상담인력양성

청소년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양성, 기관, 이수과정, 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향후 5년간(2009년~2013년) 시행할 국가아동청소년정책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5년간(2009년~2013년) 시행할 국가아동청소년정책 설명회 자료에 따른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기본계획은 ① 출생에서 자립까지 아동청소년의 안정된 성장발달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②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며, ③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미래 보장」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3) 관련법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상담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은 청소년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에 입법되어 2008년 2월까지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청소년상담행정 및 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전담부서로는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있다. 청소년상담정책 업무의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정책실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 청소년 상담·자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 청소년 전화(1388) 운영
- ▶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지도·감독
-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위기관리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 ▶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
- ▶ 민간 청소년상담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 비취학·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 ▶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 ▶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단기)의 운영·지원
- ▶ 가출청소년의 상담·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 아동 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 ▶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및 지원
- ▶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및 가해 청소년의 상담·치료 및 자립 지원
-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 청소년 상담·자활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 ▶ 근로·장애·탈북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 지원
- ▶ 위기(가능)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 위기(가능)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등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및 진로 지도
- ▶ 청소년 인턴취업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상담기관 및 상담활동 현황

(가) 한국청소년상담원

1991년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1999년에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출범한 후 청소년 상담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청소년상담프로그램 연구 및 자료제작 보급, 청소년상담사업 시범운영, 청소년전문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등의 전국상담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방의 청소년 및 학부모의 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을 처리하고,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시·도에 설립되었다.

6) 청소년상담인력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상담인력은 교육학, 심리

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등 상담관련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기하고 있어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인력이 확충되고 있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상담정책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요한 부처이다.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며, 학생의 제도권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후 생활지도나 상담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교도교사 제도,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통해 학교상담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청소년상담정책의 목적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선도, 예방, 합리적인 진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등교육에서 상담활동은 학생들의 잠재력함양과 발전, 예방활동, 필요한 정보나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2) 청소년상담정책의 추진방향

가) 전문상담교사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1973년부터 학교교육에서 교도교사에 의해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래 최근까지 중·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주임교사를 두도록 하여 생활지도와 더불어 진로지도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도부터는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시행하여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상담을 하는 교사가 아닌 전문적으로 상담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나) 학교상담실 설치 운영

12학급 이상의 중학교와 9학급 이상의 고등학교는 학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각 급 학교에 학생상담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상담지도 대상의 학생 수에 비하여 상담교사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생상담자원 봉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3) 관련법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초·중등학교에 교사 외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

4) 청소년상담행정 및 전달체계

학생상담활동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는 학교정책국의 학교제도기획과에서 주로 담당하며,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가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상담기관 및 상담활동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상담기관은 각급 학교상담실과 지역의 교육청 소속의 상담실로 구분된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등에서 학생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6) 청소년상담인력

전문상담교사(1,2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급 전문상담교사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2급 전문상담교사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다. 법무부

1) 청소년상담정책의 목적

법무부에서는 비행청소년교정상담정책의 목적을 청소년이탈을 조장한 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잘못 형성된 그들의 성행을 바로 잡아주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적, 치유적 측면에 두고 있다.

2) 청소년상담정책의 추진방향

(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지방 경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선도위원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선도위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향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도위원의 조직, 관리 및 행정적, 교육적, 지도 연수를 통해 담당선도위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도모한다.

(다) 비행청소년의 성격과 자질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판별

비행청소년의 성격과 특성의 정확한 진단은 비행청소년의 선도보호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이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질 때 교정처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소년원 입원 전 후에 전문적 조사와 감별, 분류심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비행청소년에 대한 수용 및 보호

소년원이 법원의 보호처분을 통해 수용을 확보하고 교정교육에 의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마)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설 외 처우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설 내 처우의 악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보호관찰제도가 있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지도감독 및 상담서비

스를 통해 교화, 개선시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도, 보호한다.

(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력과 전인적인 성장발전도모

비행청소년의 사후보호와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보호관찰소가 법무보호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사회성강화와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추수지도에 개별 상담 등 전문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법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교정상담정책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4) 청소년상담행정 및 전달체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16개 전국보호관찰소와 28개 보호관찰지소, 전국 9개의 소년원과 1곳의 소년분류심사원, 6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5개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5) 상담기관 및 상담활동 현황

(가) 소년원

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특성화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인성교육·특별활동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시설이다.

(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비행원인과 자질을 규명, 법원의 조사 심리자료를 제공하며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보호자 등에게 처우지침 제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다)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대상자의 자립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과 인성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전문적인 청소년심리상담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대안교육기관으로, 청소년을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 청소년상담인력

(가) 소년원

소년원의 직원은 공안직국 보도직을 주축으로 하고 의무, 간호 등의 기술직(의무직)과 별정직인 직업훈련교사, 고용직(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5급 이상의 분류심사관과 분류심사요원을 두고 있으며, 5개의 분류심사원 마다 2명씩을 상담요원으로 임명하여 특별히 상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선도위원이 있어 보호관찰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관과 교육, 심리, 사회복지 등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보호, 상담 및 교육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라. 경찰청

1) 청소년상담정책의 목적

청소년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미아, 가출인 수배보호,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정화단속, 명예경찰소년단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이들에게 진로와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적절하고 전문화된 개입이 요청된다. 경찰에서의 비행청소년을 위한 상담정책은 예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단속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비행으로 단속된 청소년은 적절한 선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소년상담정책의 추진방향

(가) 비행청소년 선도

경찰청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하여 한국BBS연맹 등의 청소년 단체와 협조하여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비행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가정과 학교 생활에 복귀하여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미아 및 가출인 보호

미아 및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82 실종아동찾기센터를 홍보하여 신고요령 등을 알리고 전산입력을 통해 수배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을 찾고 있다.

(다) 유해업소 정화단속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단속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음란매체를 강력히 단속하고 학교, 학원, 독서실 주변 취약시간 순찰을 강화하며 학교주변 유해 환경을 정화 단속하고 있다.

3) 관련법

경찰청의 청소년상담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은 청소년보호법과 여러 가지 사회적 유해환경의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청소년기본법, 경범죄처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이 있다.

4) 청소년상담행정 및 전달체계

경찰청의 청소년상담정책은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에서 주관하고 있다. 청소년계는 소년관련 경찰업무에 관한 주요 계획·연구, 소년비행방지 및 소년범죄수사 업무 지도,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상담기관 및 상담활동 현황

BBS연맹은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전국 14개 연맹에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인력이 소외된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영세가정 청소년, 시설아동 등을 보호하고 후원하며, 문제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6) 청소년상담인력

경찰청 산하 청소년상담인력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으로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텁고 일정한 직업과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서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위촉된 청소년선도위원이나 전국 14개 BBS연맹에서 자원봉사 하는 인력이 있다.

마. 노동부

1) 청소년상담정책의 목적

노동부의 근로청소년정책의 큰 방향은 연소한 청소년에게 건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적, 신체적 성장단계인 청소년근로자를 특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법률적 테두리인 헌법 및 연소자 관련 법규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근로청소년과 관련한 또 하나의 노동부 정책은 직업지도이다.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직업 지도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성숙도검사를 실시하며 직업에 관한 각종 상담과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의 청소년 정책은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한 것이다. 즉 근로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지도, 육성하기 위해 근로청소년회관 등과 같은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각종 문화활동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2) 청소년상담정책의 추진방향

노동부의 청소년 고용 지원 및 보호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청소년상담정책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1) 근로청소년의 고충처리와 2) 청소년의 직업지도로 요약된다. 노동부는 근로청소년의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산업상담원 운영, 근로 청소년회관 상담실 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청소년 직업 지도를 위해 각종 직업 선택 및 진로 지도를 위한 심리검사 실시, 직업상담원 배치, 직업지도 시범학교 운영, 직업정보자료 및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3) 청소년상담정책의 관련법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을 근거로 청소년상담정책 실시 및 청소년의 고용 정책을 실시하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 기준법: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을 통한 연소자 근로기준 준수(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 미성년자도 독자적 임금 청구 가능, 근로 시간 보호(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불가.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2) 직업안정법: 연소자에 대한 직업 소개의 제한,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4) 청소년상담행정 및 전달체계

<표 2.2> 노동부의 청소년상담 관련 부서 및 업무

청년고용 대책과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관련 사업 등 청년취업지원
직업능력정책과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운영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직업체험관 설립 및 운영
고용서비스 기획과	민간직업상담원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및 그 밖의 민간직업상담원 관련 제도의 개선 민간직업상담원의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청소년 및 성인구직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심 리검사 및 직업상담기법을 개발을 통한 직업 진로지도 서비스 제 공

5) 상담기관 및 상담활동 현황

상담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한국고용정보센터, 각 시도군의 직업지원센터
44개의 종합센터와 37개의 일반센터, 한국고용정보원

상담활동 현황: 집단 진로상담, 직업 훈련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상담인력

노동부산하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상담인력은 산업상담원, 직업상담원, 명예직업상담
원, 직업지도원, 일반상담자로 구성되어 있다.

바. 대검찰청

대검찰청에서는 학교폭력범죄의 예방과 단속, 소년선도보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학교담당검사제,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청소년상담정책의 목적

대검찰청은 비행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거주가 마땅치 않는 청소년들을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여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담당검사는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청소년상담정책의 추진방향

대검찰청은 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와 거주지역내의 범죄조장 요인을 제거하고 범죄억제 요인을 없애며, 지역사회 정화활동을 주도하여 청소년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정신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3) 관련법

대검찰청은 소년선도보호지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해 청소년상담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4) 청소년상담행정 및 전달체계

대검찰청의 청소년담당 체계는 형사부 형사2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검찰의 활동 중 지원활동 안의 소년선도보호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5) 상담기관 및 상담활동 현황

(가) 소년선도보호제도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여 1981년에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되었다. 소년선도보호 제도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

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개선·교화 가능한 비행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단시간 동안 교정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장기수형자로부터 직접 범행동기와 격리생활의 고통에 관한 체험적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 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우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 수 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담당검사는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마)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6) 청소년상담인력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학교담당검사 등이 청소년을 위해 선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4. 다중 기관 협력체계 구축

한 개인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며, 여러 환경들 즉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팀접근 즉, 협력체계 상담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을 상담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학교, 또래 등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그 청소년들에게 더 적합한 개입을 위해 사회적 연계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팀 접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과 동시에 관련 체계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연계로써 ‘협의체’구성에 대한 주장은 1990년 중반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역단위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및 의뢰체계 구축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주장하였다(이창호 외, 2005). 이러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이유는 자원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내담자의 복합적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생활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사례중심 연계체제,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상호이용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중심의 연계체제, 기관들 사이의 재정이나 인력, 역할을 상호 공유하는 기관중심의 연계체제가 필요하다(이성규, 2001).

나. 다중 협력적 개입(multi-based cooperative intervention)¹⁾

청소년들을 위해 구성된 팀들의 역할은 청소년들의 전 생애 상황(가족, 학교와 지역

1) 금명자 외(2000). 「청소년을 위한 다중-전문가 팀접근 상담 체제」에서 일부 발췌

사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개입들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보통 청소년들의 생활영역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로 한정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청소년들의 가정과 가족들은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또래와 교사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청소년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또한 그들의 행동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Dryfoos(1990)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사회제도나 시설을 변화시키는 개입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대부분 부적응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족들에게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과잉보호를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사와 학교행정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래와 지역사회는 부적응적 행동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교육이 없이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학교 장면에서 교사들의 태도에 대한 수정 없이는 청소년들은 학교를 멀리하고 학교에 오지 않는다. 또래압력과 지역사회의 지원 부족 등은 청소년들에 당면한 문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학교와 또래를 다루지 않는 가족치료는 청소년문제를 탐색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의 협력 없이 학교에서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들(예: 성교육, 약물교육)은 비효과적일 수 있다. 또래와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 청소년상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 영역에서 다중 협력적 개입은 청소년들의 개입에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 Dryfoos(1990)가 모든 개입과 관련된 모델들을 탐색한 결과, 약 10%가 초기 아동 혹은 가족개입 모델이었고, 60%가 학교에서 하는 개입 모델, 30%는 지역사회기반 혹은 다중기관 프로그램들이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단지 가족, 학교, 혹은 지역사회 한 곳에만 다루는 것이었다. Dryfoos는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패키지화 되어야하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다 아우르는 개입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 종합적 · 유기적 대응체계를 위한 다중기관간 실무규약의 발전

청소년비행 및 범죄 등과 같은 문제와 비행 영역에서는 기관들의 시각 차이를 줄이고 기관중심이 아닌 청소년수혜자 중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경찰·검찰, 법원, 민간단체 및 의료기관 등 상호간의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기관과의 통

합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 전문서비스 기관의 전문성과 특성화 강화, 기관연계를 위한 실무적인 협력체제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연계망 확보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내 처우와 개입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면서, 비행 예방 및 보호지원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 및 자원의 연계망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의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비행 예방 및 사회재통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환경의 조성, 특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Ⅲ. 국내의 상담관련 정책의 변화와 전망

이번 절에서는 국가 수준의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추진되어진 청소년상담의 정책 영역과 중점 과제들을 중심으로 그간 청소년 상담분야가 어떤 형태와 내용의 발전을 거듭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각년도 시행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책 과제 중에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된 상담복지 정책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상담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 방안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년)²⁾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년)은 청소년에 관한 최초의 장기 10개년 계획이란 점과 함께 그간 일부 문제청소년 위주의 단기적규제적산발적 처방에 머물던 대중적 청소년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청소년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거시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종전의 일부 문제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 위주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 기조에서 벗어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정책 영역과 과제들을 구안,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인 국가정책영역 및 과제로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맹연임 외, 2007).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의 업무 영역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 등 3부분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동 계획의 실행을 위한 법제 보강과 재정 확충 및 운영 등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부문을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복지 부문을 살펴보면, 사회 환경 개선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으로 나누어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청소년기본계획, 체육청소년부, 1991. p11). 먼저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① 청소년 관련 기초 자료의 정리, ② 가정·지역사회의 역할 증진, ③ 대중매체의 청소년 육성 역할 증진, ④ 청소년

2) 체육청소년부(1991).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유해 환경의 정비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은 시설보호청소년, 영세가정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무직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① 수련활동지원, ② 교육·직업 훈련 지원, ③ 비행 예방 및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부문별 주요 정책내용

부 문	부문별 주요 정책내용
청소년활동	수련거리/수련터전/전문지도자/청소년단체/동기부여
청소년복지	사회환경 개선/어려운 청소년 지원 (시설보호청소년, 영세가정청소년, 소년·소녀가장청소년, 무직청소년 등)
청소년교류	국제교류/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
법제보강	청소년배려제도 보강/청소년기본법 제정/청소년관계법령의 정비
재정확충 운영	동계획 총 소요재원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자원 조달과 민간부문 투자유도

가.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³⁾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토대로 1993년에 수립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 중 주요 변화로는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대체해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을 수립했다는 점과 1997년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되면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로 이원화되었다는 점이다. 상담정책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이 개원하였고(93).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의 개소수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제1차 청소년5개년계획은 ① 가정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② 이를 학교교육기능과 연계추진하며, ③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 함양과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 ④ 청소년 문화 활동의 조성 등의 4대 정책 과제가 추진되었다. 청소년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제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사업’을 들 수 있다.

3) 문화체육부(1993).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공동체이며 청소년의 사회화를 위한 일차적인 교육의 장이지만 가치관의 혼란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방침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을 실시하고 있고, 결손·문제 가정 발생 등에 따른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등 부적응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가정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지방 상담실과 연계하여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올바른 부모·자녀 간 대화 기법 등 각종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부모 모임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초청강연, 청소년문제 토론광장, 자녀지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학생 상담 여건이 열악하고 문제 학생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대화의 광장을 비롯하여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에서는 문제 및 비행학생에 대한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원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담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2)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 강화

사회적 무관심과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적 지원의 차원으로 청소년대화의광장 및 시도청소년상담실에서는 이들에 대한 진로문제 등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중점관리청소년과 일반관리 청소년으로 구분 관리하여 중점관리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 파악과 개인기록 카드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다. 청소년의 약물오남용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 조사, 약물의 폐해·치료 및 상담방법 등에 대한 약물남용예방지도서 제작 배포,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부모교실 개최, 약물남용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지역중심의 청소년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지방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상담실 설치 확대를 추진하였다.

나.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⁴⁾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청소년 정책은 그 목표를 보호·선도·교화라고 규정하고 이는 곧 청소년세대를 미래의 주역에 중점을 둠으로써 청소년의 현재의 삶 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 이와 함께 그간의 청소년 정책은 소수의 문제 청소년들의 지도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급자, 시설 위주의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추진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은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이 아닌 오늘의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활기찬 창의적 삶을 영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함께 소수 문제 청소년들이 아닌 다수 건강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활동에 중점을 두며 수요자·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향상과 지역 및 현장 중심의 열린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맹영임 외, 2007). 이 시기에 나타난 주요 성과로는 청소년대화의광장이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개원하였고, 울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실이 설치·운영되었으며, 지역단위의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차 5개년 계획은 1차 5개년 계획을 계승·발전시켰으며, 주요 과제로는 ①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 ②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③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주도 능력 배양, ④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 ⑤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청소년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및 참여확산’을 들 수 있다.

1)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청소년문제가 심화되고 청소년상담 및 생활지도의 수요가 격증함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상담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시·군·구 중심의 청소년상담 및 생활지도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상담 수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을 설치 확대하였다. 또한 찾아오는 청소년상담의 상담체제에서

4) 문화관광부(1998).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예방, 개입 및 발달 촉진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체제로 전환, 발전하였으며, 시·군·구청 소년상담실을 중심으로 상담활동을 하면서 읍·면·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년지도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하고, 예방 차원의 상담체계에서 비행, 문제청소년에 대한 교정, 재활상담까지 확대되었다.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컴퓨터 확대 보급 등에 따라 청소년들이 통신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를 개설('98)하여 사이버상담, 화상상담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약물, 비행 등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또래상담을 활성화시켰다.

특히 전국의 청소년상담실 활동을 지원하고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개발과 교육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현 청소년대화의광장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개원 하였고,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을 확대·설치하면서 전국적인 상담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각 영역의 전문가 및 청소년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단계적으로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전문직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하였다('99). 청소년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교재를 개발하고 기존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취업 및 직업훈련에 대하여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2)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1차 5개년계획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되었던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2차5개년계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동반자살, 가출·윤락 행위의 확산, 학교폭력의 흉포화, 조직화, 저연령화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도덕성(품성)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도하고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다. 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2003-2007)⁵⁾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2차 5개년 계획이 표방한 청소년 인식과 정책 방향 등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는 유지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하는 정책 과제의 발굴과 실천, 평가를 최우선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청소년 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의 단계를 극복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 유지를 정책의 방향으로 삼았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지식사회로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5일 근무제(수업제)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청소년 정책의 수행과 실천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맹영임 외, 2007). 이 기간 동안 청소년보호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이 확대 설치되었고, 청소년상담자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5대 정책 과제로 ①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②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③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④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⑤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등이다. 이 중에서 청소년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중점 추진 과제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와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로 볼 수 있다.

1)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성인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취업 및 사회진출 연결 사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6~7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을 수용할 교육체제도가 미흡하고, 소년·소년가장, 농어촌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취업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청소년 창업 지원, 소외청소년 직업 능력 향상 등 보다 직접적인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부적응청소년 조기 발견 체제를 갖추어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대안학습기회를 늘리고자 하

5) 문화관광부(2003).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사회진출 연계서비스를 추진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소년 취업, 창업 지원, 청소년 직업·진로교육확대, 소외계층 청소년(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탈북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의 자립 능력 향상 지원 등이 있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확대(3-3)는 3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중점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이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청소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와 청소년상담실간 연계를 강화하고, 잠재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진로지도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2)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효율적,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현장접근서비스 중심의 청소년 가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가출청소년보호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이버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였다.

3) 청소년원스톱지원체제구축

3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단위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기관 운영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지역사회 청소년상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상담 전화 통합망 체제 강화).

라. 제3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6년, 2007년 시행계획⁶⁾⁷⁾

2005년에 출범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비전과 목표, 5대 정책과제는 유지하되,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점추진 정책 목표 및 이행 과제를 수립하였다. 이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의 기본 목표인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조직에 의해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정책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출범 이후 청소년 정책의 기본 목표를 「청소년역량 강화」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① 청소년 잠재 역량 개발, ②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③ 청소년 참여·권리 증진, ④ 청소년 성장 환경 개선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성장 환경 개선’을 들 수 있다.

1)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구축

2005년 4월 27일 출범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위기 지속 기간에 따라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 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위기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리하여 가출이나 학업중단 등 가정이나 학교의 보호망에서 이탈한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제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학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기관, 사회복지관, 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드롭인센터, 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24시간 상담, 구조, 치료, 자활 등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청소년전화 1388, 긴급구조서비스,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보호서비스, 교육 및 학업지원서비스,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의료 및 건강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법률 자문

6)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제3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

7)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제3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

및 권리구제 서비스 등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로 되는 모든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다. CYS-Net의 서비스 관문 역할로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전화나 이동전화에서 모두 1388을 누르면 CYS-Net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의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심리 및 정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자활 지원 등 서비스 연계 기능, 위기상담, 유해환경 신고·접수 등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CYS-Net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동반자는 위기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으로 기존의 멘토나 자원봉사시스템에서 부족했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모델이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서 정서적 지원, 연계 후 적응관리, 가정방문/과약/개입, 학교방문/과약/개입, 대상청소년의 평가,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CYS-Net는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관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통합함으로써 one-stop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입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입시위주교육과 유해 환경이 만연한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해주는 상담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상담기관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일상 생활권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또래상담, 거리상담 등 현장상담 활성화, 청소년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확대, 각 급 학교와의 상담지원연계 강화,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적응지원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네 번째 정책 목표인 청소년 성장 환경 개선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과제는 ①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②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③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한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기반 마련,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상담인력 확보 등은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3.2>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상담활동 관련 중점 추진 과제 비교

	청소년기본계획 (1992-2001)	1차 청소년 육성5개년계획 (1993-1997)	2차 청소년 육성5개년계획 (1998-2002)	3차 청소년 육성5개년계획 (2003-2005)	3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2006년, 2007년 시행계획
중점 추진 과제	·사회환경 개선	·가정과 학교의 역할증대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어려운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가정과 지역사회 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세부 추진 과제	·청소년관련 기초자료정리 ·가정, 지역사 회의 역할 증진 ·유해환경정비	·가정교육기능 회복 ·학교의 전인교육 및 문제학생지도 강화	·청소년 상담활동 의 강화 ·소외 및 농어촌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의 직업 및 자활능력 향상	·청소년 사회진출 서 비스추진 ·소외계층 청소년 학습권 보장 ·학교부적응 청소년 지원체계구축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 축 ·청소년지원서비 스 확대
	·비행예방·관리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비행 예방 및 계도	·올바른 자녀지도 위 한 부모교육 ·도덕성 회복을 통 한 시민의식 함양 ·문제 청소년 선도 예방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과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가출 예방·선도 및 보호	·청소년생활환경 개선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마.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9-2014)⁸⁾

지난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을 시발점으로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청소년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아동정책과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외부적 정책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과 맞물려 관련 법령의 재정비, 주요 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서비스 대상의 통합, 정책 추진전달체계의 변화 등 수많은 변화들이 예고

8)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용어(개념), 통합정책의 방향, 관련 법령, 기본계획 등 제반 사항은 현재 추진·검토 중에 있으므로 본고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은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소개하는 수준이다.

되고 있어 청소년상담정책이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에 따른 관련 법 개정의 주요 골자와 아동청소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 의의와 주요 방향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아동정책과의 통합이라는 대명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비슷한 연령대(아동정책은 18세 미만, 청소년정책은 9-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관할 부처(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밑에서 정책의 내용이나 방식, 정책전달체계 등에서 이질적인 기능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해왔다. 아동정책은 196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요보호아동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수혜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반면 청소년정책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을 시발점으로 청소년기본법, 활동법, 복지지원법, 보호법 및 성보호법 등 탄탄한 법체계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아동정책이 요보호아동 중심의 사후적·소극적·개별적 정책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정책은 사전적·예방적·보편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은 시기적으로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할 부처의 통합에 따른 후속 작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각 국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에 따라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하여 두 정책을 행정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는 그동안 이질적으로 발전해온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관련 법령들을 재정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의 범주를 25세 미만으로 한다는 것이다. 종전 아동정책은 18세 미만, 청소

년정책은 9-24세이었는데, 통합 정책에서는 25세 미만으로 하여 출생에서부터 자립 이전까지의 연령 전체를 정책 대상 연령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책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히 않으며,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용어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정책 대상 또한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상의 연령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종전의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선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둘째, 종전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편제되어 있던 법률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을 통합하여 모(母)법으로 아동청소년기본법(아동·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능별로 보육법, 활동법, 복지법, 보호법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보육은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을, 활동은 청소년활동법을, 복지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아동복지법을 통합하려고 한다.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근거 및 기능, 지방상담센터의 기능 등에 대한 조항은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셋째, 정책 추진 전달 체계를 재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각기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관련 법령 개정을 기회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공공성과 중심축의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과 시도 단위에서는 복지와 활동 영역으로 이원화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전달체계의 중심축에 해당되는 기관의 명칭(한국아동청소년복지진흥원 vs 한국아동청소년복지원 등)에서부터 기능, 시·도 및 시·군·구 전달체계의 통합 문제 등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아동청소년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한국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기본 계획은 향후 5년간(2009년~2013년) 시행

할 국가아동청소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7월 ‘아동청소년기본계획 설명회’ 시간에 제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기본계획은 ① 출생에서 자립까지 아동청소년의 안정된 성장발달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②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며, ③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미래 보장」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아동청소년기본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추진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생애주기적 접근, 수요자 대상별 접근, 그리고 영역별 전문성에 기반한 접근을 말한다. 각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적 접근이다. 아동청소년이 사회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의 각 단계마다 누적적, 통합적,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생에서 자립까지’ 지속적이고 누적적(cumulative)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절의 위험을 극복하고,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을 지양해야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생애주기적 접근은 앞선 연령집단에 대한 적절한 투자로 후속 세대의 최대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주요 위험요인과 특성, 우선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각 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별도의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주요 발달과정상의 과업에 따라 기능별 정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수요자 대상별 접근이다. 이것은 생애주기적 접근과 함께 아동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자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그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빈곤계층, 취약계층, 위기, 다문화, 새터민, 장애아동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 일반아동청소년 등 정책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생애주기적 관점에 따라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별로 취약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수요자 군을 체계화하여 발달단계별, 위기상태별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보호·복지 정책이 공백 없이 추진되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역별 전문성에 기반한 접근이다. 기본계획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애주기별, 통합형 정책 서비스 전달을 위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기본생활보장, 안전·보호, 건강·보건, 보육·교육·진로, 놀이·활

동문화, 참여권리, 지원체계 등 7개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정책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기본생활보장 영역),
- 아동청소년이 각종 사회적, 물질적, 환경적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안전·보호),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건강보건),
- 아동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진로를 개척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보육·교육·진로).
- 아동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잠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맞는 놀이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활동 기반을 강화하며(놀이·문화·활동).
- 아동청소년들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책참여를 제고하며 자원봉사활동 등 일상생활 및 사회 전반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권리 보장 및 인권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참여·권리).

아동청소년기본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에 따라 분야별 정책 영역들을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본생활보장은 경제적, 교육문화복지적으로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저소득, 장애, 위기,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 안전 및 보호는 아동청소년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 유익생활환경 조성, 유해약물규제강화, 비행·일탈예방, 학교폭력, 아동학대, 유과실종 등 정책영역에 따라 세부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성보호 강화, 안전 및 보호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 건강증진은 의료보장, 건강한 신체발달, 정신건강 향상, 건강생활실천으로 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건강증진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을 우선으로 세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역량개발은 아동청소년의 보육, 직업역량, 국제교류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디지털의 역량, 다양한 활동기회보장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되며,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게

공평한 복지 및 교육기회제공, 다양한 경험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 등의 세부정책을 추진

- 참여 및 권리증진은 정책참여제고, 일상생활참여증진, 자원봉사활동, 아동·청소년권리교육 및 국제협약이행 강화,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인권강화 등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될 것이며,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의사표현 및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권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등 세부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지원체계는 아동·청소년 지원 인프라 강화와 아동·청소년 정책추진체계 강화 등의 정책영역으로 구분되며, 효과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및 추진기반 조성할 것이다.

<표 3.3> 아동·청소년정책 분야별 정책영역

분 야	정 책 영 역
기본생활보장	·저소득 아동·청소년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강화 ·장애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
안전 및 보호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익매체환경조성 ·비행·일탈예방 ·아동학대, 유과·실종 ·안전 및 보호지원체계 강화 ·유익생활환경조성 ·유해약물규제강화 ·학교폭력 ·성보호 강화
건강증진	·의료보장 ·정신건강 향상 ·건강한 신체발달 ·건강생활실천
역량개발	·보육강화 ·글로벌·디지털 역량강화 ·아동·청소년 활동기반 강화 ·아동·청소년 진로 및 자립지원 ·다양한 활동기회 보장
참여 및 권리증진	·정책참여제고 ·자원봉사활동강화 ·우대제도확대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인권강화 ·일상생활참여증진 ·동아리활동참여강화 ·아동·청소년권리교육 및 국제협약이행강화
지원체계	·아동·청소년 지원 인프라 강화 ·아동·청소년 정책추진체계강화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접근에 의한 통합적이고 누적적인 개입 및 지원정책을 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주요 추진목표에 따라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기(0~5세)는 양육결핍, 환경 독성물질에의 노출, 영양결핍 등의 취약성을 가

지고 있고, 기초적인 인지적·사회적 능력이 발생할 시기이다. 따라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신체발달, 건강한 출산, 안전교육, 지능발달, 보육지원강화, 아동학대감소 등의 목표를 수립할 예정이다.

- 아동기(6~12세)는 가족자원의 제한, 사회적 기반 및 공공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수행능력의 부족, 학교부적응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 폭력감소, 건전한 생활습관, 방과 후 지도, 다양한 체험활동, 기초기능 및 능력의 향상 등을 목표로 수립할 예정이다.
- 청소년기(13~18세)는 중고등교육기회의 부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및 정책에의 참여부족 등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취약 및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음주흡연을 감소, 학교 참여증진, 직업의식 고취, 리더십 개발, 의사소통능력의 함양, 지역사회 참여증진 등의 목표를 수립할 예정이다.
- 청년기(19~24세)는 생애기술개발의 부족, 보건서비스 정보 및 접근기회 부족, 노동시장에의 취업기회 부족 등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생산적 보건 개선, 상담체제 충실, 직업능력개발, 사회응집력 개선, 직장 및 작업장 권리향상 등의 목표를 수립할 예정이다.

<표 3.4> 생애주기별 목표 및 추진전략

연령집단	영역	중점추진목표
0~5세	기본생활보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건강증진	·신체발달, 건강한 출산, 발병 및 장애 감소
	안전 및 보호	·안전교육
	역량개발	·지능발달, 보육지원 강화
	참여 및 권리	·아동학대 감소
6~12세	기본생활보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건강증진	·신체발달, 발병 및 장애감소, 건전한 생활습관, 체육활동증진
	안전 및 보호	·안전교육, 교통사고율 감소, 학교 내 폭력감소, 상담체제 도입
	역량개발	·기초기능 및 능력의 향상, 방과 후 지도, 다양한 체험활동, 미디어 활용능력 배양, 의사소통능력의 함양
	참여 및 권리	·아동학대 감소, 학교부적응감소

13 ~ 15세	기본생활보장	·취약 및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건강증진	·건강한 생활습관, 음주흡연율감소, 상담체제의 충실
	안전 및 보호	·안전교육, 교통사고율 감소, 학교 내 폭력감소
	역량개발	·학습능력제고, 직업의식 고취, 생활기술개선, 사회성 개발, 리더십개발, 다양한 체험활동, 의사소통능력의 함양, 미디어 활용능력배양
	참여 및 권리	·학교 참여증진, 학교부적응감소
16 ~ 18세	기본생활보장	·취약 및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취업지원
	건강증진	·건강한 생활습관, 음주흡연율감소, 상담체제의 충실
	안전 및 보호	·안전교육, 교통사고율 감소, 학교내 폭력감소
	역량개발	·학습능력 제고, 직업적 기초지식 및 기술습득, 학교에서의 취업지도, 생활기술개선, 사회성 개발, 리더십개발, 다양한 체험활동, 의사소통능력의 함양, 미디어 활용능력배양
	참여 및 권리	·지역사회 참여증진, 작업장 권리향상
19 ~ 24세	기본생활보장	·청소년실업감소, 취업지원, 직장정착지원, 창업지원
	건강증진	·재생산적 보건 개선, 상담체제 충실
	안전 및 보호	·폭력 및 범죄 감소
	역량개발	·직업능력개발, 리더십개발, 생산성 향상, 사회응집력개선, 의사소통능력의 함양
	참여 및 권리	·지역사회참여증진, 직장 및 작업장 권리향상

2. 시사점

앞에서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서비스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지난 2007년까지 수행된 제3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상담서비스는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서비스의 대상 및 내용,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에서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괄

목한 만한 성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지난 15년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출범을 비롯하여,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⁹⁾, 137개의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전국 수준의 상담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를 통하여 국가 수준의 청소년상담정책-예를 들어 부모교육 활성화, 또래상담자훈련, CYS-Net 구축, 청소년동반자 양성 및 운영, 지역단위 인터넷중독예방체제구축 등-이 지역사회 단위로까지 단기간 내에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가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청소년상담 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상담의 인적 인프라의 양적 증가와 전문성 함양을 들 수 있다. 공적서비스로서 국가적 지원을 받으면서 청소년상담이 출발하였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청소년상담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기존 인력만으로 불어나는 상담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기존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한편으로는 부모교육전문지도자,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전문가, 전문직자원봉사체제를 구축 운영하면서 준전문가를 양성해왔다. 그러다가 2003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청소년상담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청소년상담사 배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면서 전문자격을 갖춘 이들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의 front-line으로서 청소년동반자들의 활동이 전개되면서 위기청소년들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마다 청소년 관련학과가 생겨나면서 학부 수준의 청소년상담인력들이 양성되는 등 지난 15년간 청소년상담인력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난 15년간 제공된 청소년상담서비스 내용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부모교육 활성화, 또래상담자 체제 구축, 도덕성회복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직자원봉사체제구축 등을 통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환경을 구축하는 일과, 약물오남용, 비행, 학교부적응, 취약 계층 등 일부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9) 지난 15년간 청소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어져 왔다. 독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기관명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데 주력해 왔다. 그러다가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의 허브 기능을 맡으면서 가정이나 학교의 보호망으로부터 이탈한 위기청소년을 지원-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방, 상담, 보호, (긴급)구조, 자활-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중점 역할로서 맡겨졌다. 물론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CYS-Net의 허브 기능이 맡겨지면서 갑작스런 조직 체계 및 업무 전달 체계의 변화, 규모 확대 등으로 구조와 기능 면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상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복지적 의미의 상담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좁은 의미의 상담에서 예방, 상담, 보호, 구조, 자활(자립)로 청소년 상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 추진 체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중앙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청소년센터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강화되었던 반면에, 2003년 제3차 5개년계획(지역사회의 상담망 구축 강화)이 시행되고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여왔다. 학교밖청소년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이 그 일례가 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기존의 상담서비스를 교육, 고용, 건강, 안전, 주거 등의 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관련기관간의 효과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파편화된 상담서비스가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과 거버넌스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변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청소년상담서비스는 질적·양적 측면 모두 매우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변화는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그 전신인 ‘청소년대화의광장’과 함께 지역의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성장과 함께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부터 청소년상담에 대한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시범상담,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보급과 전문 인력 교육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상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에서부터 그 일의 실행을 맡아왔으며, 나아가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들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원과 자문을 통해 비교적 통일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육성 및 보호, 선도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따라서 지난 15년간의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변화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사업의 변화 및 시범상담의 변화와 함께 지역 청소년상담실의 상담경향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이러한 변화를 청소년육성 계획의 변화 및 청소년의 삶·고민의 변화 설문주기인 1993년-1997년, 1998년-2002년, 2003년-2007년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993-2007'15년간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와 사업에서의 변화

1993년 ‘청소년대화의광장’으로 개원한 이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130편이 넘는 연구와 이와 맥을 같이 해온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연구 및 사업들은 물론 ‘청소년 기본계획’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러한 연구 및 사업의 변화를 1993년-1997년, 1998년-2002년과 2003년-2007년의 시점을 중심으로 비교 해보고자 한다. 특히 각 시기의 사업과 연구를 ‘상담정책연구와 상담체계구축 영역’, ‘청소년 육성 및 문제예방 영역’, ‘위기청소년 개입 영역’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가. 1993년-1997년: 청소년상담의 도입 및 안정화 시기

1) 상담정책 및 상담체계구축 영역

1993년-1997년을 ‘청소년상담 도입 및 안정화의 시기’로 볼 때, 이 시기의 주요 정책 및 기초연구들은 과연 청소년상담을 이 땅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청소년상담의 기본정책 연구>와 <청소년 상담체제 발전연구>, 이러한 청소년상담 발전을 위한 인력수급에 대한 고민인 <청소년상담 인력개발 정책 연구>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 외에 청소년상담에서 기본적인 상담 기법으로 활용되어온 <인지상담 기법 개발>연구가 이미 이시기에 이루어졌다.

‘청소년상담 체계구축 사업’으로는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환경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전국의 청소년상담 시설을 갖추는 것을 지원하였다. 그와 함께 이곳의 청소년상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청소년상담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함으로써 청소년상담에 대한 정체감을 갖게 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청소년상담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였다. 그와 함께 ‘청소년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고, ‘청소년 상담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전문성과 전문가 집단의 의사교류를 활성화하였다.

2) 청소년육성 및 문제예방 영역

기초적인 상담정책과 체계구축과 같은 청소년상담의 토대위에 개발된 동 시기의 프로그램들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일반 청소년의 육성과 문제예방’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으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겠다. 그 중 ‘일반청소년의 육성과 문제예방’으로는 청소년들의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연구물(예,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 청소년 시간·정신에너지 관리연구)과 청소년의 정서 및 성격함양 영역의 연구물(예,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도덕성증진 프로그램), 부모교육과 관련된 지침서 등이 발간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또래상담 사업’과 ‘청소년도덕성 증진 사업’은 ‘청소년 대화의광장’을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도 활발히 추진된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위기청소년 개입 영역

‘위기청소년 개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비행청소년상담 프로그램, 비행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청소년상담 초기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위기청소년 대상 사업은 없었으나 많은 시범 상담 영역이 이와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상담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초기부터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가 진행된 ‘청소년 약물남용’과 ‘비행청소년 상담과 부모교육’에 대한 시범 상담 사업이 진행되었다.

나. 1998년-2002년 : 청소년상담의 확장 및 활성화 시기

1) 상담정책 및 상담체계구축 영역

1998년부터 2002년에 이르는 5년간은 청소년상담의 확장과 활성화를 이루는 시기일 것이다. 실제 지역 상담실의 경우 시·도 상담실 15개와 함께 1998년에는 75개소이던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이 2002년에는 125개까지 확장되는 등 청소년상담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청소년상담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많이 높아진 시기이다.

이를 위한 이 시기의 노력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그 첫째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전국 청소년상담자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본격화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국가자적인 ‘청소년상담사’를 배출하고 교육함으로써 청소년상담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교육하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활성화방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민하였다는 것이다.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활성화 방안 연구>와 <청소년 지역상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교 장면에서의 청소년상담에 대한 방안 모색(예, 학교상담 체제연구, 학교 상담 모형 연구),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비행청소년 상담지원 정책 및 중도탈락 청소년 개입체제, 가출 청소년 상담정책 등과 같이 1993년-1997년에 정립된 청소년 상담 정책이나 체계운영에 더하여 세분화된 개입 대상, 상담자 유형 및 상담 장면에 따른 운영모형을 개발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업과 연구들은 청소년상담이 단지 개인적이거나 지엽적인 성장이 아닌 비교적 표준화되고 단일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체계구축을 하는 중앙기구로서의 역할을 통해 청소년상담 영역이 단시간에 확장하고 발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네 번째, 1998년에 시작된 ‘유코넷’ 시스템을 통한 사이버상담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는 상담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상담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로 사이버상담과 웹 활용 심리검사 등의 off-line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상담방식의 개발은 그 이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청소년상담 발전에 매우 획기적인 사건일 것이다.

2) 청소년육성 및 문제예방 영역

이와 함께 ‘일반 청소년 육성 및 문제 예방’과 관련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품성계발’이 될 것이다. 199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부모교육 관련 지침서들에 더한 지속적인 부모교육 지침서의 발간을 통해 8종의 부모 교육 지침서가 발간되어 다양한 부모교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서와 연구물의 도움에 힘입어 이전부터 해오던 ‘부모교육 사업’과 ‘또래상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교육 지도자들을 대거 배출하게 되었다. 강사 및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부모교육 지도자와 또래상담 지도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 품성계발 사업’ 또한 활성화하여 이전부터 해오던 ‘청소년 도덕성증진 운동’을 확장하여 청소년의 인성개발의 다양한 측면, 배려 및 양보와 같은 시민의식과 자기조절 능력 등을 증진하고자 애써왔다.

3) 위기청소년 개입 영역

‘위기청소년 개입 프로그램 연구물’로는 컴퓨터 사용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인터넷 중독을 초기 개입하고자 한 <인터넷과다사용 예방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대처>, <청소년도벽의 이해와 대처>와 같은 전문가 교육을 위한 위기청소년 상담 기법에 대한 교재들이 발간되어 청소년상담자들의 위기청소년개입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다.

또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 ‘해밀’과 ‘전문직 자원봉사자 모임 운영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다사용 예방사업’을 이 시기부터 시작함으로써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여왔음을 알 수 있다.

다. 2003년-2007년 :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다각적 개입

1) 상담정책 및 상담체계구축 영역

제 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진행된 2003년-2007년의 시기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와 사업 또한 이러한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특히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망을 통합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정책 및 기초연구'들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연구>를 필두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연구>나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방안>,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연계 체제 구축>, <통합지원체계와 학교상담의 연계>, <중장기 쉼터 모형연구> 등과 같은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 제도 운영 및 연수', '청소년상담자 전문연수' 등의 청소년상담 인력양성과 전문성 배양을 통한 '청소년상담의 인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전히 기울여 왔다.

2) 청소년육성 및 문제예방 영역

'일반청소년 육성 및 문제예방' 관련 연구로서는 청소년의 '지적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청소년 수월성축진 프로그램>, <진로불안 감소 프로그램>,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매뉴얼>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지침서>이 출간되었다. 또한 기존에 발간된 부모교육 연구 및 지침서에 더하여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되어 부모의 역량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는 노력까지 기울여왔다. 이러한 다양한 지침서의 발간을 통해 사업은 더욱 활성화되어 기존에 해오던 '부모교육 사업'과 '또래상담 프로그램 사업'등이 꽃을 피운 시기라 볼 수 있겠다.

3) 위기청소년 개입 영역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으로는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이혼가정 부모와 청소년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반사회적 행동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모형 개발>, <은둔형 부적응청소년 상담 가이드북> <청소년인터넷 중독해소 및 예방 업무지침>, <일시보호사업 실무자 매뉴얼>, <청소년동반자 수퍼바이저 매뉴얼>, <두드림존(자활사업)

매뉴얼> 등을 다양한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다각적인 방식으로 돕기 위한 연구물과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변화이자 두드러지는 사업으로는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이를 통합적인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통합지원망 구축 및 활성화 사업’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온 것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동반자 지원’, ‘두드림 프로그램 등의 자활사업 지원’,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해밀센터)’, ‘인터넷 중독학교 운영’ 등이 이러한 지원 사업으로 이들 사업을 통해 그동안 다소 일반청소년 육성과 문제예방 수준에 그치고 있던 청소년상담 사업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거 참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청소년상담 서비스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표 4.1>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연구의 변화

		상담정책 및 상담체계구축	육성 및 문제예방	위기청소년 개입
1993 - 1997	연구	·정부의 청소년상담정책 ·청소년상담체제 발전연구 ·비행청소년 상담지원 정책 ·학교상담체제연구 ·청소년상담인력개발정책연구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 ·청소년 시간·정신에너지 관리 연구 ·청소년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도덕성증진 프로그램 ·부모교육 지침서 개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상담 ·비행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분노조절 ·비행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상담기법 개발
	사업	·청소년상담 교재 개발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설치 지원 ·상담 환경 인프라 구축 지원 ·청소년상담학술지 발간 사업	·청소년 도덕성증진 사업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진로의사결정 시범상담	·청소년 약물 남용 시범 상담 ·비행청소년· 부모 시범 상담 ·다양한 위기청소년 시범상담
1998 - 2002	연구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활성화 방안 연구 ·잠재 중독탈락 학생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체제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 ·청소년품성개발 프로그램 ·청소년수월성개발과 촉진연구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가족상담 기법 개발 ·인터넷과다사용예방프로그램 ·사이버상담 지침서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대처

		·청소년상담발전방안 연구 ·청소년사이버상담 발전모형· 채팅상담 성과모형 ·가출청소년 상담정책 연구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실시연구	·Web활용 심리검사	·청소년도벽의 이해와 대처
	사업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운영 ·청소년상담 전문연수 사업 ·유코넷 사이버 상담 체계 구축	·부모교육 사업 ·청소년 품성개발 사업 ·또래상담 프로그램 사업	·인터넷과다 사용 예방 사업 ·다양한 위기청소년 시범상담 ·해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전문직자원봉사자 운영 사업
2003 - 2007	연구	·지역청소년상담실 활성화연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축 운영 연구 ·학교청소년상담사 활동 모형 연구 ·청소년정신건강요인 개발 연구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방안 ·증장기센터운영모형 개발 ·청소년상담지원기관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평가체제 개발 연구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와 연계한 학교상담 모형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연구 ·청소년상담사 인력수급 활성화 연구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청소년수월성촉진 프로그램 ·진로불안 감소 프로그램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또래상담 프로그램 지침서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운영지침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매뉴얼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통일대비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및 청소년상담기법 ·위기청소년 반사회적 행동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학교폭력가해자상담모형개발 ·비행청소년 부모상담 ·두드림존 매뉴얼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상담가이드북 ·청소년인터넷 중독해소 및 예방업무 지침서 ·일시보호사업 실무자 매뉴얼 ·위기개입 실무자를 위한 긴급구조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동반자 슈퍼바이저 매뉴얼 ·학교 밖 길 찾기(학교 중단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교육을 통한 전문상담자 양성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운영 사업 ·청소년상담 전문연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상담 프로그램 사업 ·부모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동반자 슈퍼바이저 매뉴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사업 ·Help Call 1388 지원사업 ·청소년 동반자 지원 사업 ·전문직 자원봉사 운영 지원사업 ·자활지원 사업: 연계망 구축 두드림존 사업

2. '1993-2007' 15년간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 방법에서의 변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다양한 사업 가운데 시범상담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시범상담을 통한 다양한 기법 개발과 연구, 이를 통한 교육과 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 방법에서의 변화를 1993년-1997년, 1998-2002년, 2003년-2007년, 2008년 이후의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1993년-1997년 주요 상담 목표는 청소년상담의 도입과 정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청소년 대화의 광장' 초기에는 총 이용건수가 12,149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37.6%가 개인 상담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그 이후에는 상담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화가 나타나 점차 개인상담의 비율보다는 집단상담, 전화상담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1997년의 경우 총 상담건수가 32,055건으로 3배에 이르는 성장을 하면서 청소년상담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98년-2002년의 기간은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상담의 선도적 위치를 나타내고 청소년상담의 확대와 이용률의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시기일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1998년 개소한 사이버상담소 '유코넷'으로 인해 1998년도부터는 사이버 상담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통신', '전자우편', '게시판'등을 이용한 상담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의 경우에는 메일, 채팅을 통한 상담건수가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 건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1999년에 구축된 유코넷의 상담자료 DB를 통한 상담자료 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1,390,250건수에 이르는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어,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지니는 위상의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3년-2007년의 변화는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사이버상담의 폭발적 증가가 안정화되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2007년 총 건수 16,942,382 중 개인 상담이 불과 6000여건인 것에 비해 전화상담은 10,449건, 자료조회 16,909,030, 메일 9733, 채팅 1,927건으로 매체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사이버상담에 대한 교육과 상담 시스템의 수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또한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CYS-net라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상담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상담경향과 문제에 대한 대처,

정보공유가 용이하게 되는 등 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 구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상담내용과 관련된 변화분석은 뒤의 시도 및 시군구 상담실의 변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경향의 변화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드러진 특징은 1993년 개원초기에 12,419건에 불과하던 상담원 이용건수가 2007년에는 16,942,382건으로 약 1200배의 증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불과 1.5배의 인력증가에 불구하고 나타난 이러한 이용건수의 폭발적인 증가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축적해온 상담노하우와 사이버공간의 활용에 기인한 것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off-line이라는 제한적인 고비용 개입과 더불어 일단 구축 하는 데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나 일단 구축되면 그 이용이 무제한적인 on-line체계인 유코넷의 효과를 발휘한 결과이다. 그 외에도 대면 상담에 비해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 채팅상담의 비율이 훨씬 높은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표 4.2> 1993년-1997년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 실적

해당연도 (총 건수)	개인 상담	집단	전화	서신 이메일 게시판	심리 검사	웹 심리검사	채팅	사이버 소화
1993년 (12,419)	4,669	1,894	4,749		1,071		-	-
1994년 (23,820)	7,187	3,022	12,521		544		-	-
1995년 (23,368)	6,503	6,533	9,891		441		-	-
1996년 (27,079)	7,396	6,356	12,833		493		-	-
1997년 (32,055)	6,017	9,183	16,136	-	719		-	-
1998년 (119,896)	5,583	10,045	18,348	32	448		375	85,065
1999년 (274,521)	5,003	6,800	14,666	1,624	299		804	245,325
2000년 (658,270)	4,884	7,716	11,814	3,181	459		2,503	627,713
2001년 (1,294,757)	4,495	5,408	9,207	8,181	633		1,218	1,265,615
2002년 (1,444,149)	4,353	3,642	9,596	12,522	718	20,954	2,114	1,390,250
2003년 (10,663,783)	3,510	2,642	6,341	13,994	632	21,816	2,850	10,611,998
2004년 (12,338,982)	4,781	885	6,586	10,978	750	13,006	1,680	12,300,313
2005년 (16,309,172)	5,737	1,441	8,400	9,683	1,131	14,207	2,697	16,263,876
2006년 (16,311,470)	5,290	667	13,688	8,085	1,520	16,299	2,045	16,263,876
2007년 (16,942,382)	6,008	2,065	10,449	9,733	1,927	12,908	1,362	16,898,930

※ 출처: 청소년백서 1994년~ 2007년.

3. '1993-2007' 15년간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의 상담경향 변화

1993년도에 전국에 불과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0개와 시·군·구 상담실 24개에 불과하던 청소년지원센터가 2008년 현재 144개로 확장되기 까지 전국의 청소년상담센터는 질적 및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도 또한 1993년-1997년, 1998년-2002년, 2003-2007년과 2008년 이후의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993년 이후 1997년까지 전국의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주요 목표 또한 청소년 상담의 도입과 안정화라고 볼 수 있겠다. 1993년도 전국에 10개에 불과하던 시·도 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 15개가 개소되고, 1993년에 불과 29,898건에 달하던 상담사례 수도 1997년에는 139,186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1993년에 24개이던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점차 팽창되어 1997년에 68개소가 설치되는 등 청소년 상담이 전국에 보급되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1998년 이후 2002년에 이르는 시기의 주요 변화는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의 확장을 통한 전국의 청소년상담실의 확장일 것이다. 시도상담센터는 1998년도에 16개소가 모두 개소하였으며, 시·군·구 상담실의 경우 1998년도 79개, 1999년도 108개, 2000년도 111개, 2001년도 125개, 2002년도 128개도 1997년에 비해 2002년에는 약 2배에 이르는 시·군·구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003년 이후 2007년의 시기의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수의 확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각의 지원센터의 안정화와 내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 결과 2007년 말 상담사례의 경우 총 1,560,607건으로 2002년과 유사한 수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2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상담 내용상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다. 1993년도에 이성 및 성문제 26%, 학업진로 15%, 정신건강 14%의 상담 내용의 비율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났으며, 상담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 한 1996년에는 성격 19%, 성·이성문제 15%, 정신건강 12%, 학업진로 11%의 비율을 나타내어 왔다. 청소년 문제유형을 더욱 세분화한 2000년의 경우에도 성격 17.5%, 정체성 16%, 진로 11.5%, 성 10.1%, 정서 10%, 친구관계 9.2%, 가정문제 7.9%, 비행 7.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03년-2007년 시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2006년의 경향을 살펴보면 대

인관계 16.5%, 진로문제 16.1%, 성격고민 11.5%, 비행 11.3%, 생활습관 8%, 학교학업 부적응 7.9%로 나타나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통합지원망의 운영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이 시범운영 되면서 비행과 학교학업부적응의 비율이 증가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모든 청소년의 고민과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은 대인관계, 진로, 성격인 것으로 시사되었다.

<표 4.3> 전국 상담실의 상담실적 및 상담내용의 변화

년도		전국 상담실 및 상담실적 / 상담내용					
1993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0개소 (시·군·구 24개소 실적 미포함)/ 총 29,898건					
	상담내용	성문제 26%		학업진로 15%		정신건강 14%	
1994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3개소 (시·군·구 43개소 실적 미포함) / 총 48,826건					
	상담내용	성·이성 19%		학업진로 15%		정신건강 16.4%	
1995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5개소 (시·군·구 43개소 실적 미포함)/ 총 76,702건					
	상담내용	학업진로 19%		성격상담 18%		정신건강 17%	
1996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5개소 (시·군·구 55개소 실적 미포함) / 총 113,015건					
	상담내용	성격 19%		성·이성 15%		정신건강 12%	
1997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5개소 (시·군·구 68개소 실적 미포함) / 총 139,186건					
	내용	성격 13.5%		성·이성 13%		정신건강 15.7%	
1998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5개소 (시·군·구 79개소 실적 미포함) / 총 183,175건					
	내용	성격 13.4%		성·이성 12.6%		정신건강 14.6%	
1999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6개소, 시·군·구 / 총 335,091건					
	내용	성격 19%		성·이성 15%		정신건강 12%	
2000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6개, 시·군·구 111개소 / 총 630,207건					
	내용	성격 17.5%		정체성 16%		진로 11.5%	
2001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6개, 시·도 125개 시·군·구/ 총 690,634건					
	내용	성격 22.41%		대인관계 21.52%		진로 14.45%	
2002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6개, 시·군·구 128개소/ 총 802,878건					
	내용	성 7.6%		학업 부적응 7.47%		가족 6.34%	

	상담내용	대인관계 20.46%	성격 18.95%	진로 17.61%	비행 10.32%	성 7.145	가족 7.13%
2003 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6개, 시·군·구 130개소 /총 805,468건					
	상담내용	대인관계 24.45%	성격 21.13%	진로 17.35%	가족 6.62%	성 7.59%	학업/학교 부적응 6.49%
2004 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6개, 시·군·구 130개소 /총 921,111건					
	상담내용	가정 22.2%	비행 9.2%	학교 부적응 12.3%	진로 4.0%	대인관계 12.6%	성격 5.1%
2005 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6개, 시·군·구 126개소 /총 1,061,263건					
	상담내용	대인관계 25%	성격 17%	진로 16.7%	학업/학교 부적응 6.7%	가족 6.5%	비행 6.4%
2006 년	상담기관수/ 총 상담 건수	시·도 16개, 시·군·구 126개소 / 총 1,560,607건					
	상담내용	대인관계 16.5%	진로문제 16.1%	성격고민 11.5%	비행 11.3%	생활습관 8%	학교/학업 부적응 7.95%

※ 본 자료의 출처는 청소년백서 1994년 - 2007년임.

4.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변화 동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그 동안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행해온 청소년상담업무와 관련된 통합·지원기능은 비교적 그 성과를 나타내어 온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러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러한 통합·지원 및 교육과 프로그램 기능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공적·사적 기관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각 지역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연구-연수-상담현장간 상호 관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뤄지는 시범상담은 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상담기법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지며,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상담기법 및 전략들은 직무연수, 전문연수, 자격연수라는 형태로서 현장전문가들에게 보급되어지며, 보급된 프로그램은 상담 현장에서 상담수혜자들에게 적용되어지면서 수정보완되고 있다. 그리하여 보다 실제적인,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과학적인 접근 방법(evidenced-based research)을 적용하여 현장 연구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공적서비스로서 청소년상담 영역에서 일반청소년 육성·문제예방과 위기청소년 개입은 모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일반청소년 육성 및 문제예방의 경우 직접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이 그 주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위기청소년 개입의 경우에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전문적 시범상담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교육 및 연구, 자문 등이 주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상담원 뿐 아니라 청소년동반자, 자원봉사자, 또래상담자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동원한 위기 청소년개입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영역으로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던 ‘또래상담’, ‘부모교육’, ‘품성교육’ 등의 청소년육성·문제예방 사업은 꾸준히 지속하고 성장 시키며, 위기청소년 개입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다소 소홀하였던 영역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취약 청소년(다문화, 이혼가정, 가출청소년, 학교중단청소년 등)에 대한 개입,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특히 진로 및 취업을 돕는 자활사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사업이다. 또한 IT의 발달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인터넷사용 역기능을 예방·개입하는 것에는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에 대한 개입 방식에 있어서는 컴퓨터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의 on-line을 활용한 상담 및 개입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하는데 주력하고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청소년 기관에서는 이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off-line 상담과 결합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V. 청소년의 욕구변화 양상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개원한 이래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활동이 이루어진지 15년이 되었다. 본 연구는 지난 15년간 청소년들의 삶과 고민의 영역들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문제의 주요 영역들에서 보이는 변화의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1993년과 2003년에 본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연구와 2008년에 실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서 실제 청소년들의 삶과 고민의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영역별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1.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뉘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들의 고민 유형 및 대처 방식
- 둘째, 청소년들의 학업 및 친구 관계
- 셋째,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유형, 용돈 실태, 인터넷/핸드폰/전화사용 실태
- 넷째, 청소년들의 외모, 다이어트, 성형 실태
- 다섯째,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 빈도 및 성경험 정도
- 여섯째, 청소년의 진로, 미래관, 행복도

<표 5.1> 설문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문항 수

항 목		내 용	문항수
인적사항		나이, 성별, 부모학력, 경제적 지위, 부모형태	6
고민	고민영역	가족, 문제 행동, 학업, 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태도	2
	고민의 대처방식	소극적- 적극적 해결방식	
학업	학업	평균 공부 시간, 학력에 대한 생각, 학교에 대한 생각	10

친구 관계	관계 중요성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 비중	
	친구	친구의 의미, 친구 사귀기의 필요한 가치, 이성 친구 관계	
	부모관계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의 대화태도	
여가 활동	놀이 활동의 유형	운동, TV시청, 종교 활동, 쇼핑 등 유무	7
	용돈	용돈액수, 충분 정도, 충당방법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종류	
	핸드폰, 전화	사용시간	
	수면시간	수면시간	
외모	외모, 다이어트, 성형	외모, 성형수술에 대한 인지, 다이어트 종류, 성형행동 유무	3
문제 행동	문제행동 빈도	음주, 흡연, 약물, 음란물, 가출충동, 학교폭력, 가정폭력, 행동유무, 빈도	5
	성 경험정도	성경험종류, 처음성관계, 혼전성관계 태도	
	가출	가출충동	
진로 · 미 래 · 관 · 행복	미래관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의 차이	11
	진로	직업선택 가치, 진로결정방법, 진로분야	
	국가의 미래	한국의 지위, 남북관계	
	행복	행복도, 행복한 시기, 불행한 시기	

2. 조사방법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연구방법은 2008년에 이루어진 실태조사에 관한 것이며, 1993년, 2003년도의 조사방법에 대한 내용은 지면상 생략하였다. 상세한 조사 방법 및

내용, 결과는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1993>, <청소년의 삶과 고민: 10년의 변화, 2003>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중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인구 비율을 감안하여 임의 추출로 총 33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한 후, 2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삶과 고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표집 방법과 절차

표집 방법은 성별, 지역별, 학령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이었다. 선정된 학교에 사전 조사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 설문지를 우편 발송 및 회수 하였다. 설문조사는 3월 26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총 220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88.3 %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 응답 청소년들의 삶과 고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학교별, 학업성적별, 지역별 청소년들의 삶과 고민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평균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48.6%, 남자가 51.4%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50.9%, 고등학교 49.1%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학생이 52.3%, 중소도시 학생이 26.0%, 읍면 지역 학생이 21.7%를 차지하였다. 학업 성적별로는 평균 60점 이하가 19.9%, 평균61-70점 20.4%, 평균71-80점 22.2%, 평균 81-90점 21.9%, 평균 91점 이상이 15.6%를 차지하였다.

<표 5.2> 조사대상

항 목	구 분	빈 도(%)
지 역	대도시	1156(52.3%)
	중소도시	575(26.0%)
	읍면지역	481(21.7%)
성 별	여자	1136(48.6%)
	남자	1076(51.4%)
학 교	중학교	1126(48.7%)
	인문계	778(35.2%)
	실업계	308(13.9%)
학업성적	평균 60점 이하	436(19.9%)
	평균 61-70점	447(20.4%)
	평균 71-80점	487(22.2%)
	평균 81-90점	479(21.9%)
	평균 91점 이상	341(15.6%)
가정 경제적 수준	150만원 미만	146(6.6%)
	150-300만원 미만	390(17.7%)
	300-450 만원 미만	323(14.7%)
	450만원 이상	219(10.0%)
	모르겠다	1123(51.0%)

3. 조사 결과

과거 15년간 청소년들의 삶과 고민의 영역에서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조사 연구의 결과와 1993년과 2003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수행되었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이러한 비교의 과정에서 과거의 청소년들과 현재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눈에 띄어 만큼 큰 상이점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몇 가지 영역에서 나타내는 변화들을 통해 대체적인 청소년의 변화양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과거 청소년들과 현재 청소년들 사이의 차이점을 몇 가지 특징별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진로와 학업고민, 여전히 청소년의 주요 고민으로 남아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영역은 1993년에는 학업에 관련된 고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진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진로란 학업성적에 기반을 둔 진학이 그 주된 의미였으며, 학업 성적과 진로는 잘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듯하다. 그러나 2003년의 조사에서는 진로, 갈등, 진로 결정의 어려움, 진로 정보 부족 등과 같은 진로에 대한 고민 (45.7%)이 학업과 관련한 고민(28.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연구결과에서도 진로고민은 여전히 모든 고민 영역에서 가장 높은 39.4%를 차지하였고, 학업문제도 23.0%로 그 다음으로 높은 고민 영역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태도와 습관의 문제는 28.8%에서 20.6%로 감소하여 학업문제가 보다 더 높은 고민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고민영역에는 성격(14.5%), 가족(10.2%), 정신건강(10.8%), 대인관계(6.6%), 문제행동(4.1%), 성(2.4%)문제의 순으로 2003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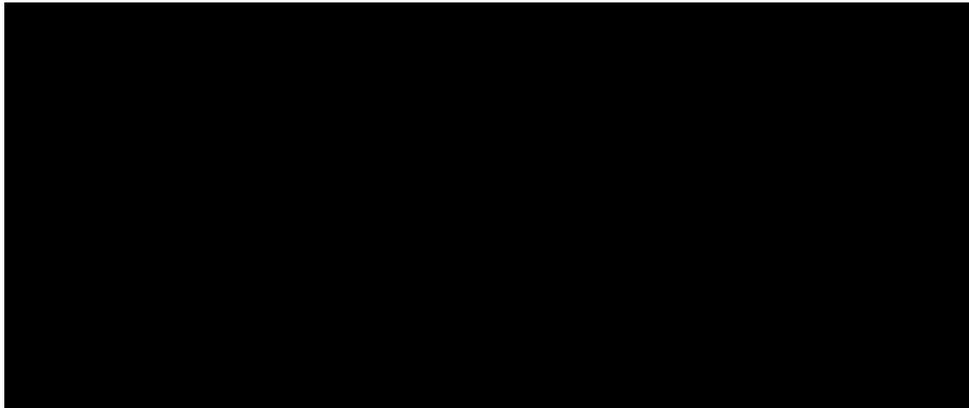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와 현재의 청소년들이 모두 학교 진학과 관련한 고민과 자신의 미래 직업과 관련한 진로, 학업의 문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시간, 학원 및 과외 시간 꾸준히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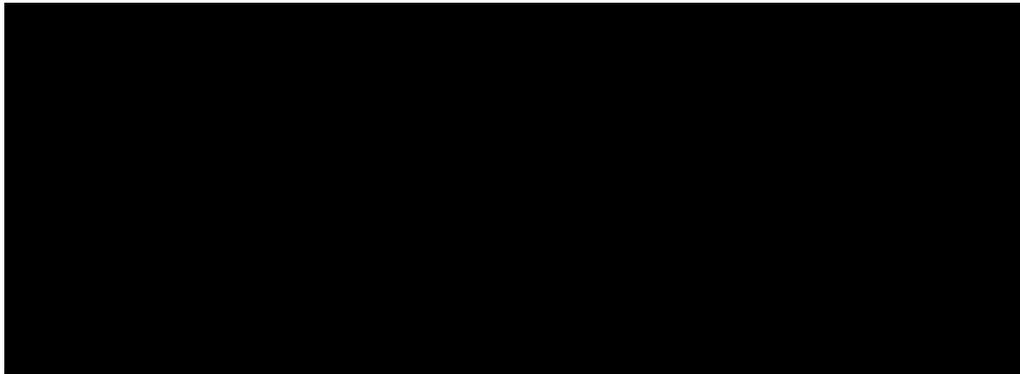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원 및 과외에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2003년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하지 않는다'는 2003년에 35%에서 2008년에 26.1%로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2시간 이상' 학원을 다닌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4.9%에서 2008년에는 45.4%로 증가하여,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은 상당히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37.2%에서 25.7%로 감소하였고, 2시간 이상인 경우는 10.3%에서 19.3%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학원 뿐만 아니라 혼자서의 공부시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한 생각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41.8%에서 54.1%로 증가하고 있어 높은 학업에 대한 신념이 청소년의 삶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의 증가, 이용 내역에서도 변화를 보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관한 변화를 1999년과 2003년, 2008년을 비교하여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에 있어 1999년의 경우 전체의 90.7%가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2시간 이상인 경우는 9.3%에 불과하였다. 반면, 2003년에 있어서는 2시간 미만이 58.2%, 그리고 2시간 이상인 경우는 41.8%로 나타나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사용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는 2시간 미만인 경우가 55.3%, 그리고 2시간 이상인 경우가 24.1%로 2시간 이상 사용자는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의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이용 내역에 있어서는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경우, 대화방 및 토론방, 게임, 대화방 및 게임, 정보검색, 동호회, 전자 메일 등의 순서로 이용도가 높았던 반면, 2003년에는 전자 메일, 게임, 대화방, 동호회, 정보검색, 전자상거래, 음란사이트 접속 등의 순서로 그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2003년에는 대화방 및 토론방의 이용률이 줄고 게임의 이용률이 늘어난 것은 주목해 볼만한 일이다. 그런데, 2008년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인터넷의 사용내역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2008년에는 ‘온라인 게임’(54.4%), ‘자료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실행’(50.8%), ‘채팅’(27.7%), ‘학습/정보 검색’(31.8%), ‘전자 상거래’(16.4%), ‘이메일’(15.1%)로 나타나, 2003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전자메일의 이용은 55.2%에서 14.4%로 확연히 줄어든 반면, 온라인 게임은 여전히 증가하여 48%에서 54%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9.8%에서 16.4%로 증가하였고,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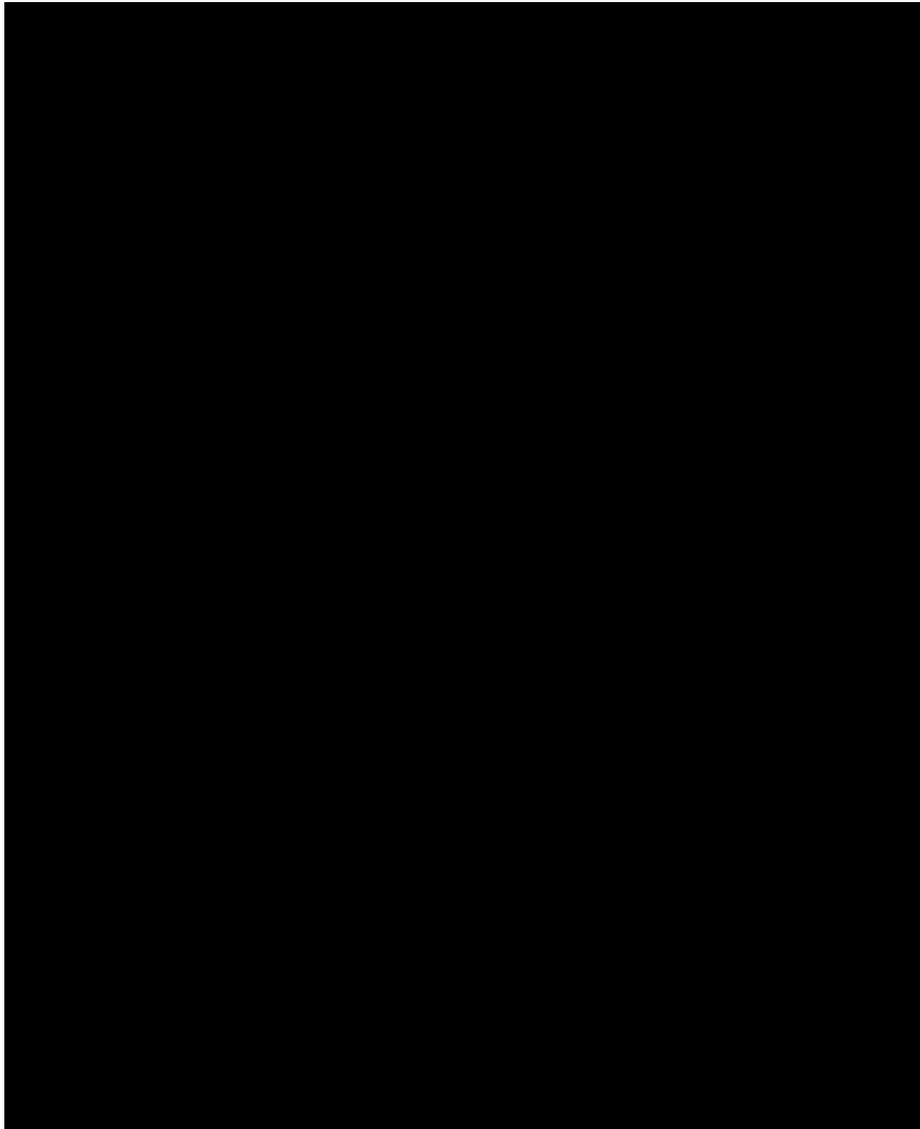
을 위한 정보검색도 24.5%에서 31.8%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1999년과 2003년 비교자료 출처 :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8」, 한국청소년상담원).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2003년 급격히 증가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터넷을 통한 소비문화의 증가 역시 주목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학습을 위한 정보검색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생활에서 역기능적인 측면과 순기능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인터넷보다도 친구들이나 교사로부터의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한 반면, 2008년에는 인터넷으로 부터의 정보 활용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높아 45%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정보원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터넷서비스의 종류에서는 특히 남학생에게서 온라인 게임(79.4%)과 음란 사이트 이용(6.4%)이라는 역기능적 측면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여가 활동, 짧고 빠르게 감각적 문화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에서 TV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08년 모두 각각 74.1%와 78.9%로 가장 높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2003년에는 음악 감상(62.9%), 만화(39.2%), 낮잠(37.7%), 영화(35.7%), 인터넷 서핑(35.2%), 친구와 수다(35.2%), 운동(33.8%), 거리구경(28.7%), 독서(25.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가 활동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친구와의 수다가 35.2%에서 57.1%로, 사진 찍기가 10.5%에서 19.4%로 증가하였다. 그 외 영화가 43%, 인터넷 서핑이 37.0%로 높은 증가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십자수나 퀵트와 같은 활동은 8.7%에서 2.5%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선호도가 인내나 끈기를 필요로 하는 활동보다는 즉각적인 영상이나 시각적인 요소로의 이동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사용의 시간이 증가하였고, 근래에 들어서는 핸드폰 사용 시간도 인터넷 못지않게 2003년과 2008년 5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하지 않는다는 48%에서 27.1%로 대폭 감소한 반면, 2시간 이상은 1.8%에 불과 하였으나, 20.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여가시간의 활용에 큰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핸드폰 사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4-5시간 사용하는 경우도 12.0%나 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문화가 학원이나 공부에의 할애 시간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은 줄어든 반면, 여가 시간의 활용도 영화나 사진, 인터넷 등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경제능력, 외모중시 경향 늘어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으로 경제적 능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9.1%에서 20.0%로 급증하였고, 전문적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 등은 변화추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의 한 달 평균 용돈의 변화추이는 2-4만원 사이가 5년 전에는 34.1%였는데, 2008년에는 28.8%로 감소하였고, 4만원이상은 27.6%에서 29.3%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용돈의 충당방법에서는 충분하다(32.6→38.3%)와 부모님께 그냥 받는다(15.1→27.4%)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용돈의 부모 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년간 전자상거래의 비율이 9.8%에서 15.6%로 증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소비문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학생의 전자상거래 비율은 18.6%로 높게 나타났고, 5년 전의 평균치 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은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17.2%에서 20.7%로 증가를 보였고, 불만이지만 성형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52.6%에서 41.2%로 감소하여 성형수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학생은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2%로 나타나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쌍꺼풀이나 치열교정 등의 성형수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키 늘리기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외모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특히 유머감각은 42.0%에서 69.3%로 대폭 증가하여 청소년들의 관계양식을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쇼핑도 14%에서 19.5%로 증가하고 있고, 음식점 가기도 1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청소년들의 문화에서 경제나 돈에 대한 욕구, 좀 더 나은 외모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 소비지향적인 문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가족 형태에 따라 청소년의 고민에서도 차이 보여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16.8%를 차지하였고, 이 중 이혼을 한 경우는 44.2%,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상, 학업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 26.1%나 한쪽 양쪽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인 19.3%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부부간의 갈등이 가족이 동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어지는 것은 청소년의 고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문제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동거하고 있는 가정과 별거나 이혼 가정의 자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이혼 가정의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교사, 친구관계의 중요도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약술하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집단(이하 '동거집단')과 부모가 별거나 이혼한 집단(이하 '이혼집단')에 대한 청소년의 가족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058)=8.27, p<.001$). 동거집단의 평균($M=4.66, SD=.63$)이 이혼집단의 평균($M=4.24, SD=1.0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친구관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t(2,055)=3.07, p<.01$), 동거집단의 평균($M=4.56, SD=.65$)이 이혼집단의 평균($M=4.40, SD=.78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교사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053)=3.59, p<.001$). 동거집단의 평균($M=3.90, SD=.95$)이 이혼집단의 평균($M=3.64, SD=.9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있어서도,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74.9%가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25.1%가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별거나 이혼한 경우는 80.2%가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19.8%가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동거집단과 부모이혼집단 청소년들이 차이를 보이는 고민영역은 가족고민과 문제행동,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이혼집단은 17.7%가 동거집단은 8.6%가 가족고민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제행동에 대해 고민한 경우는 이혼집단이 75.9%,

동거집단이 86.7%가 고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신건강 면에서는 이혼집단이 62.5%, 동거집단이 78.1%가 고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별거나 이혼가정 청소년들이 한 달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거나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혼 가정자녀들은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도 2-3시간에서 5시간 이상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현재의 행복도나 미래행복에 대한 예측에서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가 함께 동거하느냐 안하느냐가 가정의 분위기나 상태를 모두 대변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부모가 별거나 이혼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7)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져

2008년 조사를 바탕으로 거주지 별로 청소년들의 삶에서 보이는 양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부모의 44.0%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이는 반면, 읍면 도시의 청소년의 경우는 29.6%만이 대졸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형제 수에 있어서도 대도시의 경우는 80.6%가 2명 이하의 자녀인 반면, 읍·면도시의 경우는 66.1%정도가 2명 이하의 자녀이며, 3명이상도 33.8%로 대도시의 1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적은 대도시의 경우가 71점 이상이 62.5%를 차지하는 반면, 읍·면 도시의 경우 53%에 머물렀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읍·면 도시의 청소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49.6%가 고민을 하는 반면, 대도시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낮아 37.9%로 나타났다. 다른 고민의 영역인 대인관계, 성격문제, 생활태도의 문제 등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학업이나 진로 문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대도시의 청소년들은 학원에서 2시간 이상 보내는 경우가 51.2%인 반면, 읍·면 도시의 경우는 23.9%에 머물고 있고, 학력에 대한 생각도 대도시 청소년의 경우는 57.3%가 대학은 나와야 하고, 14.0%가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읍면 도시 청소년의 경우는 각각 46.4%와 20.4%로 대학보다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다니는 이유로, 대도시의 청소년들은 지식습득이 64.9%,

좋은 내신을 얻기 위함이 40.5%인 반면, 읍·면 도시 청소년들은 지식습득이 71.7%, 좋은 내신이 22.9%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업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읍·면 도시 청소년들은 지식습득을 학교교육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낮고, 형제 수도 더 많으며, 학원이나 사교육을 받을 기회도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학력에 대한 생각도 대도시의 청소년들은 대학을 꼭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도시 청소년들은 사교육에서의 소외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관료/법조, 교육계, 경영/사무 안정적 직업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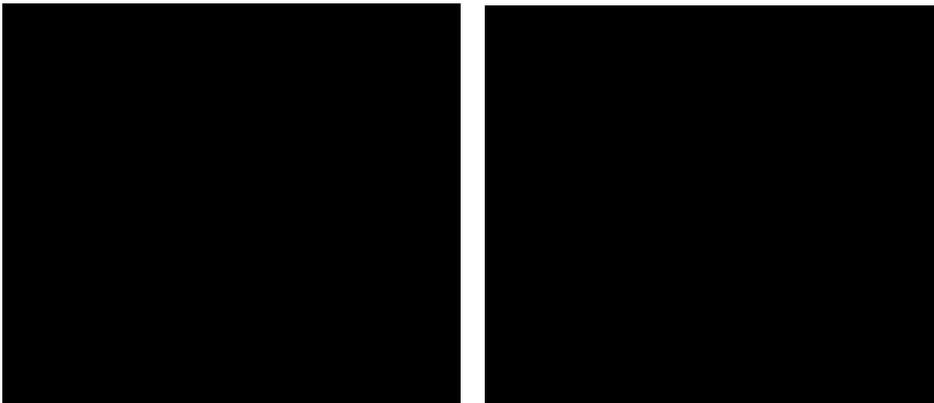
청소년들이 미래에 선택하고 싶은 직업군에 대한 변화를 비교하여 본 결과, 1997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교사나 대학교수 등의 직업이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었고, 그 다음으로 회사 임직원이나 전문 경영인 등이었다. 2003년에는 경영/사무계(13.8%), 미용/디자인/요리(12.7%), 교육계(11.5%), 언론/방송계(11.2%), 의료계(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1997년보다 여기서 서비스계와 언론/방송계의 선호도 증가와 더불어 과학/연구계(2.4%)의 낮은 선호도를 주목해 볼 만하였다. 2008년의 연구에서는 관료/법조계(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계(12.9%), 경영/사무(11.7%), 의

료계(11.2%)와 미용/디자인/요리(10.3%), 언론/방송계(9.3%), 기술계(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은 관료/법조계가 5.7%에서 13.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계, 경영/사무 등의 소위 ‘안정적인’ 직업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미용/디자인/요리 등의 서비스계는 선호도가 줄어들었고, 기술계도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다소 줄어들어

청소년들의 술, 담배, 약물의 사용, 성관련 실태에 관한 1995년의 결과와 2003년, 2008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드나 가스 등의 환각제 사용은 1995년 7%에서 2003년 0.6%로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0.8%로 나타났다. 담배는 1995년 남학생의 경우 39.6%가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003년에는 21.7%로 감소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1995년 5.9%에서 2003년 7.1%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남학생이 13.6%, 여학생이 5.4%로 나타나 흡연율은 2003년보다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술, 담배, 본드나 가스 등과 같은 약물사용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술은 1995년에 5.9%의 청소년들이 가끔이라도 음주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003년에는 34%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에는 20.1%의 청소년이 음주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과 2003년 비교자료 출처 : 「청소년상담문제연구 보고서 48」, 한국청소년상담원)



10) 청소년의 성(性)

청소년들에게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41.9%), '사랑하면 할 수 있다'(27.8%), '결혼할 사이라면 된다'(27.5%),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2.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를 비교해보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절대로 안 된다'(여 52.3%, 남 31.9%)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학생들은 '결혼할 사이라면 된다'(여 26.0%, 남 29.0%), '사랑하면 할 수 있다'(여 20.9%, 남 34.3%),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여 0.9%, 남 4.6%)에서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혼전 성관계에 대해 남학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2003년에 46.4%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2008년에는 47.8%가 결혼할 사이이거나 사랑하는 사이이면 무방하다는 입장이 다소 증가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결혼 전에 불가하다는 보수적인 입장이 24.1%에서 31.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남녀 간의 성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성관련 실태에 관해 1995년, 2003년, 2008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1995년 14.2%, 2003년에는 6%, 2008년에는 4.2%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1993년에는 4.4%, 2003년에는 2.1%, 2008년에는 1.2%만이 성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여 그 비율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부모와의 대화

부모님과 대화 양상은 5년 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부모의 대화의 참여도나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고 있는 시간을 살펴보면, 거의하지 않거나 1시간이내인 경우가 2003년에는 38.1%에서 2008년에는 27.8%로 감소하였고, 2시간 이상은 27.2%에서 2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와의 대화는 전반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화의 참여도나 질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은 내가 예전에 잘못된 것까지 다 얘기 하신다’(45.5→41.0),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부모님 생각만 말씀하신다(30.7→24.5)’, ‘부모님과 나는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다투게 된다(28.3→24.5%)’, ‘내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27.1→ 20.8)’, ‘부모님이 겉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속마음은 다르다 (26.1→20.4)’로 나타나 부정적인 대화의 형태들이 부모님과 청소년 사이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12) 우리의 청소년은 언제 행복하고 불행한가?

청소년이 행복감을 느끼는 때가 5년 전에는 가정이 화목하다고 느낄 때(19.2%)나 혼자 휴식을 취할 때(17.7%)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21.6%), 혼자 휴식을 취할 때(18.2%), 가정이 화목할 때(12.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정의 화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더 높은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관계에서의 만족 보다는 대체로 일에서의 성취감이나 혼자서의 휴식 등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불행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라는 물음에는 자신이 무능하거나 못났다고 느낄 때(17.6%),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17.6%), 외로울 때(10.9%), 부모님이 싸울 때(8.7%) 성적하락(7.5%), 성적으로 상급학교진학이 어려울 때(4.6%) 등으로 순위에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일에 대한 성취, 성과와 관련된 고민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 70%이상이 낙관적으로 ‘행복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남학생이 29.5%, 여학생이 21.3%로 차지하고 있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예견을 하고 있는 비율도 적지 않게 있으며,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미래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

지난 15년간 청소년의 삶과 고민의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적 서비스 영역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역할들을 도출해 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고민으로 여겨왔던 문제들은 주로 진로나 학업

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진로상담이 이루어져 오긴 했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거쳐 가야 하는 진로결정의 문제나 갈등, 정보 부족의 문제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루어 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다른 상담문제들에 비해 전문적 개입이 부족했던 면이 있으며, 청소년의 진로결정의 문제, 진로 갈등, 정보 부족 등의 문제들을 상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일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고, 학교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사교육의 혜택도 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진로에 대해서는 대도시 청소년보다 더 고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나 지침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교육적으로 기회도 균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적 영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상담자들은 청소년들의 시간이 어떠한 활동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그들이 지향하는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8년의 청소년들은 그 이전의 어느 때의 청소년들보다 학원과 과외,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공부와 성취는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이루지 못했을 때의 고충도 그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학업의 시간과 더불어 여가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여가의 시간들을 대체로 많은 매체들, 즉, TV,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소비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등 소비문화가 증가하고 있다.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도 외모와 유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이미지와 감각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감각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상담이라는 지지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상담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도 고려해볼 여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상담의 구축이나 웹상에서 제공되는 무료 심리검사, 상담적 개입이야말로 말로 빈곤 소외 계층이 자신의 삶을 관리해 나가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취약함을 극복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조력하는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이혼가정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에 노출되는 경향성과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나 신념은 좀 더 개방적으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정체감 및 성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가정적인 위기나 부모의 갈등,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할 때, 이들의 심리적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게 되면 청소년기의 특성상 비행과 탈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약물이나 자살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본다면, 특히 다문화, 조손가정, 탈북 청소년 등 소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이 언제 행복한가의 문제는 특히 상담 장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청소년들은 가정의 화목보다는 자신의 일을 성취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더 행복해 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들이 가족중심의 집단주의 문화보다는 개인의 성취와 자신의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고 혼자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증가되는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데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핵가족 내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또래나 대인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과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인 지적 교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재 학교교육 및 사교육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청소년에게 꼭 제공해야 할 중요한 공적서비스 영역의 역할이 될 것이다.

VI. 외국의 청소년 상담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¹⁰⁾

본 장에서는 외국의 청소년 상담관련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 상담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및 일본 등 4개 선진국의 상담관련 정책과 그 서비스 현황을 고찰하였다.

1. 미국

가. 중앙단위의 정부부처와 청소년 상담서비스 관련 업무

미국의 정부조직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와 매우 유사한 국가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등의 주요 부처에서 각자의 영역과 관련된 청소년 업무를 위한 기관을 두고, 관련 프로그램과 예산(Fund)을 운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 중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업무에 따라서는 상담서비스가 핵심적인 경우도 있으며 혹은 부가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들 업무에 상담서비스가 관련되는 경우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상담서비스의 전망과 방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업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청소년 보호영역,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영역,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 비행 청소년 관련 서비스,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영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 청소년 보호영역

(가) 아동 학대 및 방임

10) 부록 1: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청소년 정책 및 기관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아동 및 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은 청소년 학대와 방임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각 지역사회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Community-Based Grant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CBCAP)¹¹⁾과 기술적인 지원¹²⁾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공동체 내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FRIENDS"-국가적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 '가정교육 프로그램', '가족 자원 센터', '유예와 위기관리', '부모 상호간의 지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¹³⁾

(나) 가정폭력

보건복지부 아동 및 가족청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 가정폭력과(ACF/FYSB/Family Violence Division)는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Family Violence Programs)을 각 지역사회공동체 내 서비스 센터에(가정 폭력의 피해자 및 피보호자를 위한 쉼터, 긴급 후송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 등) 제공하여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돕는다.

(다) 학교폭력

교육부(U. S. Department of Education)와 법무성(U. S. Department of Justice)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우리의 아이 안전하게 지키기: 처치기준(Safe Guarding Our Children: An Action Guide)'을 제작하였다. 이 지침은 학교폭력을 야기하는 학교풍토를 구명하고, 문제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들을 수록하고 있다.

2)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11) Community-Based Grant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12) 참고: http://www.acf.hhs.gov/programs/cb/programs_fund/discretionary/community.htm

13) 참고:http://www.acf.hhs.gov/programs/cb/programs_fund/state_tribal/cbcap.htm

(가)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 및 가족청(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1) 헤드스타트청(the Office of Head Start)

헤드스타트청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회·인지적인 발달을 지원하려는 취지하에 취학 전 요구되는 독해 및 수학 능력에서의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지원과 더불어 건강, 영양, 사회적 필요 등 청소년의 발달에 요구되는 포괄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수급에 부모를 참여시킴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

헤드스타트청은 이처럼 저소득층 청소년이 현재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삶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자신감을 획득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신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족지원소(the Office of Family Assistance)

가족지원소는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단기지원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적절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나 보호자에게 현금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가 있는 가정을 권장하기 위해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 및 출산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⁴⁾

(나) 교육부

교육부(U. 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실시하는 'No Child Left Behind (NCLB)'은 가정환경에 따른 학업성취에서의 격차를 줄여 모든 아이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장점 발견

14) 해당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의무를 강화하고,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동기 강화한다. 또한 수급자는 지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 최소한 2년 내로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

및 기술 습득 기회의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과 개별학습, 잦은 전학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주 지역 내 공립학교 등록 허가, 학습 진도가 더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교육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21세기 지역 사회 학습센터(21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를 설립하여, 개별학습 등의 학업지원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¹⁵⁾

3)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

(가) 보건복지부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16),17)}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청) 이하 SAMHSA는 약물 남용이나 정신 질환과 같은 질병을 지닌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부처이다. SAMHSA는 약물남용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공동체를 기초단위로 한 체제를 구축하고, 약물중독자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을 지원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다루는 공적 정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¹⁸⁾ 이와 더불어 금지 약물 복용 및 약물 중독 등의 청소년 사법체제와 관련하여 3천 2백 5십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단순히 구류하기만 하는 패턴을 단절하고, 상습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주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치료 뿐 아니라 주거 및 고용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조한다.

SAMHSA의 부설기관인 국가 정신건강정보센터(National Mental Health Information Center)¹⁹⁾는 무료전화서비스(800-789-2647), 웹사이트, 600권 이상의 발간물을 통해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은 공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를 경청하고, 응답하는데 숙련된 전문가들로서 전화 상담을 신청한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정신 질환과

15) 기타: Gear Up(Mentornig)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지원한다.

1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 Substance Abuse &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17) 참고: <http://www.samhsa.gov>
관련프로그램 참고: http://www.samhsa.gov/About/ProgramsInBrief_508.pdf

18) 2004년을 기점으로 약 2억 7천 2백만 \$ 이상

19) 참고: <http://mentalhealth.samhsa.gov/>

관련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기관으로 신속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²⁰⁾

이 기관은 ‘모든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캠페인(Caring for Every Child's Mental Health)’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올바른 양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수많은 청소년들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실에 대한 공적 인식을 촉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보호자에게 정신질환임을 나타내는 초기 단서를 파악하여 적합하게 처치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찾아갈 것을 권장한다.

4) 비행 청소년 관련 서비스

(가) 비행 청소년의 처우와 관련된 법령: 청소년 정의 및 범죄 예방 칙령(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PL93-415, 1974)

이 법령은 청소년 권익 보장과 지역사회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 불필요한 청소년 구금 사례의 감소, 청소년 비행 예방, 청소년의 처우 개선 등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각종 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비행등급에 따라 청소년이 처우 받도록 독려하고,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여 청소년을 교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저지, 처벌, 징벌 등의 용어대신 탈범죄화, 사법제도 밖의 교정사업, 탈시설화, 사회내처우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청소년교정 프로그램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나) 비행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

(1) 법무성(U. S. Department of Justice)의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 관리소(Office of Justice Programs's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²¹⁾

20) 참고: <http://mentalhealth.samhsa.gov/child/childhealth.asp>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 관리소(OJJDP)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청소년 범죄에 관한 사법제도와 정책을 조정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OJJDP는 청소년과 해당 청소년이 속한 공동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강조하고, 비행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Juvenile Mentoring Program; JUMP)²²⁾과 모델 프로그램 안내(Model Programs Guide; MPG) 등이 있다.

JUMP는 학업실패 및 중퇴,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불법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비행행동에 연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인역할모델과의 만남을 통해 해당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PG는 약물남용,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에 관련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로서,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정, 사회로의 재진입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또한 청소년 사법 관련 전문가, 입안자, 연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상습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력하고 있다.

(2) 법무성(U. S. Department of Justice)의 사법지원부(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사법지원부는 폭력집단 반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The Gang Re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G.R.E.A.T.)을 실시하고 있다. G.R.E.A.T. Program은 학교 기반의 법률 강화 교육 수업 과정으로 비행과 청소년 폭력, 폭력 조직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G.R.E.A.T.의 수업은 청소년이 비행 행동과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²³⁾

5)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가)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 및 가족청 내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 국

21) 참고: <http://ojjdp.ncjrs.gov/>

22) 멘터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일대일로 적어도 한 주일에 1-2시간, 최소 일 년 동안 위기 청소년을 위해 봉사한다.

23) 참고: <http://www.ojp.usdoj.gov/BJA/grant/great.html>

청소년 서비스 국은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s; RHY)을 실시하고 있다. 하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위기/단기 개입 서비스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은 가출 및 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서비스로서, 가출이나 노숙 중인 청소년의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임시숙터, 음식, 옷, 상담, 추후보호 등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들을 지원하고, 위기개입에 초점을 둔 단기보호서비스를 실시한다.²⁴⁾ 또한 되도록이면 언제라도 원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적합한 대안 장소로의 이주를 추진한다.²⁵⁾

(2) 노숙청소년자립지원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은 노숙 청소년(16-21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8개월까지 안전 거주 생활공간을 제공한다.²⁶⁾ TLP는 해당 청소년이 안전 공간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이후의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기술을 습득케 하게 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지원금이나 사회서비스기관에 장기 의존하거나 또는 범죄로 사법체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임신, 출산노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Maternity Group Homes Program; MGH)의 대상은 임신 또는 미혼 출산 등을 이유로 가출, 노숙하는 청소년이다. 이 프로그램은 16세에서 21세 사이의 임신한 노숙 청소년과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최대 18개월까지 단·장기적 요구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하며, 이들 각자의 독립에 필요한 준비를 돕는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발달, 가정 예산수립, 건강 및 영양 등을 포괄하는 지식을 교육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독립 촉진과 자녀의 주관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습득을 조력한다.²⁷⁾

(4) 노숙 청소년을 찾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SOP)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비스기관을 찾지 않는다는 경향에 주목하여, 돌아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머무는 장소로 기

24)숙터에서의 거주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25)관련법령: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JDP) of 1974's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 / the Runaway, Homeless, and Missing Children Protection Act of 2003

26)단, 18세 미만의 경우, 추가적으로 180일을 제공한다.¹⁾

27)관련법령: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의 1988 개정안 /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PRWORA)

관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내 의료, 정신건강, 복지, 주거지 등의 서비스와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적학대나 착취 또는 착취당할 위기에 처한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치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필요시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에 의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한 쉼터와 위기개입, 의료보험, 의식의 해결과 같이 생활에 당장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류 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노숙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결핍과 같은 신체적인 건강문제, 에이즈를 유발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약물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등에 관한 치료 및 상담 실시한다.²⁸⁾

6)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

(가) 노동부 내 고용 및 훈련청 소속 청소년 서비스(U. 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Youth Services)

청소년 서비스국은 청소년의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포괄적인 전달 체계에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은 청소년이 정상적으로 성인기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학업적, 기술적, 직무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1) 유스 빌드 프로그램(Youth Build Program)²⁹⁾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가정 출신 학교 중퇴 청소년들(16-24세)을 지역사회로 통합시켜 사회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취업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작업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건축개축하는 작업을 통해 고교 졸업장을 취득하도록 교육하고, 청소년 욕구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충족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경험과 지식 제공한다.³⁰⁾

28) 관련법령: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29) 2006년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로부터 이전

30) 참가자에게 생활비 지급, 수련 후 일 년에 \$2500까지 주택비를 지원한다.¹⁾

나. 지방정부 차원: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를 중심으로

1) 청소년 보호영역: 아동 학대 및 방임 보호관련 서비스

Orangewood Children's Homes(OCH)는 학대, 방임, 폭력을 당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응급 보호 시설로서 Orange County 사회 복지 기관(social services agency)과 청소년법정당국(Juvenile Court authority)에 의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³¹⁾ Orange County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OCH는 수용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 상담자, 선생, 및 심리학자들을 통해 위기 개입, 진단 평가, 발달 사항, 및 교육 수준을 포함한 심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과 의사와 상주 간호사를 통해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한다. 청소년에게는 집단상담을 통해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동 학대 서비스 팀(Child Abuse Services Team)으로 의뢰한다.

2) 청소년 사법관련 영역

보호관찰부의 청소년지도센터(Probation Department's Youth Guidance Center;YGC)는 약물 및 알콜 남용 및 중독 청소년(11세-18세)에게 정서·행동·학업적 발달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³²⁾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제공되며, 25명의 수감생을 한 단위로 하여 심리학자, 약물중독전문 상담자 및 보호 관찰자로 이루어진 팀에 의해 관리 받는다. 또한 모든 수감자는 Rio Contiguo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 수준 또한 수감자의 나이, 학력, 기술 습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학업 성과에 따라 일부는 대학 수준의 수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코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GC의 주요일과 중 하나로서 직업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남녀학생 모두 요리수업 및 세탁을 비롯한 가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16세 이상의 수감자 중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전환을 돕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31) 한 해 평균 115명의 아동이 81일에서 157일 간 보호되어왔다.

32) 100명의 소년과 25명의 소녀 동시 수용 가능.

(가)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수감자들은 노숙자에게 식사를 배급하고, 지역사회 내 나무를 키우고, 해변을 청소하고, 5km 마라톤에 참가하고, 동물 보호소의 벽화를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센터를 돕는 등의 지역봉사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한다. 회복적 사법의 근거한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A.S.E.R.T 프로그램(an acronym for Addiction, Substance Abuse, Education and Recognition Treatment): 6개월에서 1년 간 수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별로 개별적 프로그램이 계획되며, 수감자는 청소년 교적 관리자, 임상 심리학자, 약물 중독 전문 상담자, 교육부 및 건강관리국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행동적, 교육적, 직업적 발달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2) S.T.E.T (an acronym for Sobriety Through Education and Prevention): 여자 수감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종합적인 처치 프로그램으로, 약물 교육과 분노 관리, 양육, 삶의 기술과 자기 개념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기초로 한다. 성적 학대 피해자 집단, 약물 재복용 집단, 마약 및 알콜 중독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족치료를 제공하는 심리학자, 약물 상담자의 케어가 제공된다. 그 밖에도 사회 저명인사의 강연과 멘토 서비스가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3)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영역

(가) Workforce Investment Boards(WIB)

연방 정부의 Workforce Investment Act(WIA)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 온 14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 중 기본적인 독해 능력의 결핍 학교 중퇴 노숙, 가출, 수양 임신, 부모일 경우 가해자 교육 이수 과정을 끝마칠 수 있는 또는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WIA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에 따라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지도, 학습 기법 훈련, 중등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훈육, 중죄 방지 전략, 대안적 중등 교육 서비스를 포함함.

여름 기간 동안 학업과 업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인턴쉽, 직업 교육 훈련을 포함하는 유·무급 직업 기회 제공함.

성인 멘토링, 추후 서비스, 종합적인 안내 및 상담을 포함하는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함. 수업 외 시간에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회 지도자로서의 청소년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더쉽 발달 기회를 제공함.

이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동료 중심의 활동을 포함하며 이들 활동은 책임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영 국

가. 중앙단위의 정부부처와 청소년 상담서비스 관련 업무

1) 담당 부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³³⁾

영국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아동과 가족국(Children and Families), 학교국(Schools), 청소년국(Young People), 커뮤니케이션국(Communications), 협동서비스국(Corporate Service), 전략국(Strategic Group) 등 6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있으며, 설립 이전 관련 기관이었던 교육기술부가 담당하던 영역 중 하나인 대학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의 기능을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 Skills)로 이양하여, 청소년 정책에만 집중하여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영국 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녹서(Every Child Matters)

영국 청소년 복지정책변화의 기본방향은 녹서(Every Child Matters)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안전의 유지/증진과 발전적인 삶/사회에의 기여/경제적인 안녕을 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 보육서비스, 정보와 조언 제공 등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장애 청소년과 같이 전문화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초기단계에서의 개입 및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 간에 청소년에 대한 관련 정보 공유를 개선하고, 공통 사정방식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자의 지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 운영을 통해 사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하였다.

33) 2007년 2월,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부터 이전

나. 관련 영역별 청소년 정책 현황

업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청소년 보호영역,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영역, 시설 청소년 지원, 비행 청소년 관련 서비스,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영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 청소년 보호영역

(가) The 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ISA)³⁴⁾

영국 정부는 청소년 관련 직종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이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SA를 설립하였다. ISA는 관련 업무에 종사 또는 자원봉사 중인 모든 개인을 사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SA는 사정 시 법무성(the Criminal Records Bureau; CRB)이 제공하는 범죄 기록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관련 업무에 종사 또는 자원 봉사 하고자 하는 개인은 ISA에 등록해야 한다.

(나) The Churches' Child Protection Advisory Services(CCPAS)²⁷⁾

독립적인 기독교 자선단체인 CCPAS는 아동 보호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 지지, 훈련,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회 및 개인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the Department of Health)와 교육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부터 다양한 수행과제에 대한 단기 자금을 지원받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영역

(가) Sure Start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Sure Start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Children's centre를 통해 실시되며, 모든 센터(centre)는 최소

34) 참고: <http://www.isa-gov.org.uk>

27) 참고:<http://www.ccpas.co.uk>

한 비전일 자격을 갖춘 선생을 제공하여 초기 교육과 육아를 통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방식, 지역 내 육아를 위한 대안, 가족을 위한 특수한 서비스 등에 대한 조언 등의 부모 지원을 실시하고, 무료 건강검진, 건강방문서비스부터 모유수유까지 지원한다. 또한 개별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 지역 내 직업소개소와 훈련소를 연결시켜 주어 부모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빈곤이 악순환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교가족부와 직업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를 주축으로 학교와 같은 주요 기관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나) ‘한부모가정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

한부모가정 부모의 70%가 직장을 갖거나 직장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³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교육지원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EMA)

16세-19세 청소년으로서 주당 1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개인통장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족이 받고 있는 다른 어떤 수당과 급여와도 무관하게 지급된다.

3) 비행 청소년 관련 서비스

(가) 관련 법령: Crime and Disorder Act(1998)

Crime and Disorder Act(1998)는 비행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으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첫째, 청소년의 범죄가담, 위협, 장기 무단결석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청소년의 부모는 청소년범죄팀(Youth Offending Team)

35) 취업중심의 인터뷰 및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이 주관하는 부모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기회카드를 배급한다. 기회카드는 청소년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돈 대신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의 경우 정부가 충전해주거나, 청소년이 자기개발활동이나 지역사회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과 교환하여 충전된다.

(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단계별 접근방식

영국 정부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단계별 접근을 취하고 있다.

- (1) 청소년 범죄의 예방: 청소년이 바람직한 여가생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매달 12 파운드). 바람직하게 활동할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한다.
- (2) 약물오남용의 방지
- (3) 수감 대체적 조치의 개발.
- (4) 조사 및 관리과정 상의 청소년 보호
- (5) 학교 내 폭력과 범죄의 감소: 안전한 학교를 위한 협력 활동

(다) 비행청소년 대응 관련 조직 및 기구

(1) YOTs(Youth Offending teams)

청소년범법행위전담팀으로 Section 37 of the Crime and Disorder Act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YOTs는 각 지역사회를 기본단위로 한 청소년(10-17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실행 팀으로서 지역 당국의 사회보장 서비스, 교육부, 경찰, 보호감찰, 복지 당국의 실무자들로 구성된다. 이 팀은 청소년의 범법 초기행위부터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준화된 사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활동하며, 경찰의 최후 경고를 받은 청소년에게 개입 프로그램 실시한다. 또한 법원이 명한 처분과 지역사회의 경고를 받은 청소년, 구류판결을 받은 청소년에게 지도감독관을 제공한다.

(2) Young offender institutions(YOIs)

청소년 대상의 구치소로 법정에 의해 구금판결을 받은 청소년을 안전하게 구금한다.

또한 범법 청소년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지원하며, 해당 청소년이 개인적 책임감, 자기규율, 육체적 건강, 흥미와 기술을 획득하고, 출옥 후 적합한 취업 기회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National Probation Service for England and Wales(NPS)

유예·보호관찰 기관으로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s Act 2000에 의거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하며, 최근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NOMS) 일환으로 전환되었다. 구치소와 유예기관의 역할을 융합한 서비스이다.

5)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지원 서비스³⁶⁾

(가) 가출 청소년 행동 계획(Young Runaways Action Plan)

지역 내 관련 기관이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의 요구사항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한 처치 계획으로, 가출의 원인은 가정 내 위험 요인 또는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임을 인식하고, 이에 즉각적이며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지역 기관(Local authority)은 가출 청소년의 요구에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LSCBs)는 관련 기관의 연합을 통해 아동 보지를 보장하고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관련기관들이 개별적 또는 연합적으로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지를 조정, 보장하는 책임을 이행한다.

6)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영역

(가) 청소년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개인 상담자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 등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취업되지 못할 경우 선택과정에 들어가는데 고용주에게 6개월 동안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는 직장, 실업급여와 함께 부분적인 부가급여가 주어지면서 6개월 동안 고용이 보장되는 환경 등 공익분야가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한 개인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전일제 교육 및 직업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36) 참고: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socialcare/safeguarding/youngrunaways>

(나) 커넥션스(Connexions)

청소년(13세-19세)에게 다양한 조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역의 47개 커넥션스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 각 지역 파트너십 기관에는 개인 상담가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일과 직장, 가족문제에 대해서 1대 1 직접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3. 독일

가. 중앙단위의 정부부처와 청소년 상담서비스 관련 업무

1)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독일 중앙 연방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른 연방 관계부처와 주, 그리고 지역사회 및 공적지원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다. 특히 교육, 건강, 근로영역에서의 청소년들의 이익 함양을 주요과제로 지니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치지향과 내용과 방법, 근로형태를 지원하는 전국지역과 중앙의 자발적인 민간들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

(가) 주요업무

청소년 관련 주요법인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등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시행 하는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실은 모두 3개의 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국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 1국은 총괄업무 및 극우주의 방지업무, 청소년복지사업 지원업무, 불우청소년 지원업무, 청소년 보호법 관련 업무,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 2국은 청소년지원 관련업무, 육아시설관련 업무,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제간 협조업무, 유럽의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 3국은 학교 외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심리·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연방아동·청소년계획’ (KJP)

연방정부차원의 민간 청소년지원 수행능력의 기간구조를 위한 제반 여건들을 마련하고 보장하며, 청소년지도자의 평생교육 행사들과 청소년지원 아이디어들의 개발, 모델 사업들의 시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작용한다.

나. 지방 주(州) 정부의 청소년정책 행정체계

독일의 청소년담당 지방 업무는 각 자치단체의 ‘주 청소년청’ (Landesjugendamt)이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청’에는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치단체 대표자들과 청소년단체 및 복지단체들에서 추천된 민간지원자들이 청소년을 위한 여러 지원들과 제안들을 하고 청소년지원계획과 민간의 청소년지원을 상담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과 그들 가정의 현실 문제들을 논의하고, 청소년지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격려들과 제안들을 하고 청소년지원계획과 민간의 청소년지원을 상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정부청소년청의 관계자(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주 청소년기관 최고회의’ (die oberste Landesjugendbehörde)가 각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의회의 예산편성 등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청소년청장관회의’ (Jugendministerkonferenz)는 각 주정부의 청소년 관련 부처의 해당 장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협의회는 주로 청소년지원과 복지, 청소년 참여 등에 관련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계획하며 또한 각 청소년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주요 업무

각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청소년정책 업무의 기획, 시행, 예산 등을 총괄 수행하는 ‘청소년청’의 설치는 ‘사회법’에 의해 보장되며, 각 지역단체의 ‘청소년청’은 독일 내 모든 청소년정책의 실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수행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청’의 청소년업무는 독일의 ‘사회법’ VIII권에 명시된 아동 청소년지원 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각 주의 청소년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의 결정과 자문을 받아 계획되며, 시행되고 있다.

2) 독일의 ‘사회법(SGB)’ VIII권에 따른 청소년지원업무(제2장) 및 그 밖의 청소년 지원의 과제(제 3장)

- 청소년사업(Jugendarbeit)³⁷⁾의 청구권
- 가정에서의 교육 청구권
- 아동탁아소와 보호소의 청구권
- 교육대상자의 지원
- 아동교육 및 입양의 상담과 보호권리 및 사교권리의 상담
-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권과 사교권에 관한 후견소송 및 가정재판 지원
- 청소년의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자문 참여
- 아동과 청소년의 친자확인과 생계책임 지원
- 당사자의 요청 시나 위급상황 시 보호권을 위한 일시보호의 수행

3) ‘청소년청’과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연계사업

각 지역의 청소년청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다음과 같은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정치적 능력 함양 ■ 문화적 능력 함양 ■ 사회적 능력 함양 ■ 스포츠 능력 함양
- 청소년복지사업 ■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동등권 보장을 위한 정책 ■ 장애청소년 지원정책 ■ 불우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 미디어교육 강화정책 ■ 청소년단체 지원 ■ 청소년의 국제교류 지원 ■ 청소년 지원 및 복지에 대한 국제간 연구프로그램 지원 ■ 이민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 ■ 청소년지원 관련단체 사무실 지원 등이 있다.

다. 관련 영역별 청소년 정책 현황

업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청소년 보호영역,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영역,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 비행 청소년 관련 서비스,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영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 청소년 보호 영역

(가)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적 규정

독일 정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 및 교육, 상담과 구조적 지원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로의 통합을 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는 크게 법적 청소년보호(Gesetzlicher Jugendschutz), 교육적 청소년보호(Erzieherischer Jugendschutz), 구조적 청소년보호(Struktureller Jugendschutz)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법적 청소년보호는 청소년보호법 및 보호규정에 기반을 두며, 교육적·구조적 청소년 보호는 아동 청소년 지원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매우 방대하나 본 글에서는 상담정책과 관련된 영역인 아동학대·방임 및 위탁, 가정폭력 및 폭력 등의 영역에 대해 주로 중요한 청소년보호의 구체적 실행 영역과 프로그램만을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할 것이다.

(나) 청소년 보호 관련 서비스

가정위탁 서비스: 바이어른 주(Bayern)의 뉘른베르크 시(Nürnberg)의 청소년청

뉘른베르크 시의 청소년청은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pflegekind)을 가정위탁 부모(pflegeeltern)에게 위탁 양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위탁 아동(pflegekind)의 대상에는 가정불화나 재정적 문제로 인해 장·단기적으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거나, 특이한 행동으로 인해 타 기관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어려운 청소년이 속한다.

지원방식은 단기위탁과 장기위탁으로 구분된다. 단기위탁은 부모가 질병이나 구금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복지기관이나 보험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실행된다. 장기위탁은 장기적·지속적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 양부모, 부모, 청소년청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보조금과 연금혜택이 주어진다.

② 가정폭력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가정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경우 교사 등의 주변인은 이를 청소년청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신고가 접수되면 청소년청은 해당 청소년의 주변 환경을 토대로 한 위험성 평가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향후 가해질 위협이

나 위험을 방지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청은 교육과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자의적 요청이나 응급상황 시 적절한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바이어른주 청소년청의 가정폭력 관련 조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의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이 금지 뿐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거주지의 소유권과 무관하게 집으로의 접근이 불가능도록 조치하며, 이와 같은 법적 접근금지조치와 더불어 개별, 단체 상담 및 개인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책임감 및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입한다.³⁸⁾

2)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영역

(가)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영역의 성격

독일 정부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따로 구분되어 실시되지 않고, 가족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1960년 대 후를 기점으로 출생률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독일의 연방정부는 ‘육아에 대한 지원’ 및 ‘여성의 일과 육아의 양립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족정책 (Familienpolitik)을 실시하였다. 가족정책 하의 자녀 양육지원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시되어 왔다.

(1)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가족지원정책.³⁹⁾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자녀교육비(Erziehungsgeld), 유치원교육비(Kindergartenbeitrag), 대리양육지원비(Kinderbetreuungsgeld), 자녀양육추가비(Kinderzuschlag), 생계지원비(Unterhaltsvorschuss) 등과 같이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자녀보호를 위한 휴가(Kinderbetreuung)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8) 참고:<http://www.stmas.bayern.de/gewaltschutz/beratung/taeter.htm>

39) 참고:<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http://www.bmfsfj.de/>)(<http://www.bmvbs.de/>)

3)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

독일의 청소년을 위한 위기상담 및 정신건강 영역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라이프찌히(Leipzig)와 뮌헨(Munich)의 청소년청의 활동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라이프찌히(Leipzig) 청소년청⁴⁰⁾

(1) 지원 대상

행동 특이성을 가진 청소년, 개인적, 가정적 교육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학습장애 아동, 학교와 가정의 대립문제, 이혼문제, 입양과 보육, 아동 재능 발전 단체생활 부적응 아동` 청소년

(2) 상담 지원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상담
정신적 진단과 평가
심리 치료 요법
학습장애

(3) 학업지원 서비스(교실 제공)

교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 상담
청소년들의 사회적 행동 교육
부모가 이혼한 청소년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학교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동

40)참고:www.leipzig.de/jugendamt

(나) 뮌헨(Munich) 청소년청⁴¹⁾

뮌헨 청소년청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항상 위협에 방치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청소년, 부모, 복지기관 담당자, 교육자들에게 이런 위협에 대한 각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 및 위기개입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선정 위험요인으로는 니코틴·알코올·마약 중독, 지나친 방송매체의 집착, 유희에 집착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은 대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성별, 지역별, 가정형편에 따라 위험요인의 원인 분석과 그 대한 예방책 마련으로 이루어진다.

(1) 지원대상

정신적 장애 청소년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청소년 복지와 건강관련 업무부의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행, 학대 피해 청소년

청소년 복지기관, 보육시설, 학교, 건강관련 업무부, 경찰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성폭행, 학대 관련 상담 및 정확한 개념에 대한 교육, 적절한 대처를 위한 관계자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최근 독일 연방정부는 각 지역 청소년청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모임의 통합을 유도하고, 독일 청소년과의 문화적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41)참고: www.diemuenchner.de/Jugendamt_Muenchen.html
/ <http://www.stmas.bayern.de/familie/programm/kjp980.html>

뮌헨 청소년청은 특정 주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집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와 청소년은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의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위해 학교, 보육기관, 여가시설, 및 상담치료자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원은 주제와 상황에 따라 6명에서 10명으로 제한되나, 필요할 경우 늘릴 수 있다.

4) 비행 청소년 관련 서비스

(가) 관련 법령

독일의 ‘청소년사법(司法)’은 형벌행위의 결과에 대한 대처 및 심판의 기준을 교육적 사고에 두고 있다. 이는 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현실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한다. 이는 일률적이고 강압적인 억압 조치보다는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법정 대응 예방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행 청소년 예방, 처벌에 관한 상담은 각 지역, 시 별 청소년청에 해당한다.

(1) 법령의 주요 내용

청소년 형벌은 행위의 과중 및 발달 정도에 따라 선도 교육이나 보호처분 조치를 취한다.

선도 보호처분은 심리치료나 중독치료기관, 보호관찰소, 운전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의미한다.

청소년 구금은 집행유예 1~4주나, 6일까지의 구금, 1~4주 구금이 내려질 수 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 심판은 누적적용이나 추가적용을 하지 않는다.⁴²⁾

(나) 대처 방안

청소년 범죄에 대한 독일정부의 위와 같은 인식에 근거한 대처방안은 경찰의 훈계,

42)참고 :http://www.bundesregierung.de/nn_774/Content/DE/Artikel/2007/05/2007-05-08-pks-kriminalstatistik2006.html

가정, 학교, 청소년 복지기관에서의 상담, '가해자-피해자-화해 프로그램(TOA)', 사회재적응학습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중 '가해자-피해자-화해 프로그램(TOA)'를 구체적인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해자-피해자 화해 프로그램(Täter-Opfer-Ausgleich; TOA) 프로그램⁴³⁾

이 프로그램은 절도, 기물 파손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법적 처벌의 외적인 부분에서의 대립 조정이나 법적 처벌의 중재에 쓰는 대처방법이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 3자와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유무형의 재산 보상 범위에 대해 상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지닌다.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가해자는 조정자에 의해 TOA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예비 협상에 출석 요청이 담긴 서류를 받는다.

개별 예비 협상 : TOA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과정이나 목표 설명, 사건의 과정, 동기 와 이에 따른 가능한 처벌에 대해 설명한다.

대화 : 서로의 입장 표명, 사건의 과정, 동기, 처벌에 대해 논의, 해결방법 및 합의점 모색과 결정 등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합의점을 법적 서류화한다.

법원에 통보한다.

(다) 각 지역단체 청소년청별 예시

(1) 쾰른(Köln) 청소년청

쾰른시 청소년청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해당 부모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하에 해당 청소년들의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실시한다. 단,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다른 보호시설이나 가정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양육권/후견권 담당 법정) 절차를 밟는다. 최근, 위탁양육의 경우 경제적·교육적인 이유에서 보호시설

43) 참고: <http://de.wikipedia.org/wiki/T%C3%A4ter-Opfer-Ausgleich>

보다는 타 가정으로의 위탁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문제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보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제청소년의 발견(전화, 면담을 통한 자발적 신고, 경찰, 유치원, 병원, 학교, 유스센터, 이웃 등의 신고)

청소년관청에서의 보호지원 결정 (결정을 위한 지침, 담당 직원 간 협의, 각 지역 청소년관청 지도부와의 협의, 전문가의 평가 등 참조)

조지알 아르바이터를 통한 가정상담, 보호시설 이관, 위탁양육 등을 결정하고 지원

(2) 브뤼케 쾰른(Bruecke-Köln) 청소년청

청소년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형법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에게 공익근무, 보호관찰 및 공격성 완화훈련프로그램 참여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와 관련하여 브뤼케 쾰른(Bruecke-Köln)의 청소년청은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익근무(사회봉사)기관을 중개해 주거나 훈련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3) 라이프찌히(Leipzig) 청소년청⁴⁴⁾

법적 문제행동을 일으킨 청소년(14세에서 21세)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에 따른 구분 없이 형벌 감량을 위한 방법, 법적 소송 과정 및 비용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항시 제공한다. 이러한 상담의 목적은 직접적인 법적 관련자들이 아니라 법적문제를 당사자를 이해시키는데 있다.

5)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가) 관련 법령

44) 참고: <http://www.leipzig.de/jugendamt/>

(1) 아동·청소년 복지법 제1조, 제2조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명시한다.

(2) 아동·청소년 복지법 제11조-제15조, 제16조-제21조

제1조~제15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사업, 교육적인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에 의하여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의 한 종류인 거리사회사업의 법적 근거.

제16조~제21조: 가출에 대한 예방적 대책의 한 형태인 가정후원적인 조치에 대해 규정.

(3) 아동·청소년 복지법 제34조, 제35조, 제 36조, 제 27조

제34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주시설의 형태로 “사회 교육적 보호공동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공동체는 개별적 교육활동,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문제관련자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가출, 매춘, 마약 등으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35조에 의한 집약적·사회 교육적 개별보호방식을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작용한다. 아동·청소년 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 즉 가출, 매춘, 마약 등으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여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약적·사회 교육적 개별보호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계획은 동 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이외에도 청소년의 개별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 복지법은 많은 규정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보호와 관련하여 제27조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 복지법 제42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에 적합한 개인, 기관 혹은 그 밖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형태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부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보호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발견한 즉시 보호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5) 아동·청소년 복지법 제78조

각 민간기관의 협동에 의한 청소년지원활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상담기관과 관련기관과의 중개 등을 통해 가출 이후 마약을 복용한 청소년에게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지원을 위한 강력한 연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나) 가출 청소년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처 방안

(1)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조건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허가
소년부의 조직 및 다른 기관과의 연계체계
전문가의 활동방법 및 활동목적, 가출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대책방안
직업알선 등과 같은 가출청소년들을 사회에 재수용하기 위한 대책방안

(2)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사항

가출동기와 거리생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가출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가출의 동기와 거리생활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호가 선행되는 지원: 가출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대처방안은 법적 적용 및 처벌이 아닌 가출청소년을 위한 선도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선도는 가출청소년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회교육자 또는 사회복지가의 은밀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최대한의 배려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출 이후 마약이나 매춘 등의 더 심각한 다음 단계로 들어서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강압적 수단과 사회사업의 병행: 강압적인 수단과 사회사업을 병렬적으로 적용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가출기관과 가출습성의 구별에 따른 대책: 가출기간과 가출습성, 가출동기,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주변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구별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청소년관련기관의 연계체계구축: 가출청소년을 위한 기관, 가정, 시설 및 공공청소년보

호기관⁴⁵⁾이 서로 연계하여 대책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종교단체에 의한 거리선교 역시 청소년들에 대한 공공지원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3) 가출청소년에 대한 단계별 대책

■귀가조치

초기 가출의 경우 적발 시 대부분 귀가조치를 취한다. 가출 이후 거리생활을 시작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긴급 서비스의 지원을 받게 하고, 가출청소년이 거리생활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주거공동체에 인도한다.

단, 귀가조치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가출의 동기가 가정 등의 환경에 있을 경우, 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귀가조치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다. 둘째, 가출초기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가출성향을 제거할 수 있는 신속하고 충분한 전문적인 지원계획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가조치로 인하여 이러한 지원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에 의한 지원조치

현재 독일에서는 청소년사회사업, 긴급전화와 상담시설에서부터 긴급숙박시설에 이르기 까지 가출청소년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및 직업교육이 수반되는 일시적인 전문보호시설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확충이 제시되고 있다.

(4)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기관

위기시설과 청소년 긴급 구조 서비스기관(긴급구조소, 긴급보호소, 긴급수용소) 위기시설에 보내지게 되는 청소년은 시설의 보호(복지, 상담 및 지원)를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인 도움 요청 또는 경찰에 의해 시설로 보내진다.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시설 내 보호를 목적으로 이러한 시설에 보내지는 청소년은 사법적인 결정에 따라 그의 의사에 반해서 1일 이상 위기시설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45)거리사업프로젝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시설 (Kriseneinrichtung: 위기 혹은 갈등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위기시설)”, 비행·위험청소년을 특정한 주거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주거공동체사업

이 기관들은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단기간의 보호와 숙박을 제공하고, 수용된 청소년들과 공동으로 교육학적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가정 혹은 특정한 청소년보호시설로 인도한다.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시설에 자의로 머물면서 기관이 시행하는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행동원칙으로 한다.

■거리사회사업기관

거리사회사업의 특징은 사회복지가가 거리아이들의 생활영역에 직접 들어가기 위해 거리의 모퉁이나 거리아이들의 주요 활동장소, 공원, 만남의 장소 등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는 거리사회사업의 목표가 거리아이들의 집단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호기관

가출 이후 주로 활동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누구든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근접한 시설의 형태로 운영되며, 유동적인 상담을 위해 소위 “거리카페”, “만남의 방”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이 기관은 아동과 청소년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리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의 형식 또한 자유로운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밖에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 의료적 치료와 간호, 주사와 콘돔의 지급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휴식을 취하고 거리의 삶으로부터 원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한 조언, 위기상황에 개입, 다른 사회시설에 대한 소개 및 그 시설로의 동행, 관청 관련 사무에 대한 도움, 거리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 일자리 혹은 집을 찾기 위한 도움

(5) 지역 청소년청의 활동 사례: 독일 라이프찌히(Leipzig) 청소년청 내 거리복지단체 (Strassensozialarbeit)의 Streetwork

가출 청소년, 비행청소년들의 주요장소를 찾아가 접촉을 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도움, 정보, 상담을 통한 지원을 제공한다. 라이프찌히(Leipzig)에는 현재 네 개의 거리 복지 단체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라이프찌히(Leipzig)를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거리의 청소년들과의 접촉 장소를 가지고 있다.⁴⁶⁾

- ① Team FANAL : 가출 청소년이 대상
- ② Team Step XS : 마약 중독 청소년이 대상
- ③ Team Anna O. : 폭력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
- ④ Team O.S.T : 가난하거나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다) 장기적인 청소년복지 대책

■ 청소년복지기관에 의한 프로젝트

청소년복지기관에 의한 프로젝트는 자유로운 규율 하에 시행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효율성 여부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좌우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그 동안의 사회적 관계 및 마약복용과 같은 생활방식이 이러한 시설에서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함. 자립성 및 자아에 대한 가치성을 포기해야 하며 귀가시간의 엄수, 엄격한 규율에 의한 생활 등과 같이 그들이 거리에서는 실행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에 대한 실행을 요구받을 것임을 감지함.

복지시설의 내부규율에 의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커플 청소년의 경우 입소를 거부함.

특히 마약 및 약물남용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약물 및 마약복용 사실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수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마약복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지원도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음. 따라서 청소년들은 다시 거리로 나가고 더 심각한 마약중독에 빠지기도 함.

■ 보호주거형태

청소년들의 과도기적 상황을 “정상적”인 생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46) 참고: <http://leipzig.de/de/buerger/service/dienste/soziale/street/>

이러한 주거형태 역시 많은 “불량친구”들이 자주 방문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웃과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 장기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

아동·청소년 복지법 제35조에 의한 집약적·사회교육적 개별보호프로젝트 (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Projekt: ISE-Projekt)이다.

6)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영역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청소년과 기회 연결"이라는 구호 아래 퇴학생-2번째 기회(School refusal-2. chance)와 자격기관(Competence Agent)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 '퇴학생 - 2번째 기회'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 장기간의 무단출석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퇴학 위험에 처해져 있거나 퇴학을 당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각기 적성에 맞는 상담 후 학교에 재편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들의 직업에 대한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나) Competence agent

Competence agent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 미숙하여 복지적 도움이 요청되며 학교 졸업 전·후 취직이 불확실한 청소년, 가난·가출로 복지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청소년이 가족, 직업교육 시스템, 청소년 복지 기관 및 스포츠나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의 사례 관리(Case Management)는 대상 청소년 각각의 생활환경, 잠재력에 맞추어 장기적 교육 상담과 교육의 계획 및 실행으로 이루어진다.

(다) 사회적 목적을 위한 지역 자본(Local capital for social purpose)

독일 정부는 또한 사회적 목적을 위한 지역 자본(Local capital for social purpose)을 설

립하여 지방으로 세분화된 정책 실시를 기반으로 하여 구직시장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청년층, 특히 외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적 능력 개선을 목표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4. 일 본

가. 중앙단위의 정부부처와 청소년 상담서비스 관련 업무

1) 담당 부처: ‘청소년육성추진본부(青少年育成本部)’

일본 정부는 내각부(內閣府)를 주축으로 관계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청소년정책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며, 모든 대신(장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가 설치하였다.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각 관계부처의 업무 내용은 아래 <표 6.1>과 같다.

<표 6.1> 일본의 관계부서별 청소년 업무 담당 현황

부서명	업무내용	비고
내각부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기획 및 입안 그리고 정책의 종합적인 조정에 관한 사무,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연락 및 업무 조정	(정 책 통 괄관, 공 생사회정 책담당)
	남녀공동참획(參劃)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기획 및 입안, 종합적인 업무의 조정,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무 국민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 그리고 추진에 관한 사무	남녀공동 참획국 국민생활 국
경찰청	청소년비행의 예방, 청소년복지를 저해하는 범죄의 단속 등에 관한 사무	
법무성	비행 청소년에 대한 검찰, 교정, 갱생보호, 인권옹호 등에 관한 사 무	
문부과학성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스포츠, 유네스코활동 등에 관한 사 무	일본유네 스코위원 회, 중앙교육 심의회, 국립청소 년교육진 흥기구

	과학기술의 애해 증진 등에 관한 사무 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	국립과학 박물관 문화청
후생노동성	아동의 고용 금지, 심신의 발달, 건강 향상, 보육, 양호, 악대 방지, 근로청소년의 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사무	노동정책 심의회, 사회보장 심의회
최고재판소	청소년 사건의, 조사, 심리, 청소년복지를 저해하는 성인의 재판 등 에 관한 사무	

2) 일본 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청소년육성시책대강

일본 정부는 청소년육성시책의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다.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책정과 추진은 관계행정기관 간의 연계·협력, 그리고 청소년육성국민운동을 통해 이행된다. 청소년육성정책은 성장 단계별 특성과 과제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차에 대해 배려함과 동시에 각 연령대간의 연속성을 중시한다.

(가) 각 연령기에 따른 시책

(1) 아동기

항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전화 상담 체제를 강화하고, 「방과 후아동 계획」을 통해 일상생활능력의 습득을 지원한다. 또한 비행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문부과학성과 경찰청은 「비행방지교실 등 프로그램사례집」을 작성, 공표하고, 비행방지교실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청소년기

자살 예방과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은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처에 관한 검토회」를 조직(2006년 8월)하고,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처(제1차보고)」를 제출하였다(2007년 3월).

또한 흡연, 음주, 약물남용으로부터 청소년 스스로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교재의 작성·배부하고, 지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능력·의욕 및 사회생활능력의 습득 지원 또한 청소년기의 주요 지원 사항이다.

(3) 청년기

문무과학성은 ‘대학·전수학교 등에 있어서의 재도전지원추진플랜’을 통해 청년, 중고생, 여성, 니트족 등 각각의 집단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학교·고교학교연계 등 직업교육추진플랜’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기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제8차 근로청소년복지대책기본방침’(2006년도~2010년도)을 통해 무직이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자립을 지향하는 청소년을 근로 청소년복지대책의 일부인 육성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직과 관련하여 좌절감 및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을 지각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당면 과제에 따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기 지원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또한 생활설계·인생설계를 지원하고 있고, 공공에 대한 참가를 촉진시키고 있다.

나. 관련 영역별 청소년 정책 현황

업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청소년 보호영역,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영역,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 비행 청소년 관련 서비스,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 영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 청소년 보호영역

(가) 아동학대

(1) 관련법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2007년도 개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 시 권한을 강화하고, 둘째, 보호자의 면회나 통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이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하였다. 넷째, 학교 및 학교의 교직원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해당 책임자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예방·방지,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 시책에 적극협력,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방지 교육 및 계발에 힘써야 한다.

(2) 대처방안

일본 정부는 생후 4개월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 「생후4개월까지의 모든 가정 방문사업(안녕 아가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상담소가 야간 휴일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의료적 지원 및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의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요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오렌지 리본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학교 및 지역 교육위원회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통지를 실시하였다.

(나) 이지메와 등교거부에 대한 주요 시책

이지메와 등교거부에 대한 주요 시책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이지메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동(情動)의 과학적 해명과 교육으로의 응용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전국 교육위원회에 24시간 이지메 상담다이얼(0570-0-78310)을 설치하여, 이지메 등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나 선악의 판단, 권선징악에 대한 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활용한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자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상담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학교 상담자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등교 거부 및 문제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청소년과 부모 상담원을 배치하고, 학생 지도추진협력원을 새로이 배치하였다.

등교거부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 등교 거부 청소년의 조기발견·대응을 시작으로 한 층 더 세심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원이나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지도원의 연수와

가정 방문 지도 등 등교 거부 대책에 관한 핵심적 기능(스쿨링·지원센터)을 충실히 하여, 학교·가정·관계기관이 연계한 지역 단위의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또한 등교 거부 대응에 대한 NPO 활용에 관한 실천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실적이 있는 NPO, 민간 시설, 공적시설에 대하여 효과적인 학습 커리큘럼, 활동 프로그램 등의 연구를 위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등교 거부 등의 문제행동의 미연방지·조기발견·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연계 지원체제를 활용하면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영역

일본 정부는 2007년, 「성장력 향상 전략」에 입각하여 ‘한부모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모자생활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모자가정을 위한 신원보증인확보대책사업을 창설하였다. 둘째, 모자가정의 모친이 재택근무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창설하였다. 셋째, 모자가정의 모친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민간 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등에 대한 제제상의 우대조치 창설하였다. 넷째, 양육비 등 곤란 사례 대응에 도움을 제공하는 「양육비 상담·지원센터」 창설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취업·자립지원센터에 양육비 전문상담원 배정하였다.

3) 상담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일본 정부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내각부를 주축으로 하여 유스어드바이저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 유스어드바이저

청소년 지원네트워크의 기능의 실효를 거두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원으로,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지속적·포괄적인 지원이 실현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사정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상담·지원기관을 판단·소개하는 역할 수행한다.

(나) 지원대상 및 목적

니트족, 은둔형 외톨이, 등교 거부, 장애, 비행 등 곤란을 안고 있는 청소년(13~34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각자의 복잡한 문제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통해 취학·취로·사회참가 등 사회적 자립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비행 청소년 관련 서비스

(가) 관련 정책 및 법안

청소년을 비행이나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강화와 관련 정책 및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안전·안심 가속화 플랜」

일본 정부는 「청소년 안전·안심 가속화 플랜」(2006년 6월)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비행이나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에 대한 강화·지원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힘으로 청소년을 비행이나 범죄피해로부터 지킨다. 둘째, 청소년이 비행·범죄피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역 내 힘을 키운다. 셋째, 곤경에 처한 청소년의 재기를 지역에서 지원한다.

(2) 소년법 일부 개정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소년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2007년 5월 25일). 첫째, 위법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관에 의한 조사수속을 정비하고, 둘째, 12세 이상의 청소년에 관해 가정법원이 허가한 경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보호관찰 대상자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치 규정을 정비하고, 넷째,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처분중인 청소년의 보호자를 지도 및 조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법원의 판단에 의해 국선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3) 갱생보호법안

법무성이 제출한 「갱생보호법안」이 2007년 6월 8일 성립되었다. 이 법안은 소년원

가퇴원 심리(審理)에서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및 범죄피해자 등의 심정을 보호관찰중인 가해소년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포함한다.

(나) 각 관계부처의 비행 청소년 대처 방안

(1) 법무성

법무성은 이지메 등 청소년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대처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법무성 내 인권옹호기관은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체제를 정비하였다. 상설인권상담소와 특설인권상담소 및 법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상담을 접수하고 있으며, 전용상담전화 「청소년의 인권 110번」을 개설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6년도에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권 SOS 미니레터」를 배부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활동 개시하였다.

(2) 소년원 및 소년형무소

소년원 및 소년형무소는 수감 중인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시점을 도입한 교육」을 실시하고, 살인이나 상해 등으로 보호관찰중인 소년을 대상으로 속죄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2007년 3월).

(3) 관계성청 연합회의

내각 관방 부장관보를 의장으로 관계성청 연합회의를 실시하여, 노선버스를 이용한 통학시의 안전 확보 등의 긴급대책 6항목을 포함한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정리하였다.

(4) 경찰

경찰은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익명통보제도를 실행하였다(2007년).

(5) 청소년 서포터 체제

문제 행동을 야기한 청소년에게 개별적인 지원함에 있어 기존의 지역 내 네트워크로는 세심한 접근이 어렵고, 해당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관계 기관간의 연계 체제의 대응이 보다 효과적일 시 해당 관계기관 간에 관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 육성이란 공통 목적 아래 각 관계기관의 권한에 기초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다양하게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팀을 의미한다. 하나의 서포터 팀이 한 명의 청소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청소년 및 가정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사정하여 필요한 지도·지원 및 상황 개선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기관·담당자로 구성된다. 서포터 팀에는 각 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책임지는 연계 조정역(코디네이터)이 포함된다. 서포터 팀은 정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통이해와 방향성을 가진 지도와 지원을 실시한다. 서포터 팀의 활동 종료 시 서포터 팀의 성과가 일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5)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영역

(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의 자립·자활은 소년보호(補導)센터를 활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 모델사업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내각부 정책통괄관(공생사회 정책담당)을 담당으로 하며, 소년보호센터에 종합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경찰, 교육, 복지, 노동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가정·교육·비행·취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의 취학·취로를 개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각 지방자치 단체별 지원 사업의 실례

(1) 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적 자립지원

시즈오카현 교육위원회는 사회와의 접촉이 부족한 청년(고교생 연령부터 약 30세 정도)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시설·봉사단체에서 한 달간 체험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 동료와의 공동작업, 장기적인 보호를 통한 자기표현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연관성

을 향상시켜 사회참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마네현 교육위원회의 YC스튜디오사업 은 사회적 접촉이 희박한 청소년(10대 후반~20대)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 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설의 협조를 통해 상담·모임 장소, 스튜디오·아틀리에, 갤러리·점포활동을 종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처럼 운둔하기 쉬운 청년들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하여, 이러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활동의 에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2) 등교 거부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활동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는 등교 거부나 등교 거부 경향인 청소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체성 및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보호자와 함께 자연 속에서의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참가자들 간의 교류, 체험활동 및 상담을 지원한다.

에히메현 교육위원회의 에히메 와쿠와쿠(두근두근) 청소년학원 개최사업은 등교 거부에 대한 고민을 지닌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연체험활동이나 생활체험활동, 봉사활동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인간관계능력 및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

■지역 젊은이 서포트스테이션

2006년도부터 각 지역에 지역 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을 설치하여(전국25군데), 젊은이가 처한 상황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젊은이 지원기관의 네트워크의 중핵으로서 각 기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문지원체제의 강화하였다.

■헬로워크

2007년도부터 영위크 플라자 및 핫카이드, 사이타마, 치바, 후쿠오카의 헬로워크는 구직활동에 제약이 많은 25세 이상의 프리터를 대상으로 이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적절한 직장의 탐색이나 취직활동방법의 습득을 이루어 주체적으로 취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잡클럽(취직클럽)」 방식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청소년 상담관련 정책과 서비스경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미국 청소년정책은 가족과 지역사회공동체의 기능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대한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등 주요 부처에서 각자의 영역과 관련된 청소년 업무를 위한 기관을 두고, 관련 프로그램과 예산(Fund)을 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및 가족청은 저소득층 또는 가출, 위기, 문제 청소년과 가출 및 노숙 청소년과 같은 취약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교육에의 접근 기회에의 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며,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아동·학교가족부’이다. 청소년정책은 녹서(Every Child Matters)에 명시된,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삶, 안전의 유지, 즐겁고 발전적인 삶, 사회에의 기여, 경제적인 안녕’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집행된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인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정책 중 하나인 ‘Sure St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은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발달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YOTs(Youth Offending teams)와 Connexions등의 프로그램에서 들어나는 바와 같이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대상자의 전인적, 전반적인 성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방식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독일 연방정부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중앙 연방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른 연방 관계부처와 주, 그리고 지역사회 및 공적지원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다. 특히 교육, 건강, 근로영역에서의 청소년들의 이익 함양을 주요과제로 지니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치지향과 내용과 방법, 근로형태를 지원하는

전국지역과 중앙의 자발적인 민간들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청소년담당 지방 업무는 각 자치단체의 ‘청소년청’이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청’에는 또한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과 그들 가정의 현실 문제들을 논의하고, 청소년지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격려들과 제안들을 하고 청소년지원계획과 민간의 청소년지원을 상담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모든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도움의 차원에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의와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를 주축으로 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청소년정책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소년육성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청소년육성시책대강’에 따라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은 연령대별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연속성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 일본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상황(비행청소년, 학대, 학교폭력, 이지메 등)에 대한 대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청소년 정책은 다양한 문제영역별로 수립, 집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2) 논의점 및 시사점

외국의 청소년 상담 관련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미국과 유럽, 일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와 법무부가 관련된 청소년 서비스를 각각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영국, 독일과 일본은 ‘아동·청소년·가족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청소년육성추진본부’ 등의 하나의 부처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고유부처 업무방식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청소년 업무 통합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식의 고유부처 업무방식의 경우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의 각 부처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를 고안하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이고 특화되어 있으나 그에 비해 그러한 기능과 기관의 통합에는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비해 독일, 영국, 일본의 한 개 부처 통합 업무의 경우에는 통합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각 영역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의 고유 업무가 지역에서 수행되고 실시될 경우 그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관련 부처가 통합되어 있는가 혹은 분리되어 있는가와 관련 없이 실질적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여진다. 독일정부가 중앙차원의 '청소년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국이 '아동·학교·가족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넥션즈(Connexions)'등을 통해 필요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일본 정부가 '유스 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등이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예들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주요한 노력들은 청소년기의 지원은 단지 '교육', '상담' 혹은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각각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통해서만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I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 함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외국의 경우에 공적서비스로서 상담을 제공하는 영역에 대한 차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상담을 제외한 많은 상담 영역이 사적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년 학대, 위기, 비행, 가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유럽의 경우에는 저출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려움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어 계층과 관련 없이 다양한 업무를 공공서비스에서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정부조직도의 경우 미국의 모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업무 또한 미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유럽과 마찬가지로의 '저출산'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즉, 청소년의 양육과 그들의 발달 및 성장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그들의 부모나 개인의 역량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줄 필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국의 상담관련 서비스에서 좀 더 우리가 배우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모델 프로그램의 선정과 같은 상담서비스 효과 및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OJJDP에서는 위기, 가출, 비행 등의 다양한 영역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이들을 모델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는 기관 중심으로 펀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통합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선진국의 청소년 상담 관련 정책과 서비스 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해야 하는 영역은 청소년의 자립지원 영역인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 자립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중요시 하는 영역으로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Youth Build 프로그램, 영국에서는 Connexions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좀 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 자립 정책과 서비스가 요구된다.

<표 6.2>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청소년 정책 및 기관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주제영역				
중앙정부 담당부처 및 핵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단일 부처가 청소년 복지 전반을 전담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독서(Every Child Mat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연방아동·청소년계획'(KJ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육성추진본부' • 청소년육성정책대강
청소년 보호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학대 및 방임 ○ 보건복지부 아동 및 가족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 가정폭력 ● 가정폭력과(Family Violence Division): 청소년 학대 및 방인 예방을 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The 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ISA) ◆ Children's Information Service ○ The Churches' Child Protection Advisory Service(CCP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에른 주(Bayern) 뉘른베르크 시(Nürnberg)의 청소년청(jugendamt) • 가정위탁 서비스 ○ 바이에른주 청소년청 • 가정폭력 발견 시 신고 조치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아동학대 방지 법률 개정 (1) 아동학대 방지 ○ 청소년육성추진본부 • 생후4개월까지의 모든 가정 방문사업(안녕 아가야 사업) • 아동상담소 ○ 후생노동성 • 오렌지 리본 캠페인 (2) 이지메 대처

	<p>지역사회공동체 기반의 교부금⁴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공동체 기반의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 국가적 지원 센터 FRIENDS 지원 가정폭력프로그램 <p>(3) 학교폭력</p> <p>○ 교육부(U. S. Department of Education)와 법무성(U. S. Department of Just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아이 안전하게 지키기: 처치기준(Safe Guarding Our Children: An Action Guide)' 			<p>○ 문부과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동(情動)의 과학적 해명과 교육으로의 응용에 관한 검토회 설치 24시간 이지메 상담다이얼 <p>(3) 등교 거부 등의 문제행동에 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이나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 지도원 스콜링 · 지원센터 NPO 활용에 관한 실천연구사업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사업
<p>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영역</p>	<p>○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 및 가족증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드스타트청(the Office of Head Start): Head Start 프로 	<p>○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re Start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 교육지원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p>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이 실시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포괄적인 가족정책 (Familienpolitik) 아래 놓임</p>	<p>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이 실시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포괄적인 가족정책 (Familienpolitik) 아래 놓임</p>

<p>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p>	<p>그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지원소(the Office of Family Assistance): 저소득층 가족 단기지원프로그램(8) (TANF) ○ 교육부(U. S. Department of Education): 'No Child Left Behind (NC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49) & 'Gear Up(Mentornig) 	<p>EMA)</p>	<p>○ 라임찌히(Leipzig) 청소년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지원 서비스와 학업지원 서비스(교실 제공) <p>○ 뮌헨(Munich) 청소년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장애 청소년, 성폭행, 학대 피해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위기 지원서비스 	<p>○ '청소년육성추진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어드바이저
	<p>○ 보건복지부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 Substance Abuse &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신건강정보센터 (National Mental Health Information Center) <p>○ 청소년 정신건강(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캠페인' 			
비행 청소년 관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청소년의 처우와 관련된 법령: '청소년 정의 및 범죄 예방 칙령' 50) ○ 법무성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 관리소 (U. S. Department of Justice 's the Office of Justice Programs's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 Part G –Mentoring • 제 5장 지역사회 예방 기금 프로그램⁵¹⁾ • 위기청소년을 위한 1:1 멘토링 제공 프로그램⁵²⁾ • Model Programs Guide(MP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Crime and Disorder Act(1998) ❖ 비행청소년 관련 대처에 있어 단계별 접근방식을 취함 ○ YOTs(Youth Offending teams) ○ Young offender institutions(YOIs) ○ National Probation Service for England and Wales(N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가정·노인·여성: 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가해자-피해자-화해 프로그램(TOA)⁵⁴⁾' ○ 쾰른(Köln) 청소년청: 위기 청소년의 인격적 성숙 지원 및 그의 부모 역할 강화 ○ 브뤼케 쾰른(Bruecke-köln) 청소년청: 보호관찰 청소년과 인근무(사회봉사)기관 중개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 라이프치히(Leipzig) 청소년청: 형별 감량을 위한 방법, 법적 소송 과정 및 비용 등과 관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책 및 법안 • 청소년 안전·인심 가속화 플랜 • 2007년 소년법 일부 개정 • 갱생보호법안 ○ 법무성 • 청소년의 인권 110번 • 청소년의 인권 SOS 미니레터 ○ 소년원 및 소년형무소 • 피해자의 시점을 도입한 교육 • 속죄지도프로그램 ○ 관계성형 연락회의 •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대책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지원 서비스	<p>○ 법무성 사법지원부 (U. S. Department of Justice 's th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집단 반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⁵³⁾ <p>○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 및 가족 내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 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⁵⁶⁾ (1) 위기/단기 개입 서비스 프로그램(BCP) (2) 노숙청소년자립지원 프로그램⁵⁶⁾ (3) 임신, 출산노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⁵⁷⁾ (4) 노숙 청소년을 찾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⁵⁸⁾ <p>○ 노동부 내 고용 및 훈련청 소속 청소년 서비스 (U. S. Department of Labor/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Youth Services)</p>	<p>○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ng Runaways Action Plan Local authority와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 (LSCBs) 	<p>○ 위기시설과 청소년 긴급 구조 서비스기관(긴급구조소, 긴급보호소, 긴급수용소)</p> <p>○ 거리사회사업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라이프찌히(Leipzig) 청소년청 내 거리복지단체 (Strassensozialarbeit)의 Streetwork <p>○ 구호기관</p>	<p>○ 경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통보제도 <p>○ 청소년 서포터 체제</p>
청소년의 자립 자활 지원 서비스	<p>○ 노동부 내 고용 및 훈련청 소속 청소년 서비스 (U. S. Department of Labor/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Youth Services)</p>	<p>○ New Deal for Young People Connexions</p>	<p>○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학생 - 2번째 기회' 	<p>(1) 중앙정부 차원</p> <p>○ 내각부 정책동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보호(補導)센터 <p>(2) 지방정부 차원</p> <p>① 은둔형 외톨이 등의 자립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uth Build Program 공정고용기회위원회 내 청소년 노동 (The U. 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Youth@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즈오키현 교육위원회: YC 스튜디오사업 ② 등교 거부 아동의 자립지원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 자연 속에서의 활동 프로그램 에히메현 교육위원회: 에히메 와쿠와쿠(두근두근) 청소년학원 개최사업
--	--	--	---

-
- 47) CBCAP = Community-Based Grant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 CBCAP = 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 48)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49) 21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 50)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PL93-415, 1974
 - 51) Title V Community Prevention Grants program
 - 52) Juvenile Mentoring Program; JUMP
 - 53) The Gang Re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G.R.E.A.T.
 - 54) T.O.A. = Täter-Opfer-Ausgleich
 - 55)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s; RHY
 - 56) 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
 - 57) Maternity Group Homes Program; MGH
 - 58) Street Outreach Program; SOP

VII. 국내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상담서비스 실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 있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주요 기능과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어떠한 체계 내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공적 서비스로서의 상담영역이 어떻게 자리 매김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역할 및 기능은 어떠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각 관련기관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추 후 내담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근간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1.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관의 종류, 전문 인력의 수 및 전문가 자격증 소유 여부
- 둘째,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 상담과 관련된 사업 및 사업내용, 향후 필요한 상담적 지원의 내용 및 인력지원 내용 등
- 셋째, 추후 실시 희망 사업
- 넷째, 공적 서비스로서 상담의 방향성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08년 9월 12일~9월 26일에 걸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중 100곳을 무선으로 추출하여 위의 내용을 서면자문지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회수하였다. 총 100개 기관 중 37개 기관에서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37%였다. 회수율은 다소 저조하였으나, 아동·청소년 상담업무와 관련이 많이 있는 지역 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관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기관의 대표성을 갖는 지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현

황과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1) 조사 대상 및 특성

전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중 아동보호 전문기관 38곳,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입양 및 복지시설 35곳,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6곳, 청소년 쉼터 11곳을 대상으로 기관장이 자문하도록 하였다. 총 조사 대상 중 아동 관련기관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15곳, 가정위탁센터 및 입양 및 복지시설 10곳이 자문에 협조하여 총 25개 기관의 자문이 회수되었고, 청소년관련기관으로는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7곳, 청소년 쉼터 5곳으로 총 12곳이 자문에 협조하였다.

2) 자료 분석

각 기관의 기초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련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상담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필요한 상담지원 내용, 적합한 담당자, 사업진행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3. 조사 결과

조사결과는 편의상 아동관련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센터, 아동복지기관) 과 청소년관련기관(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쉼터 및 청소년보호기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회수된 자문자료는 첫째, 각 기관의 인력현황에 대해 정리하여 봄으로써 어떠한 자격증의 소유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인력현황을 파악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관들의 주요기능과 업무내용을 정리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사업의 내용 중 상담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관련성이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

별하여, 그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적 지원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업의 진행상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넷째, 추후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유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1) 기관별 인력상황

① 아동관련기관의 현황

아동관련 기관으로는 모두 25개의 기관이 응답하였고, 상근자 수는 평균 10명으로 나타났다(총인원수 251). 상근자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가 기관 당 평균 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사회복지사 총 수 243), 아동관련기관에서 임상심리사는 총 8명, 청소년지도사 총 8명, 청소년 상담사 총 6명, 상담심리사 총 20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의 특성상 놀이 치료사나 미술 치료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유자가 있는 지역이 있었다.

② 청소년 관련기관의 현황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는 모두 12개의 응답기관이 있었으며, 상근자 수는 총 109명으로 기관당 평균 9명으로 나타났다. 상근자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가 총 8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상담사 53명, 청소년지도사 45명, 상담심리사 2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기관별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

① 아동관련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

아동관련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신고접수, 치료상담적 개입 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예방사업 :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모든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 : 관할지역내 피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의무, 현장조사, 격리, 보호 및 예방교육 실시
- 아동학대보호 및 치료 상담사업 : 피학대아동 및 일반 아동에게 심리평가 및 치료를 제공하여 자아성장과 적응력을 높이고 문제 행동을 줄이고자 함.
- 아동학대 가해자 치료 및 상담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해 교육하고 상담을 통하여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아동 심리상담실 운영 : 피학대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대후유증 극복을 도모 함.

② 청소년 관련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

청소년 관련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보호사업, 자립지원 사업,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연계망 사업, 문제유형별 상담적 개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등이 포함 되어 있다.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사업: 위기청소년들을 단기보호하여 범죄, 비행 등의 유입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재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가정복귀 및 자립지원을 함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서비스: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
- 일시(긴급)보호소 운영: 가출, 성매매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중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함
- 두드림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을 준비하도록 도와줌
- 해밀사업: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1388청소년 지원단 운영: 청소년들이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토대마련
- 소년보호사건 심리전부모교육: 심리가 예정된 청소년과 가족간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돕고, 청소년 비행 문제를 예방.
- 인터넷중독 상담 및 치료사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적

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학습태도의 긍정적 변화로 성취 욕구를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함.
- 또래상담: 청소년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지역의 지지자원을 구축하여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의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
- 자활지원 프로그램: 가정·학교에서의 적응 및 사회에서의 자립 준비에 도움
- CYS-Net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 내의 청소년 유관기관과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청소년들의 고민해결과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 청소년동반자 사업: CYS-Net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로부터의 예방과 자립을 도움
- 교육연수 및 홍보사업(청소년상담자 교육): 청소년상담자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3) 상담관련 사업 및 필요한 상담적 지원내용

① 아동대상기관의 상담관련 사업 및 지원내용

현재 아동 학대 예방사업의 대부분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대상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이가 사업의 대상자가 되고 즉, 피학대 아동 뿐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나 가족, 주변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아동학대 문제는 상담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업 중의 하나이며,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 연령층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상담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상담과 가족 상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현장 조사시 주변인에 대한 상담 등에 전문적 상담인력이 역할을 담당하여 줄때, 사업 진행이 원활할 것이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특성이나 정도, 원인 및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기초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적기관이나 경찰 등의 권위있는 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며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조사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사정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내용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는 법률적 자

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을 해 줄 수 있는 의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사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학대 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욕구 파악, 학대방지를 위한 부모교육은 상담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석사 이상 수준의 상담자, 상담관련직에 2-3년 이상 종사한 상담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현장에서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또한 현재는 월 1회 방문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주 1회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담전문인력을 위한 예산이나 상담의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동학대는 성인이나 부모의 개입이 중요한 만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상담의 대상을 아동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으로는 상담의 수요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담자가 의무적으로 파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학대 아동 전용 그룹홈 사업은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나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적 지지를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전문가나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지식을 겸비한 개별 전문상담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집중이 안 되는 아동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는 모래놀이 치료나 인지행동수정기법 등의 특화된 기술을 수련한 자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관련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상담적 지원내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함양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지원사항이었다. 그리고 미혼모 상담 및 입양대상, 문제아동에 대한 상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미혼모 및 입양대상자라는 특수상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는 전문적 상담이 특히 더 필요하며,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성 함양 교육을 하거나, 관련부처를 통한 예산이나 인력의 확충으로 전문적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들이 상담지원을 받기위한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 대상기관의 상담관련 사업 및 지원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관련 사업은 청소년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외적인 환경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거나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와 같이 보다 능동적인 상담과 예방적 차원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문제가 독특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상담 관련 사업내용도 특정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 치료사업, 청소년동반자 확대, 방문상담 심리치료사업, 위기청소년(기출, 학업중단, 빈곤, 새터민, 은둔형외톨이,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등) 자립지원사업,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는 경우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져서 문제에 대해서 이중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전문적인 인력들을 발굴하여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담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도 아동 관련기관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 상담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폭력성과 독특성이 늘어가고 특수해진 만큼 그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종사자들에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이나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전문상담 양성교육과 특수상담 사례자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의 안정된 지원과 전문 인력 충원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소규모의 인원으로 상담과 사업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현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기관을 위탁운영 방식이 아닌 해당지역의 지자체 운영방식을 취하여 예산확보 및 지원과 인력 배치를 안정적으로 하여 청소년들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국한된 청소년동반자의 활동과 기능을 타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지원하는 사업들에서는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출, 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청 및 학교,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등의 부처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중독치료의 경우에도 지역 병원과의 연계,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노동부와의 연계 등을 이루어 상호 협조적인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추후 희망사업

① 아동 관련기관의 추후 희망사업

학대 행위자를 위한 부모역할 훈련 혹은 가족상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수강명령의 제도화
정부지원 지역센터에서 아동상담 강화 및 조기개입을 활성화 하는 사업
초등학교 내 아동 심리치료사업의 강화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② 청소년 관련기관의 추후 희망사업

성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 사업
정신건강,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상담개입
다문화, 탈북 등의 특수문제 청소년에 대한 개입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사업
학업중단, 자활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학업적 지원사업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 구성 및 집단 프로그램 개발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수급이 필요
놀이, 활동 중심의 치료 프로그램 필요

5) 공적 서비스로서 상담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점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동대상의 기관과 청소년대상의 기관 간의 유사성이 많았는데 몇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담인력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상담인력이나 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양성해 나갈 필요성 있음
- 계약직이 아닌 안정적인 상담인력지원의 필요성
- 각종 자격증의 통합 및 국가공인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자격제도가 필요함
- 취업이후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상담자에 대한 보수교육실시
- 검증된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검증작업
- 프로그램 및 상담관련 교육 실시자의 자격제한 및 전문성 인증제도의 도입
-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
- 전문인력이 보다 접근 가능하도록 확충될 필요

(2) 빈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확대 서비스 지원

- 경제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소외되는 이웃에 대한 공적인 관심 및 상담의 수혜대상이 되도록 노력
- 의료서비스와 같은 공적 서비스로 확대된 필요.
- 고가의 상담료, 접근성의 어려움을 가진 상담이 공적 상담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함
- 저렴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 차상위 수급권자에 대한 실비지원체계구축
- 저소득층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국비 및 시비지원의 확대

(3) 특화된 대상에 대한 지원 서비스

- 위법자에 대한 계도는 형벌을 주는 것 외에 상담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일반 아동 양육에 대한 상담이 필요
-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립지원 내실화
- 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 일반인 대상 예방상담의 강화

(4) 연계망의 구축 및 관리

- 교육청과의 연계로 상담사업의 활성화
- 분야별 , 기관별, 네트워크 강화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

- 전문가가 확보된 정부위탁기관과 민간상담사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의 모색
-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의뢰가 잘못되어 전반적으로 상담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연계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아동관련기관과 청소년관련기관이 서로 조력하고 win-win하는 방식의 모색
- 학교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부처간의 노력
- 출장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계체제 강화
- 적극적 홍보활동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기관장의 서면 자문내용에 반영된 공적 서비스로서의 상담의 역할은 크게 1) 상담인력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 빈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확대 서비스 지원 3) 특화된 대상에 대한 지원 서비스 4) 연계망의 구축 및 관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역들은 민간이 담당하기 힘들고 국가나 부처간의 연계를 통해 공적인 기관에서 담당해 나가야 할 역할들로 제시되었다.

4. 시사점

현재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는 다양한 사업목표를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련기관의 모든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 중 상담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는지, 어떠한 상담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단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고 그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어떠한 인력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 등의 내용을 현장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가의 서면자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아동관련기관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근무비율이 매우 높고 이들이 기본적인 상담의 개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매우 부족하고, 내담자에 대한 초기 개입에 있어서 아동 및 가족, 주변인 등 내담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문적 상담을 이끌어 나갈 만한 역량이 부족함을 현장에서 많이 직면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의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제까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각 지역청소년상담센터가 구축해 온 고유한 상담의 영역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한 더 나아가 향후 아동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었을 경우 각 관련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서비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상담역할의 재정립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의 주요한 상담적 지원내용으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함양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내용으로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제까지 현장의 실무자들의 전문성함양을 위해 노력해 온 연수 및 교육사업을 활용한다면, 아동관련기관의 실무자의 전문성함양에도 하나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의 문제가 말로 다양한 전문가 들이 평가 및 진단, 상담적 개입, 예방교육, 법률적 문제, 가해자의 격리 등을 위한 공적 기관의 개입이나 경찰의 개입 등 다각적인 팀별 접근 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 현장을 통해 나타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문제는 빈곤계층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아동이 보다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아동관련기관에서 상담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업들에서 전문적 상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전문가들과 연계 하에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나갈 지에 대한 끊임없는 대안모색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청소년관련기관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그 동안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행해온 청소년상담업무와 관련된 통합·지원기능은 비교적 그 성과를 나타내어 온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러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러한 통합·지원 및 교육과 프로그램 기능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공적·사적 기관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각 지역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적 영역으로서의 상담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민간이 담당하기 힘든 상담인력에 대한 지원 및 관리영역과 빈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확대 서비스 지원, 연계망의 구축 및 관리의 역할들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고해 본다면, 아동이건 청소년이건 내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

에서 가장 적재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유사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역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재편되어 내담자 모두가 필요한 수혜자가 되어 최선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II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본 연구는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동의여부와 의견에 대해 조사하여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설계를 하였다.

1. 델파이(Delphi) 조사

델파이 방법은 전문적 견해를 근거로 하여 미래예측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델파이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델파이 신전’에서 유래하였다. 델파이 방법은 1950년대 미국의 Rand Corporation에서 국방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노성덕, 2006). 델파이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교환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방법의 하나이다(노승용, 2006). 이 방법은 누가 설문에 참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성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논쟁과 개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자 전체에게 피드백을 받는다(박경준, 2008).

델파이 방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박경준, 2008). 첫 번째 단계는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도록 요청해야 하는데,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반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이 골고루 분포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질문지를 보내 피드백을 받는데,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된다. 이때, 전문가들은 다른 전문가들의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재평가하고, 질문의 각 단계마다 자신의 의견을 다룰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논쟁과 의견들이 공개되어 참여자들에게 전달된다.

델파이 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노승용, 2006). 장점으로는, 첫째,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를 동시에 참여 시킬 수 있다. 둘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익명성의 보장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조사과정에서 대략적인 결과 확인 및 판단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첫째,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설문지의 구성과 결과분석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없을 경우 조사의 성과가 낮을 수도 있다. 넷째,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

게 서술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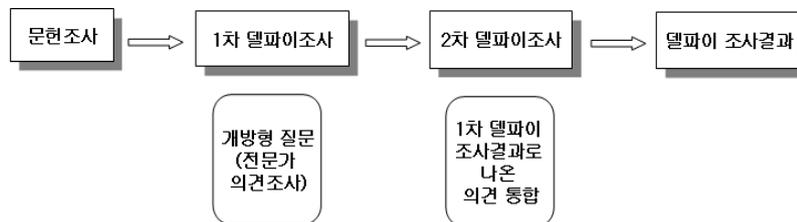
2. 연구대상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패널의 선정이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전문가 선정이 중요하다(노승용, 2006).

본 연구의 델파이 1차 조사에 포함된 연구대상 전문가들은 총 50명이었다. 이들은 청소년상담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박사수료 이상의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라고 함은 청소년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학계나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청소년상담 미래전망에 대해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으로는 1차 개방형 조사 때 의견을 제시한 21명이었다. 이 21명의 전문가들의 분포는 상담관련 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교수 14명(66.7%),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현장 실무자 7명(33.3%)이다. 성별로는 남자 12명(57.1%), 여자 9명(42.9%)이며, 연령별로는 30대 2명(9.5%), 40대 15명(71.4%), 50대 4명(19.0%)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에 대한 문헌탐색과 1, 2차 델파이 조사 수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9>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위해 2종류의 조사도구가 제작되었다. 첫 번째는 델파이 1차 조사 질문지로서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을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찰할 목적으로 자유기술식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유기술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문지가 구조화·조직화·세분화 되어 있으면 응답자의 반응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서영인, 2008). 두 번째는 델파이 2차 조사 질문지로서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마련된 의견들을 통합하여 작성되었다. 2차 질문지는 평가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으로써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5점 리커트 형식(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점 : 매우 동의함)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제1,2차 델파이 조사는 9월 11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는 e-mail로 보내졌고, 다시 e-mail 답장을 통해 의견을 받는 형식을 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8.1>과 같다.

<표 8.1>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구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배포형태	표집인원 (명)	응답인원 (명)	응답률 (%)
제1차 델파이	2008. 9. 11-9.19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	e-mail	50명	21명	42%
제2차 델파이	2008. 10.3-10.9	제1차 델파이를 통해 선정된 75개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e-mail	21명	21명	100%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제1,2차 델파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이 되었다. 첫째,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총 97개의 내용이 나왔으며, 이것을 근거로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75개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이 의견들은

크게 운영체제 및 제도와 상담내용 2영역으로 나뉘었으며, 하위 4영역으로 다시 나뉘었다. 둘째, 2차 설문은 1차 델파이의 내용을 근거로 75개의 의견들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5.0버전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로 처리하였다.

5. 연구결과

가. 제1차 델파이 조사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총 97개의 내용이 나왔다. 비슷한 내용을 합치고 수정한 결과, <표 8.2>과 같이 최종 75개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크게 운영체제 및 제도와 상담내용 2영역으로 나뉘었으며, 운영체제 및 제도 영역 안에는 청소년상담 시스템 운영, 정책과 제도, 상담 전문 인력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었으며, 상담내용에는 청소년 상담서비스 영역의 확장 1개의 하위영역으로 나왔다. 또한 이 영역들은 더욱 세밀하게 나뉘어졌는데, 청소년상담 시스템 운영 안에는 공·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 공적 서비스 상담체계의 변화,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화로 나뉘었으며, 정책과 제도 안에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제도의 변화 전망이 포함되었으며, 상담 전문 인력 안에는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상담서비스 영역의 확장 안에는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었다.

<표 8.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		내용
운영체제 및 제도 (46)	청소년상담 시스템 운영 (27)	공·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 (6)
	공적 서비스 상담체계의 변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 필요성 증가 • 소아청소년정신과, 사회복지, 상담 및 심리치료, 위기지원체제 등이 상호연계 • 상담과 복지부분 강화 • ‘상담’의 독립적인 학문적 위상 확보 • 서비스 대상이 개인보다 집단 및 기관차원으로 변화 • 직접개입보다는 의뢰하는 역할로 전환 • 지역 중심의 청소년 상담체제 및 시스템 연계 활성화 • 상담 제도와 행정의 체계화, 서비스 제공 부서 다양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전달체계 통합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화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전문화 • 상담 및 교육의 시간대와 장소의 다양화 • 이동통신 및 컴퓨터를 통한 상담 증가 • 화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짐 • 사이버상담의 전문화 • 단기상담의 활성화 • 동물을 이용한 청소년 심리치료 확대
정책과 제도 (10)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제도의 변화 전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 정책 지원 정부부처 변화 • 국가운영중심의 공적서비스가 지자체별로 특화 • 청소년상담 제공 주체와 기관의 책무성 기준 마련 •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조, 상담의 효과 검증 •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 확립 •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 비행청소년들의 부모교육 법제화와 의무화 • 아동청소년상담서비스 전달자의 준 사법적 결정권 취급 • 전문학교상담인력 정책 요구 • 전문상담교사 제도 활성화
상담 전문 인력 (9)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 향상 • 상담인력의 질적 저하와 지위 약화 • 상담서비스 전문가 집단 간의 역할 갈등 과열화 •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상담전문가 유입 • 청소년상담인력의 타 기관(교육부 및 법무부 산하기관)이 동

		전문상담인 력양성을 위한 교육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변화 • 비형식적인 교육제도 확장 • 기존의 심리치료 중심 교육과정 퇴조 • 교육·특수교육·법적·약물에 대한 지식·구체적 사회 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 대두
상담 내용 (29)	청소년 상담서비 스 영역의 확장 (29)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 다양화, 영역 확대 • 청소년상담의 대상 일반화, 대중화 • 청소년 대상 저연령화 • 건강하고 성숙된 인간에 대한 해석 변화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전망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리, 자살,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입 요구 증가 • 정서불안정, 주의산만, 충동성, 자살충동 등에 개입 •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 증가 •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 짐 • 비행, 가출청소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입 • 청소년 교도상담 및 교화상담 확대 •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대책 기능으로써 청소년 상담 기능 약화 • 인터넷 중독과 관련 된 정신병리 문제 증가 • 인터넷 중독과 관련 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 짐 •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 짐 • 재난관련 상담수요 증가 •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득층 상담 등 소외계층 상담 활성화 • 맞벌이부부,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상담 증가 •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교육 필요성 증가 • 학교상담에 대한 요구 증가 • 학교 내 상담이 외부상담 전문가에게 개방 • 학업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개입 •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 증가 • 상담활동이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의 한 영역으로 포함 • 내담자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필요 •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력방법 퇴조 • 인성 및 정서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 요구 • 예방 및 발달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 • 여가지도 및 여가상담 증가 •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상담 증가

나.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 주요 이슈

1) 운영체제 및 제도

향후 15년간(2009-2024)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및 제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

청소년상담 시스템 운영에서 공·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전망으로는 공적서비스 및 전반적인 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4.4),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 유·무료상담기관의 이용에 차이가 있으며(4.3), 사설 상담기관 간 혹은 상담전문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4.0)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3> 공·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

내 용	평균
청소년 상담의 정체성 위기와 논의가 활성화	3.5
공적 서비스 및 전반적 상담 요구	4.4
공적 상담소 민영화, 새로운 민간 상담기관 증가	3.6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약화	2.7
사설 상담기관 간 혹은 상담전문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	4.0
경제적 여유에 따른 유·무료상담기관 이용 차이	4.3

(나) 공적 서비스 상담체계의 변화

(1) 차별화된 서비스

전문가들은 공적서비스 상담체계의 변화 가운데 사설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것(4.1)이며, 또한 획일화된 공적서비스기관의 체제가 전문가의 수나 규모에 따라 차별화될 것(4.0)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4> 차별화된 서비스

내 용	평 균
시설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4.1
전문가의 수나 규모에 따라 차별화	4.0

(2) 상담접근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소년 상담접근은 다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4.4)이고, 청소년 상담의 학문간 융합화 현상 발생(4.2), 소아청소년정신과, 사회복지, 상담 및 심리치료, 위기지원체제 등이 상호연계 될 것(4.2)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상담과 복지부분이 강화(3.9)되고, '상담'의 독립적인 학문적 위상이 확보(3.9)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5> 상담접근

내 용	평 균
청소년 상담의 학문간 융합화 현상 발생	4.2
다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 필요성 증가	4.4
소아청소년정신과, 사회복지, 상담 및 심리치료, 위기지원체제 등이 상호연계	4.2
상담과 복지부분 강화	3.9
'상담'의 독립적인 학문적 위상 확보	3.9

(3) 상담체계의 변화

전문가들은 지역중심의 청소년 상담체제 및 시스템 연계가 활성화 되고(3.9), 상담 제도와 행정의 체계화, 서비스 제공 부서가 다양해 질 것(3.9)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6> 상담체계의 변화

내 용	평 균
서비스 대상이 개인보다 집단 및 기관차원으로 변화	3.6
직접개입보다는 의뢰하는 역할로 전환	3.5
지역 중심의 청소년 상담체제 및 시스템 연계 활성화	3.9
상담 제도와 행정의 체계화, 서비스 제공 부서 다양	3.9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전달체계 통합	3.6

(다)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화

(1) 서비스 방법

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담 방법은 앞으로 이동통신 및 컴퓨터를 통한 상담이 증가될 것(4.2)이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확대되고(4.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전문화(3.9), 상담 및 교육의 시간대와 장소의 다양화(3.9), 서비스방법의 다양화(3.8) 순으로 전망하였다.

<표 8.7> 서비스 방법

내 용	평 균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	3.8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4.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전문화	3.9
상담 및 교육의 시간대와 장소의 다양화	3.9
이동통신 및 컴퓨터를 통한 상담 증가	4.2

(2) 사이버상담 전문화

전문가들은 사이버상담이 지금보다 더 전문화 될 것(3.8)으로 전망하였다.

<표 8.8> 사이버상담 전문화

내 용	평 균
화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짐	3.5
사이버상담의 전문화	3.8

(3) 전달방법 다양화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담의 전달방법은 장기상담보다는 단기상담이 활성화 될 것(4.2)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9> 전달방법 다양화

내 용	평 균
단기상담의 활성화	4.2
동물을 이용한 청소년 심리치료 확대	2.9

(라)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제도의 변화 전망

(1) 청소년상담 담당부처 변화

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에서 국가운영중심의 공적서비스가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특화될 것(4.6)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11> 청소년상담 담당부처 변화

내 용	평균
청소년상담 정책 지원 정부부처 변화	3.6
국가운영중심의 공적서비스가 지자체별로 특화	4.0

(2) 상담의 책무성 강조

전문가들은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상담의 효과검증이 이루어질 것(4.6)이며 청소년 상담 제공 주체와 기관의 책무성의 기준이 마련될 것(4.2)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12> 상담의 책무성 강조

내 용	평 균
청소년상담 제공 주체와 기관의 책무성 기준 마련	4.2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조, 상담의 효과 검증	4.6

(3) 복지적 정책

전문가들은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확립될 것(4.0)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13> 복지적 정책

내 용	평 균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 확립	4.0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3.5

(4) 부모교육 법제화와 의무화

전문가들은 비행청소년들의 부모교육이 법제화되고 의무화될 것(3.8)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14> 부모교육 법제화와 의무화

내 용	평균
비행청소년들의 부모교육 법제화와 의무화	3.8
아동청소년상담서비스 전달자의 준 사법적 결정권 취급	3.2

(5) 학교상담교사 제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문학교상담인력 정책이 요구되며(3.9),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활성화될 것(3.9)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15> 학교상담교사 제도

내 용	평균
전문학교상담인력 정책 요구	3.9
전문상담교사 제도 활성화	3.9

(마)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전문가들은 상담 전문 인력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상담전문가가 유입될 것(3.9)이며, 상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이 향상될 것(3.8)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16>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내 용	평 균
상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 향상	3.8
상담인력의 질적 저하와 지위 약화	2.4
상담서비스 전문가 집단 간의 역할 갈등 과열화	3.3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상담전문가 유입	3.9
청소년상담인력의 타 기관(교육부 및 법무부 산하기관)이동	3.5

(바)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전문가들은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교육·특수교육·법적·약물에 대한 지식·구체적 사회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대두될 것(3.9)이며, 청소년상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변화될 것(3.8)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17>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내 용	평 균
청소년상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변화	3.8
비형식적인 교육제도 확장	3.2
기존의 심리치료 중심 교육과정 퇴조	3.6
교육·특수교육·법적·약물에 대한 지식·구체적 사회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 대두	3.9

2) 상담내용

향후 15년간(2009-2024)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전반에 걸쳐 '상담내용'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

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이 다양화되고, 영역이 확대될 것(4.4)이며, 청소년상담의 대상이 일반화, 대중화될 것(4.2)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18>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

내 용	평 균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 다양화, 영역 확대	4.4
청소년상담의 대상 일반화, 대중화	4.2
청소년 대상 자연영화	3.8
건강하고 성숙된 인간에 대한 해석 변화	3.8

(나)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전망

(1) 전문적인 개입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소년 상담이 청소년들의 정신병리,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입 요구가 증가할 것(4.4)이며, 정서불안정, 주의산만, 충동성, 자살충동 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4.3)이며,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할 것(4.3)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19> 전문적인 개입

내 용	평 균
정신병리, 자살,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입 요구 증가	4.4
정서불안정, 주의산만, 충동성, 자살충동 등에 개입	4.3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 증가	4.3

(2) 비행관련 영역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4.2)이며, 비행,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3.9)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20> 비행관련 영역

내 용	평 균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 짐	4.2
비행, 가출청소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입	3.9
청소년 교도상담 및 교화상담 확대	3.1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대책 기능으로써 청소년 상담 기능 약화	2.4

(3) 인터넷 중독 영역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리 문제가 증가할 것(4.1)이며,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질 것(4.1)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21> 인터넷 중독 영역

내 용	평 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리 문제 증가	4.1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 짐	4.1

(4)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개입

전문가들은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질 것(3.9)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22>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개입

내 용	평 균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 짐	3.9
재난관련 상담수요 증가	3.6

(5)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증가

전문가들은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득층 상담 등 소외계층 상담이 활성화될 것(4.6)이며,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상담이 증가할 것(4.2)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23> 다양한 상담 증가

내 용	평 균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득층 상담 등 소외계층 상담 활성화	4.6
맞벌이부부,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상담 증가	4.2

(6) 학교상담 영역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

전문가들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4.0)이며, 학교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4.0)이며, 학교 내 상담이 외부상담 전문가에게 개방될 것(4.0)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24> 학교상담 영역

내 용	평 균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교육 필요성 증가	4.0
학교상담에 대한 요구 증가	4.0
학교 내 상담이 외부상담 전문가에게 개방	4.0

(7) 학업과 진로상담 영역에 대한 상담 요구 증가

전문가들은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4.1)이며, 학업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개입할 것(4.0)이며, 상담활동이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의 한 영역으로 포함될 것(3.9)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25> 학업과 진로상담 영역

내 용	평균
학업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개입	4.0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 증가	4.1
상담활동이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의 한 영역으로 포함	3.9

(8) 기타 영역

전문가들은 앞으로 예방 및 발달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4.1)이며, 내담자의 현실

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3.9), 인성 및 정서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이 요구될 것(3.8)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8.26> 기타 영역

내 용	평 균
내담자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필요	3.9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력방법 퇴조	2.3
인성 및 정서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 요구	3.8
예방 및 발달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	4.1
여가지도 및 여가상담 증가	3.4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상담 증가	3.2

6. 요약 및 논의

1) 요약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여부와 의견의 합의점을 찾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체제 및 제도’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인 변화에서는 공적서비스 및 전반적인 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둘째, 공적 서비스 상담체계의 변화의 전망은 공적서비스 기관은 사설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다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상담체계 및 시스템 연계가 활성화 되고, 상담 제도와 행정이 체계화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도 다양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셋째,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화에서는 이동통신 및 컴퓨터를 통한 상담이 증가할 것이고, 사이버상담이 전문화되고, 단기상담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제도의 변화 전망에서는 국가운영중심의 공적서비스가 지자체별로 특화 될 것이며,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상담의 효과가 검증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확립될 것이며, 비행

청소년들의 부모교육이 법제화 되고 의무화 될 것이며,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활성화와 전문학교상담인력에 대한 정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섯째,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상담전문가가 유입될 것이며, 여섯째,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교육·특수교육·법적·약물에 대한 지식·구체적 사회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상담내용'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에서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이 다양화 되고, 영역이 확대될 것이며, 둘째,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전망에서는 정신병리, 자살,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리 문제가 증가할 것이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득층 상담 등 소외 계층의 상담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예방 및 발달상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논의 및 시사점

델파이 조사 연구결과로 나온 논의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서비스로서 청소년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청소년상담이 점차 더 전문화되고 다양하고 대중적인 대상에게 활용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전문성, 대중성, 일반화 및 기능의 확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아마도 공적, 사적서비스의 영역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공적서비스 영역에서는 공적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공적서비스에서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의 방향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상담, 다학제적인 접근, 팀접근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연계망 체제에 동의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공적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는 사적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동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기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효과를 상승시킴

로서 청소년 개개인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 또한 그에 대한 전반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담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앞으로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서비스는 지역적 특성과 기관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지역의 어려움과 기관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서비스에서는 비용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소년 상담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이나 화상상담, 단기상담을 통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단기상담의 강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고, 공간적·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친근하면서 집약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다양한 매체상담이 중요시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들 매체상담과 단기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상담의 효과성 검증 및 책무성이 강조되었다. 공적서비스에서의 상담은 특히 그 효과를 검증하고 상담의 책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청소년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상담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인증' 될 수 있는 효과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낭비와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 영역은 다음과 같다. 위기, 비행, 은둔형외톨이, 인터넷중독, 취약계층(저소득계층, 다문화, 조손 및 한부모가정 등), 자립자활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진로상담 영역에 있어서는 학교상담의 강화를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IX. 요약 및 제언

IX

1. 요약

본 연구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의 변화를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상담의 정의와 이론을 탐색해보고,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이 근간을 이루어온 청소년 정책의 변화와 구체적인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변화를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상담 관련정책과 서비스 현황,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5년간의 욕구변화, 우리나라 주요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서의 청소년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청소년상담에 대한 변화예측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청소년상담의 정의와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으로 청소년상담의 정의는 청소년들의 유능감과 잠재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보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지향하는 정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심리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 관점, 생태학적인 통합적 접근에서 살펴보았고, 6개의 정부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차원의 청소년상담정책에 대한 개관을 해보았다.

3장에서는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각 년도 시행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책 과제 중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1993년도 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증대와 청소년보호선도를 강조하던 것에서 점차 2,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는 청소년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강화로 그 초점이 변화되었다. 이와함께 2006년부터의 제3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환경 개선등의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어온 것을 알수 있다. 2009년부터 추진될 청소년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통합시키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의 통합 등이 그 주요 사업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장에서는 지난 15년간의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변화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사업의 변화 및 시범상담의 변화와 함께 지역 청소년상담실의 상담경향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와 사업의 변화는 청소년육성계획 및 기본정책의 방향과도 맞물려 있어 초기에는 부모교육과 품성교육 등의 기본적인 청소년육성에 중심을 둔 것에 비해 점차 위기청소년의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사회통합적 지원에 대한 연구와 사업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함께 상담서비스의 내용도 점차 단기상담과 사이버상담 등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통해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축적해온 상담노하우를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off-line과 on-line이 함께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 초기에 비해 1200배가 넘는 서비스 증대를 나타내어 왔다.

5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청소년의 삶과 고민의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적 서비스 영역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역할은 첫째, 진로나 학업문제에 있어서 개입할 필요성과 특히 경제적 빈곤층에 대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감각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들에게 걸맞는 사이버 상담의 구축이나 웹상의 무료 서비스의 개발, 셋째, 다문화, 조손가정, 탈북 청소년 등 소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의 청소년이 언제 행복할지의 문제는 특히 상담 장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인지적 교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재 교육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학교폭력문제를 예방,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 등이야말로 중요한 공적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여진다.

6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의 청소년상담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고유 기능 내에서의 청소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은 한 부처에서 관장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서비스의 상담 영역은 학대, 비행, 가출, 위기상담, 소외계층 및 자립지원 영역 등이 주 영역인 것으로 보여진다.

7장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상담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업들에서 전문적 상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전문가들과 연계 하에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나갈 지에 대한 끊임없는 대안모색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청소년관련기관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그 동안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행해온 청소년상담업무와 관련된 통합·지원기능은 비교적

그 성과를 나타내어 온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러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또한, 공적 영역으로서의 상담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민간이 담당하기 힘든 상담인력에 대한 지원 및 관리영역과 빈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확대 서비스 지원, 연계망의 구축 및 관리의 역할들로 제시되었다.

8장의 공적서비스영역에서 청소년상담의 미래전망에 대한 델파이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운영체제 및 제도’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공적서비스 및 전반적인 상담에 대한 요구 증가, 다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의 필요성, 지역 중심의 청소년 상담 체계 및 시스템 연계 활성화, 상담 제도와 행정 체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도 다양화,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 확립, 비행청소년들의 부모교육이 법제화 되고 의무화,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활성화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상담내용’ 부분에서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 다양화, 정신병리, 자살,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입에 대한 요구 증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리 문제의 증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득층 상담 등 소외계층의 상담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교육의 필요성 증가,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 증가, 예방 및 발달상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시사점 및 논의점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상담서비스의 전달방식의 변화에 대한 전망

1) 다학제간 접근 또는 팀 접근으로서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 델파이 연구, 상담관련 기관의 의견, 최근의 상담 관련 정책 및 서비스 경향 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상담 영역은 '상담'만을 강조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복지전문가, 정신보건전문가, 교육전문가가 다학제 간의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이러한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해결하는 '다학제간' '팀 접근'의 영역이라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2) 통합지원 연계 체계 내의 상담

전문가 델파이 연구, 외국의 상담서비스 경향, 최근의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의 조사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연결하는 연계 체계 내에서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의 상담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의 팀 접근을 매우 강조하게 된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청소년 관련 통합정부 부처에서 청소년을 위한 통합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청소년청'이 중앙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정부에서도 원활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통합된 지원체계를 최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델파이 조사와 관련기관의 의견조사에서도 통합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이후의 상담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기관종사자들은 보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확보된 정부위탁기관과 민간 상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각 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서로 협조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3) 상담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강조

위의 팀 접근의 상담, 통합지원 연계 체계 내의 상담과 함께 강조되는 또 다른 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 전문가의 경우 '상담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즉, 다학제간의 팀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상담 전문가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오히려 전문상담 영역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체계와 서비스체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폭력 및 성피해 문제, 정신건강 문제, 자살 등의 위기문제, 인터넷 중독, 비행 및 가출,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상담전문가'의 경우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증된 상담 기법'에 숙련된 상담자를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아동청소년 상담관련 기관의 의견일 뿐 아니라 이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 프로그램의 선정과 관련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담자의 전문성도 중요함을 시사 하는 것이다. 즉, 각 학교폭력 및 비행, 자살, 약물 등의 청소년 위기문제와 관련된 모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받아 각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각 상담 프로그램의 전문성 뿐 아니라 상담자들의 전문성의 보장도 꾀하고 있는 것이다.

4) 지역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의 시행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및 기관 욕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은 그 지역적 특성과 기관에 따라 상담서비스가 특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주요 문제나 대상에 특화된 상담 서비스가 개발될 수도 있으며, 아동 학대 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쉼터 등과 같이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가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상담 표준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등이 있겠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지역 및 기관 특성에 맞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정,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모델을 연구,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노력 또한 지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할 것이나,

동시에 지역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을 통한 조사연구에서도 아동 학대 보호전문기관에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사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문화지역, 조손가정지역 및 다양한 지역적·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5) 사이버 및 온라인, 핸드폰 채팅 상담 등의 다양한 매체상담 증가

온라인 및 사이버 상담과 같은 다양한 매체상담의 증가는 2000년 이후에 예견되어온 것으로 상담서비스의 변화를 볼 때 유코넷의 구축과 더불어 사이버상담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적상담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에 대한 투자와 개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욕구변화와 관련하여 최근의 두드러진 변화는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이나 스트레스 활용이 인터넷, 전화, TV등의 매체 활용이 급증한 것으로 볼 때 이들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이러한 경향은 전문가 텔파이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상담의 효율적 활용은 아마도 추후의 공적서비스 영역에서의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효율적인 상담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시스템과 매체상담의 다양한 방법 뿐 아니라 아직 채 마련되지 않은 매체상담의 표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6) 단기상담의 증가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에서 예견되는 또 하나의 특성은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단기상담의 증가이다. 이는 공적서비스 상담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으로 동일한 예산 즉 세금으로 더 많은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공공성과 형평성의 논리에 근거하여 중요시 되는 부분일 것이다.

단기상담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그 중요성이 거론되고 '얼마나 효과적인 개입방식을 사용하여 더 적은 회수의 상담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이미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소년상담의 책무성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 증가

앞으로의 청소년상담은 단지 상담을 실시하고 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것의 효과나 책무성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 델파이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서비스 경향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OJJDP에서는 이미 각각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모델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있으며, 공적 상담서비스 기관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만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실시되는 공적 상담서비스의 경우에는 단지 몇 명의 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는가 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의 청소년상담서비스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고려하는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임을 전망하는 것이다.

다.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의 대상과 영역

1)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대상과 영역의 포괄성에 대한 차이

과연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그럼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렵고 논의가 분분한 것은 이와 ‘청소년상담’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명제가 매우 포괄적이며, 이로 인해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선진국의 정책방향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는 것에는 어느 나라도 이견이 없는 듯하며,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 영역으로 보여진다. 특히 유럽의 경우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국가의 복지영역에 편입시켜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유아의 출산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를 국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여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청소년청’이라는 기관에서 미리 예방하고 개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상담 관련 서비스의 내용이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 또한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등의 주요 부처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

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며, 따라서 공적서비스로 실시되는 청소년상담은 유럽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떠한 선진국의 모형을 따를 것인가는 환경적 특성, 예산 범위 등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할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의 방향도 설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2) 명백한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영역

(가) 위기청소년 상담

2003년의 제 5차 청소년기본법의 강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이에 대한 상담지원이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공적서비스로서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모두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다만 이들을 어떤 기관에서 누가 개입하는지에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문제 영역에 따라 관련 부처의 담당 기관에서 이들을 개입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청'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취약 계층 청소년

취약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개입 또한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더 나아가 한부모가정에 대한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적 개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시설 및 보호기관 청소년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돌봄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의 발달과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담개입 서비스가 지원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이전의 학대 및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 상담개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요구 또한 크며, 외국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라) 청소년 자립

21세기에 들어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및 시설, 위기청소년을 위주로 Youth Build라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취약계층 및 시설,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생산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개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시작하였으며, 두드림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자활관 등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라) 학교상담

모든 청소년이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임은 명백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학교상담의 강화로 고려된다. 이는 청소년상담의 대중화와 일반화 논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으로 학교내 상담이 강화되고 대부분의 학령기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문제이고 이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현실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3) 논의의 여지가 있는 공적서비스 청소년상담 영역

몇 가지 영역의 청소년상담에 대해서는 공적서비스의 제공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있다. 취약계층이 아닌 청소년의 진로상담, 일반적인 성격적 문제, 부모와의 갈등 등의 위기수준이 아닌 유형의 문제들의 경우 외국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상담에서 감당하는 영역이나 우리의 경우에는 지역센터 중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많이 감당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과의 노력에 의해 학교상담의 강화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학령기에 속한 많은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1차적으로 학교상담 영역에서 감당한 후 위기수준이 높거나 기타 지역기반의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등의 그 영역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청소년위원회. 제3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6, 2007년도 시행계획. 국가청소년위원회
- 금명자, 김택호, 강진구, 안희정(2000). 청소년을 위한 다중-전문가 팀접근 상담 체제.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69-184.
- 노승용(2006). 델파이 기법 :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연구원, 국토, 299.
- 맹영임 외(20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문화관광부(1998).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시행계획
- 문화체육부(1993). 제1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4년도, 1995년도, 1995년도, 1997년도 시행 계획.
- 박경준(2008).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 :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 예측. 국토연구원, 국토, 317.
- 박성수(2002). 청소년 상담모형의 정립과 발전과제. 「한국에서의 청소년상담-미래와 전망」. 제9회 청소년상담학세미나 종합자료집.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성수, 김창대, 이숙영(2000). 상담심리학. 서울:한국방송대학출판부.
- 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김택호(1993). 청소년상담교육과정개발연구. 서울:청소년대화의광장.
- 박종삼(1999).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정책. 청소년상담정책론.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서영인(2008). 대학경쟁력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 및 지표의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보고 보고자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2.5.
- 이성진(1996). 청소년상담 발전의 방향과 과제. 제3회 청소년상담학세미나 자료. 서울: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숙영(1999). 우리나라의 청소년상담정책. 청소년상담정책론.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재창(1993), 청소년상담학의 발전방향 모색, 제1회 청소년상담학세미나 자료.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창호 외(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청소년위원회.
- 이혜성, 이재창, 금명자, 박경애(1996). 청소년 개인상담. 서울:청소년대화의광장.
- 정옥분(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청소년백서(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 체육청소년부(1991).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체육청소년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관련 제 1차 종합토론회 정책토론회 자료.
- Dryfoos, J. G.(1990). Adolescents at ris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dward, L., C., Lim, B. K. B., McMinn, M. R., & Dominguez, A. W. (1999). Example of collaboration between psychologist and eer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0(6).

참고사이트

- <http://de.wikipedia.org/wiki/T%C3%A4ter-Opfer-Ausgleich>
- <http://leipzig.de/de/buerger/service/dienste/soziale/street/>
- <http://mentalhealth.samhsa.gov/>
- <http://mentalhealth.samhsa.gov/child/childhealth.asp>
- <http://nccic.acf.hhs.gov/>
- <http://nccic.acf.hhs.gov/afterschool/index.html>
- <http://nccic.acf.hhs.gov/hcca/>
- <http://nccic.acf.hhs.gov/itcc/>
- <http://ojjdp.ncjrs.gov/>
- http://www.acf.hhs.gov/programs/cb/programs_fund/discretionary/community.htm
- http://www.acf.hhs.gov/programs/cb/programs_fund/state_tribal/capta.htm
- http://www.acf.hhs.gov/programs/cb/programs_fund/state_tribal/cbcap.htm
- <http://www.acf.hhs.gov/programs/ccb/ta/ccarc/index.htm>
- <http://www.acf.hhs.gov/programs/ccb/ta/conf/index.htm>
- <http://www.bmfsfj.de/>

<http://www.bmvbs.de/>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http://www.bundesregierung.de/nn_774/Content/DE/Artikel/2007/05/2007-05-08-pks-kriminalstatistik2006.html
<http://www.ccpas.co.uk>
<http://www.childcareaware.org/en/>
<http://www.crc-japan.net/index.php>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socialcare/safeguarding/youngrunaways>
<http://www.isa-gov.org.uk>
<http://www.leipzig.de/jugendamt/>
<http://www.ojp.usdoj.gov/BJA/grant/great.html>
<http://www.samhsa.gov>
http://www.samhsa.gov/About/ProgramsInBrief_508.pdf
<http://www.stmas.bayern.de/familie/programm/kjp980.html>
<http://www.stmas.bayern.de/gewaltschutz/beratung/taeter.htm>
<http://www.spo.go.kr>
<http://www.vanderbilt.edu/csefel/>
http://www.diemuenchner.de/Jugendamt_Muenchen.html
<http://www.leipzig.de/jugendamt>

title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identity and objectives of youth counselling at a change-oriented time where child-adolescent policies are being integrated. In particular, the study explored the forms in which and to whom youth counselling may be best delivered as a public service, and the strategies need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youth counselling.

The study consists of six major lines of research, whi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n study 2, investigation took place on the evolving definitions of youth counselling and theoretical viewpoints on youth counselling from the perspective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cognitive development. A review of youth counselling public policies administered by 6 government ministries was also conducted. In study 3, draft plans as well as a 5-year development plan for adolescents were examined. In addition, of the policy tasks specified in the government's (Ministry of Adolescent Physical Education,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Ministry of Tourism, and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annual implementation plans from year 1993 to 2007, counselling outreach policy tasks executed by the 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and local youth (counselling) support centers were analyzed. In study 4,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youth counselling services for the past 15 years were surveyed, with a focus on the research, projects, and preliminary counselling administrations of the 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and counselling trends in local youth counselling centers. Such transformations in the contents of counselling services have been found to move along with changes in youth-related policies. Moreover, findings indicated that the

utilization rates of youth counselling services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through the use of cyber–counselling and other online resources.

Study 5 analyzed changes in adolescents' lives and worries of the past 15 years. The results suggested that future public services provide career education for adolescents with career or academic problems, and especially for low–income adolescents. The study also mentions the development of cyber–counselling or free online services for the internet–savvy and fast–changing adolescent population, as well as social attention for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underprivileged backgrounds such as thos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randparent–raised adolesce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Study 6 is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youth counselling policies and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In the United States, youth services are independently delivered by each ministry within its own function, includ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Labor, and Department of Justice. In Europe, the services are managed by a single department. Areas of counselling for the public services tend to be centered around issues of abuse, delinquency, running away behavior, crisis counselling, underprivileged groups, and independence support.

Study 7 uncovered a lack of support for professional counselling in projects run by child–related institutions that involve counselling to a great extent. In particular, objectives for counselling services as a public sector were proposed, such as support for and management of counselling personnel, support for additional services for low–income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network building and operation, which may be rather challenging tasks for the private sector. In study 8, Delphi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prospects of youth counselling in the public service sector. In the 'Operating Structure and System' section, experts reported an increase in demand for public services and counselling in general, and needs for a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promotion of local youth counselling systems and their liaisons, system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es of

counselling, an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y regarding counselling outcomes. Experts also suggested aid for underprivileged families such as those in poverty or multicultural families, intervention for at-risk youths including reclusive adolescents and those with internet addiction, provision of career counselling, and general preventive education through school counselling.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one concerns the outlook on the ways in which youth counselling services should be delivered. The current study proposes that future youth counselling will take the form of multidisciplinary or team approach, and that it should be operated within each local integrated support link system. Furthermore, results indicate that counselling services should become more professional and tailored to loc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at media counselling such as cyber- or chat-counselling and short-term counselling be more encouraged. The second implication of this study lies in the outlook on counselling effectiveness and responsibility. Future counselling services should advance from simple execution of counselling to evaluating their effectiveness and developing model programs based on such understandings. Finally, regarding topic areas and target populations of youth counselling as a public service, it is suggested that counselling of at-risk adolescents, underprivileged youth, adolescents in institutions or facilities, and adolescent independence be the primary areas of youth counselling as public service, while general adolescents may be cared for through an improved school counselling system.

부 록

1. 청소년실태조사 설문지
2.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서면자문지
3. 델파이 1차 조사 설문지
4.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부록1> 청소년실태조사 설문지

자신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인터넷 사용이란 웹서핑, 채팅, 온라인 게임 등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활동)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4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5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인터넷을 하느라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7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8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9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들과 마찰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인터넷을 하는 꿈을 꾸다.	①	②	③	④
12	인터넷 사용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①	②	③	④
13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가장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14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미진진해진다.	①	②	③	④
15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16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다.	①	②	③	④

17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8	인터넷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란 없다.	①	②	③	④
1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20	만약 인터넷을 다시 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21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22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23	인터넷 사용 때문에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터넷 사용을 그만두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4	인터넷을 할 때 누가 방해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25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①	②	③	④
26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7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28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29	실제 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30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1	인터넷을 하느라고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2	부모님 몰래 인터넷을 한다.	①	②	③	④
33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①	②	③	④
34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기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5	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6	인터넷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37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38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3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40	주위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학교는 나의 기대와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에 가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각 교과 수업 내용을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한 시간당 수업의 분량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과제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수업시간에 집중이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선생님들께 칭찬을 많이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스스로없이 선생님을 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나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24	선생님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래에 적혀 있는 문장들을 잘 읽으신 후 근래에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해 주세요

번호	문 항	거의 드물게	때로	상당히	대부분
1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도 신경에 거슬렸다.	①	②	③	④
2	입맛이 없어서 별로 먹고 싶은 기분이 안 들었다.	①	②	③	④
3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어도 우울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4	나 자신이 남들 못지않게 관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6	기분이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9	내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0	두려운 기분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1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13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4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6	즐겁게 지냈다.	①	②	③	④
17	느닷없이 눈물이 나곤 했다.	①	②	③	④
18	슬픈 기분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20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다음의 문항들은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셨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의 설명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3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6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9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알아서 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힘들 때 용기를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정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19	너무 걱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21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에 대해 덜 걱정하셨으면 하고 바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일이든지 쉽게 몰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군데에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복잡한 일을 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앞 뒤 생각 없이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 까지 한결같이 계속 붙들고 늘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①	②	③	④	⑤
13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게 방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수업시간이나 친구들과 얘기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정해진 규칙이나 지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있어야 할 때 차분히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시간이나 다른 일을 할 때 잘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먼저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일이라고 끝날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기쁜 일로 흥분했을 때나 꾸중을 들어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라도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스릴과 모험보다는 안전을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당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부모님의 학력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 1-1. 아버지 ① 초 졸 ② 중 졸 ③ 고 졸 ④ 대 졸 ⑤ 대학원 이상 ⑥ 모른다
 - 1-2. 어머니 ① 초 졸 ② 중 졸 ③ 고 졸 ④ 대 졸 ⑤ 대학원 이상 ⑥ 모른다

2.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50만원 미만 ② 150-300만원 미만 ③ 300-450만원 미만
 - ④ 450만원 이상 ⑤ 잘 모르겠다

3. 현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3-1.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②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 ③ 부모님이 별거 중이시다 ④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 ⑤ 직업상, 학업상의 이유로 가족이 따로 산다.

4. 형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나 혼자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5. 당신의 부모님의 직업형태는?
 - ① 부모님 모두 경제활동을 하신다 ② 두 분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③ 아버지 혼자 경제활동을 하신다. ④ 어머니 혼자 경제활동을 하신다.

6. 당신의 최근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평균 60점 이하 ② 평균 61-70점 ③ 평균 71-80점
 - ④ 평균 81-90점 ⑤ 평균 91점 이상

7. 최근 6개월 간 학교생활에서 당신의 결석횟수는?
 - ① 없다 ② 1-5회 이내 ③ 6-10회 ④ 10회 이상

8. 최근 6개월 간 학교생활에서 당신의 지각횟수는?
 - ① 없다 ② 1-5회 이내 ③ 6-10회 ④ 10회 이상

9. 최근 6개월 간 우리가족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 ① 거의 없다 ② 30-1시간 이내 ③ 1-2시간 정도 ④ 3시간 이상

10. 당신이 여가시간이 생길 때, 주로 하는 취미는?

11. 당신에게 인터넷사용 보다 더 재미있거나 대체 할 만한 활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록2>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서면자문지

서 면 자 문 지

* 귀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직접 기재해 주세요.

1. 정확한 기관 명칭은 ?

2. 귀 기관은 다음 중 어떤 시설(단체)에 해당합니까?

- ① 아동 복지시설(단체)
- ② 아동 보호시설(단체)
- ③ 아동 활동시설(단체)
- ④ 청소년 복지시설(단체)
- ⑤ 청소년 보호시설(단체)
- ⑥ 청소년 활동시설(단체)
- ⑦ 성매매피해 청소년지원시설(단체)
- ⑧ 기타 시설(단체)(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_)

3. 귀 기관은

- ① 정부기관단체(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기타 _____ 부 소속)
- ② 민간단체
- ③ 법인단체(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기타 _____ 부 소속)
- ④ 기타 (_____)

3. 귀 기관에서는...

- ① 상근직 ()명, 파트타임직원()명, 자원봉사인력()명
- ② 기타()인력 ()명

4. 귀 기관의 직원, 파트타임 직원, 자원봉사자들은....

-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명
- ②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명
-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명

- ④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명
- ⑤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명
- ⑥ 기타 ()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명
 ()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명
 ()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명

5. 주요 서비스 대상은 누구입니까? (서비스 대상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학령전 아동() ② 초등학생() ③ 중·고생 ()
- ④ 학부모 () ⑥ 교사() ⑦ 기타 (_____)

6. 귀 기관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 중 상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5장의 용지를 첨부하오니 부족한 경우는 A4용지에 내용만 기술하시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3> 델파이 1차 조사 설문지

「공적서비스 영역에서의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

델파이 제 1회 설문

1. 향후 15년간(2009-2024)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다섯 가지를 적어주십시오. 특히, 희망하는 변화가 아니고 예상되는 변화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부록4>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공적서비스 영역에서의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 델파이 제2차 설문					
<p>다음 내용은 「공적서비스 영역에서의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 과 관련된 ‘운영체제 및 제도’ 와 ‘상담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1. 향후 15년간(2009-2024)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및 제도’ 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5점 척도 내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또한 평가준거 외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기타 의견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p>					
1. 청소년상담 시스템 운영					
① 공·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					
평 가 준 거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1. 청소년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심화되고, 논의가 활성화 될 것이다.	1	2	3	4	5
2. 공적 서비스 및 전반적 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이다.	1	2	3	4	5
3. 공적 상담소가 민영화되거나, 새로운 민간 상담기관이 증가될 것이다.	1	2	3	4	5
4.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는 약화될 것이다.	1	2	3	4	5
5. 사설 상담기관 간 혹은 상담 전문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6.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은 유료상담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것이며, 비용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들을 중심으로 공적 상담서비스가 실시될 것이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② 공적상담서비스 체계의 변화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7. 공적 상담 서비스 기관에서는 사설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1	2	3	4	5
8. 획일화된 공적서비스기관의 체제가 전문가의 수나 규모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다.	1	2	3	4	5
9. 청소년 상담의 학문간 융합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1	2	3	4	5

10. 다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1	2	3	4	5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 의 하 지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11. 소아청소년정신과, 사회복지, 상담 및 심리치료, 위기지원체제 등이 상호연계 될 것이다.	1	2	3	4	5
12. 청소년 상담에서는 상담과 복지부분이 강화될 것이다.	1	2	3	4	5
13. '상담' 의 독립적인 학문적 위상이 확보될 것이다.	1	2	3	4	5
14. 청소년 상담기관의 서비스 대상은 개인보다는 집단 및 기관차원으로 변화될 것이다.	1	2	3	4	5
15. 공적서비스로서 청소년상담기관은 직접개입보다는 공·사적개입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2	3	4	5
16.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 상담에서는 지역 중심의 청소년 상담체제 및 시스템 연계가 활성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1	2	3	4	5
17. 공적청소년 상담기관에서는 상담 제도와 행정이 체계화되고, 서비스 제공 부서가 다양해질 것이다.	1	2	3	4	5
18.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전달체계가 통합될 것이다.	1	2	3	4	5
● 기타의견 :					
③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화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 의 하 지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19. 서비스 방법이 다양화될 것이다.	1	2	3	4	5
20.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1	2	3	4	5
2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전문화 될 것이다.	1	2	3	4	5
22. 상담 및 교육의 시간대와 장소가 다양해질 것이다.	1	2	3	4	5
23. 이동통신 및 컴퓨터를 통한 상담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24. 화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1	2	3	4	5
25. 사이버상담이 전문화될 것이다.	1	2	3	4	5
26. 단기상담이 활성화될 것이다.	1	2	3	4	5
27. 동물을 이용한 청소년 심리치료 확대될 것이다.	1	2	3	4	5
● 기타의견 :					
2. 정책과 제도					

①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제도의 변화 전망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 의 하 지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28. 청소년상담정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가 변화될 것이다.	1	2	3	4	5
29. 국가운영중심의 공적서비스가 지자체별로 특화 될것이다.	1	2	3	4	5
30. 청소년상담을 제공하는 주체와 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1	2	3	4	5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 의 하 지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31. 상담의 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상담의 효과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1	2	3	4	5
32.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확립될 것이다.	1	2	3	4	5
33.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1	2	3	4	5
34. 비행청소년들의 부모교육이 법제화되고 의무화될 것이다.	1	2	3	4	5
35. 아동청소년 상담서비스 전달자들이 준 사법적 결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1	2	3	4	5
36.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투자로써 전문학교상담인력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1	2	3	4	5
37.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다.	1	2	3	4	5
● 기타의견 :					
3. 상담전문인력					
①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 의 하 지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38. 상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이 향상될 것이다.	1	2	3	4	5
39. 상담인력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1	2	3	4	5
40. 상담서비스 전문가 집단 간의 역할 갈등이 과열화될 것이다.	1	2	3	4	5
41.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상담 전문가가 유입될 것이다.	1	2	3	4	5
42. 청소년상담인력이 타 기관(교육부 및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이동할 것이다.	1	2	3	4	5

● 기타의견 :					
②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 의 하 지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43. 청소년상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변화될 것이다.	1	2	3	4	5
44. 비형식적인 교육제도가 확장될 것이다.	1	2	3	4	5
45. 기존의 심리치료 중심 교육과정이 퇴조될 것이다.	1	2	3	4	5
46. 교육·특수교육·법적·약물에 대한 지식·구체적 사회기술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대두될 것이다.	1	2	3	4	5
● 기타의견 :					

II. 향후 15년간(2009-2024)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 전반에 걸쳐 '상담내용'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5점 척도 내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또한 평가준거 외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기타 의견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상담서비스 영역의 확장					
①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					
평 가 준 거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 의 하 지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1.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이 다양화되고,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1	2	3	4	5
2. 청소년상담의 대상이 일반화되고, 대중화 될 것이다.	1	2	3	4	5
3. 청소년 대상이 저연령화 될 것이다.	1	2	3	4	5
4.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양식 변화로 인해 건강하고 성숙된 인간에 대한 해석이 변화될 것이다.	1	2	3	4	5

● 기타의견 :					
②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전망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 의 하 지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5. 청소년의 정신병리, 자살,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입 요구가 증가될 것이다.	1	2	3	4	5
6. 정서불안정, 주의산만, 충동성, 자살충동 등을 다루는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1	2	3	4	5
7.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8.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 질 것이다.	1	2	3	4	5
9. 비행, 가출청소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1	2	3	4	5
10. 청소년 교도상담 및 교화상담이 확대될 것이다.	1	2	3	4	5
11.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대책 기능으로써 청소년 상담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1	2	3	4	5
12.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리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13.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1	2	3	4	5
1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1	2	3	4	5
15. 재난관련 상담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1	2	3	4	5
16.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득층 상담 등 소외계층 상담이 활성화될 것이다.	1	2	3	4	5
17. 맞벌이부부,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상담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18.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교육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19. 학교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이다.	1	2	3	4	5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 의 하 지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20. 학교 내 상담이 외부상담 전문가에 의해 개방될 것이다.	1	2	3	4	5
21. 학업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1	2	3	4	5
22.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23. 상담활동이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한 영역으로 포함될 것이다.	1	2	3	4	5
24. 내담자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2	3	4	5
25.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력방법이 퇴조될 것이다.	1	2	3	4	5
26. 인성 및 정서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이 요구될 것이다.	1	2	3	4	5
27. 예방 및 발달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1	2	3	4	5
28. 여가지도 및 여가상담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29.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상담이 증가될 것이다.	1	2	3	4	5
● 기타의견 :					